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8일)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코로나도 악천후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원력을 꺾지 못했다. 2년만에 열린 연등회서 불자들은 조계사 일대서 연등을 들고 거리에 나섰고, 언택트로 연결된 전국불자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했다. 박재완 기자

코로나·우천에도 '연등회' 불 밝혔다

봉축위,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도 우천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과 환희심은 막을 수 없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5일 '불기 2565(2021)년 연등회'를 서울 종로 조계사 일원에서 봉행했다. 시작은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식이 알렸다. 이날 연등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연등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등 내외빈들의 '희망과 치유의 등공양'으로 시작됐다.

원행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기 2565년 연등회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첫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라며 "연등회 안에 함께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자발적 참여 정신은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축하하기 위한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등재 기념사를 통해 "등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는 천년 이상 이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축제"라며 "세대전승을 온전히 지켜온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이어지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더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원행 스님에게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상 최초 '언택트 연등회'
참여 단체 줌 접속해 동참
인류무형유산 등재축하도

인증서를 전달한 김현모 청장은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8년만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인종, 종교, 나이, 성별을 뛰어넘은 세계인의 축제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문화재청도 연등회의 가치를 보존 위하기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계·연예계 등 각계 인사의 동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한국이 문화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으며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연등회가 세계인이 인정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됐다. 어려운 이웃의 희망이 되어주는 축제로 보존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이후에는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축소·진행됐다. 행렬은 조계사 일주문부터 안국사거리-공평사거리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2021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76면 발행

봉축특집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A10·11·14·15·18·19
평등 일구는 사람들 B1·2·3·6·7
기록으로 본 연등회 B12·13
데스크초대석 A5
제주 원명선원 한주인 대표 스님



리더에게 聽하다 C1·2
함승희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각 종단 봉축법어·봉축사 A7·8
봉축시방세계 A21
마산 반야불교학당 경전 강의 현장
봉축포토절소리 B21
봉축동화 B23
우승미의 '지금 여기 너와 나'

불법 정수 담은 종단본 〈불교성전〉 전국 보급 첫 발

중앙신도회, 5월 15일 '법공양 불사' 선포식

챌린지 · 나눔캠페인 전개
1인당 3명에게 성전 선물
원행 스님 "위 없는 공덕"
불교언론기관 업무협약도

송지희 · 노덕현 기자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조계종 종단본 〈불교성전〉의 전국적 확산을 이끌 법공양 불사가 첫발을 내딛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5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개최했다.

법공양 불사는 〈불교성전〉 챌린지 '법보시를 올립시다'를 주축으로, 군법당과 교정시설, 병원법당 등에 〈불교성전〉을 전하는 나눔캠페인, 손글씨 공모전과 독후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챌린지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을 지목해 〈불교성전〉을 선물하고 선물 받은 사람은 챌린지 인증샷을 전송하고 다음 동참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눔캠페인은 1차로 선정된 군법당 등 183개 기관에 각 10권씩 법공양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정충래 · 김상규 수석부회장,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김남명 제25교구신도회장 등 주요내빈, 〈불교성전〉을 제작한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와 불사를 함께 이끌어 갈 불교신문 사장 정호 스님, 김재진 현대불교신문 대표,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이선재 BBS 대표, 변대용 불교TV 국장 등 불교계 언론 대표가 참석했다.



중앙신도회가 5월 15일 '불교성전' 확산을 위한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포식 참석내빈들에게 〈불교성전〉을 전달하는 원력보살단 전달식을 통해, 법공양 불사가 부처님 가르침의 확산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적 차원에서 편찬을 주도한 첫 종단본 불교성전은 경율론 삼장에 전하는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새 시대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대중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시도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매우 깊다"며 "'불자를 불자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성전임을 알고 나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불교성전 법공양을 올려 단단한 연을 맺고, 나아가 불교성전을 이웃에게 권유하여 수지 독송하게 하는 것은 한량없는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중앙신도회가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원력을 세우고 나선 데 대해 깊은 격려를 보낸다"며 "현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불교성전은 손쉽게 읽고 독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항시 새기고 가까이 하면서 그 어떤 보배보다 뛰어난 공덕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도 "불교성전 속 '보현행원품'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은 법공양"이라며 "법공양 불사는 단순히 불교성전의 전파 차원을 넘어 삶을 밝게 만드는 운동이다. 법을 전하고 나누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내빈들은 1명 당 3명에게 〈불교성전〉을 법보시하는 〈불교성전〉 챌린지의 첫 포문을 열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국회정각회 이원욱 의원, 이기흥 불교포럼 대표를 챌린지 상대로 추천했으며,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방창덕 포교사단장과 국제포교사회 이재흥 회장, 교정교화전법단 혜오 스님을 추천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법공양 불사 전도선언을 통해 "오늘 불교성전 법공양불사는 단순한 성전을 전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전도의 길을 앞장서 나가겠다"며 "이 자리에서 시작된 법공양 불사의 울림을 전국 방방곡곡 불자들에게 전하며 한량없는 상생의 공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선포식에 앞서 김재진 현대불교신문 대표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 대표와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는 중앙신도회와 법공양 불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불교성전〉 보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업무협력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주관처의 역할로써 캠페인과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종사 22 · 명사 7명 특별전형 가결

조계종 원로회의, 5월 11일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및 명사 법계에 비구 22명, 비구니 7명의 스님이 오른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5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7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및 명사 법계특별전형 심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애초 4월8일 66차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월했다. 소위원회는 심사결과 대종사 22명, 명사 7명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조 스님(용주사), 각수 스님(월정사), 월성 스님(법주사), 법정 · 옹산 스님(수덕사), 법등 · 혜창 · 법성 · 도진 스님(직지사), 철형 스님(동화사), 효경 · 경선 · 정여 스님(범어사), 지안 스님(통도사), 도법 스님(금산사), 성오 · 진공 · 명공 스님(백양사), 현고 스님(송광사), 무착 · 정원 · 의정 스님(봉선사) 22명이 대종사 법계를 받게 됐다.

또 재희 스님(직할), 운달 스님(마곡사), 대웅 스님(수덕사), 일법 스님(직지사), 도문 · 영운 스님(통도사), 보각 스님(봉선사) 7명이 명사 법계를 받게 됐다. 송지희 기자

봉선사 천년 비밀의숲서 국난극복 염원

5월 11일 상월결사 자비 순례
750여 대중 모여 한마음 발원

햇볕은 따가웠지만 바람은 시원했다. 천년을 지켜온 비밀의 숲에서 불자대중들은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걸음을 이어갔다.

5월 11일 상월결사(회주 자승)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일환으로 '천년 숲을 걷다' 봉선사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본말사 자비순례는 고창 선운사와 합천 해인사에 이어 봉선사가 교구본사로서는 세 번째로 개최했다.

일반인의 발길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숲에서 걷기명상과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앞선 두 번의 순례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40여 명과 동국대 농구부, 동국대 의료원, 조광한 남양주 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도 참석했다.


봉선사 자비순례에 나선 사부대중들.

이날 입재식에서는 삼귀의에 이어 회주 자승 스님이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에게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은 죽비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대독을 통해 "봉선사는 교종 법맥과 선종 기상을 간직한 곳으로 봉선사 숲은 자연의 법석이다. 서로 자연 속에서 탁마하자"고 당부했다. 범해 스님은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원 차원에서도 전국교구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맞춤형 순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천년숲은 일반에 개방되지 않은 곳이기에 고민도 많았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수행문화를 통해 불교중흥을 이끌고 있는 자비순례가 더 오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곳 천년숲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원했다"며 "오늘 마음껏 걷고 상월선원 만행결사 원력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전국 본사에서도 자비순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년숲 걷기에 앞서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은 "오늘 불은(佛恩)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한다. 국민이 편안히 화합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한국불교 미래가 환히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입재식 후 대중들은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천년숲길 10km를 포함해 총 13km를 걸었다. 천년숲은 다른 순례길과 달리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산길이었지만 대중들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으로 낙오자 한 명 없이 극복했다.

회향으로 연지를 둥그렇게 둘러싼 대중들은 어장 인묵 스님의 회향 축원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한편, 교구본사 자비순례는 대흥사 등이 개최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이날 봉선사 자비순례에는 자비순례가 진행된 동화사(주지 능종), 선운사(주지 경우) 주지 스님을 비롯해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 2기 출범

총무원장 원행스님, 위촉장 수여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에 표창패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 2기 위촉식.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담보할 각종 불사를 추진 중인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가 2기 위원들을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21명 위원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는 백만원력결집불사 활성화를 위해 사부대중의 동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5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기 백만원력결집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기 위원회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위원장으로, 교구본사협의회장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기획실장 삼혜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교육부장 서봉 스님, 포교부장 정인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중앙종회사무처 사무총장 우봉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 이금석 · 이보연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종단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 및 승려복지기금 모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종단 불사의 원만한 추진과 승가공동체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남산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보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회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부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원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지공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 총무 대각심(김경숙) / 임원 혜명심(박현숙) /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 부원장 혜담(이정민) / 국장 불심화(정형숙) / 무용 무애심(박순애) /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울산원장 법광 / 종무원장 성종 / 법사원장 목암
홍보부장 원명 / 부산부장 혜성 / 경기부장 자운 / 전남부장 혜명
구미부장 혜진 / 대구부장 혜련 / 청주부장 혜원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사업국장 종현 / 포교국장 덕운 / 종무국장 종연 / 서울국장 명덕
포교국장 청운 / 통영국장 덕인 / 포교국장 혜림 / 봉화국장 혜정 / 화순국장 보정
삼척국장 정허 / 영천국장 원명 / 통역국장 정연 / 포교국장 혜경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불교, '기후위기 극복' 팔걷다

천태종, 기후위기 시민강좌 개설
5월 22일~6월 12일 총 4주 간
불교환경연대, 봉축주간 캠페인
전남대도 종교역할 고찰 세미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천태종은 기후위기 인식 확산을 이끌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천태종 산하 NGO단체 (사)생명존중 환경포럼(이사장 무원)이 주최하고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가 공동 주관하는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가 그것이다.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 동안 안국동 서원빌딩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기후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강의와 워크샵을 통해 이에 대한 고민과 극복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마련된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총 8강좌로 구성됐으며 강사진은 미학자, 명상지도자, 생명윤리학자, 철학자, 과학자 등의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과학적 사실 뿐 아니라 지혜의 방법론으로서 마음, 사회, 자연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 강좌는 현장 강의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동시 진행된다. 5월 22일 오후 1시 첫 강좌는 권희중 생태적지혜연구소 연구원이 '기후변화, 일, 건강'을 주제로 강의한데 이어 임지연 미학의 집 소장이 '기후변화와 생태감수성'을 강의한다. 한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강의 주제와 관련한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5월 29일 오후 1시에는 이승준 광운대 강사가 '기후변화와 소수자'를, 전병옥 기술마케팅연구소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강의하며, 6월 5일 오후 1시에는 이나미 한서대 연구교수가 '기후변화와 생태시민성'을 주제로,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장이 '기후위기 실태, 원인, 전망'을 주제로 진단한다. 6월 12일 오후 1시에는 장윤석 생태적지혜연구소 연구원이 '기후위기와 탈석탄, 그리고 녹색평화'를, 이어 문윤형 명상지도자가 '기후변화와 마음의 생태학'를 강의에 나선다.

이번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는 대한불교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되며 5월 20일까지 현장강의 20명과 온라인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2)730-2401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기후행동, 녹색사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230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공동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각종 부작용에 직면한 지구와 지구상의 뭇생명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생명 존중을 통한 실천행에 나서자는 취지다.

캠페인은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행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동참사찰은 불교환경연대가 배포한 포스터를 경내에 부착하고 △채식하기 △빈그릇 운동 △일회용품과 비닐·플라스틱 줄이기 세 가지 실천방침을 실천했다. 개인 서약서도 함께 제안해 서약동참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이후 '환경보살의 한끼 채식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소장 송오식)도 5월 14일 '기후위기 시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과도한 탄소가스의 배출로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의 학자와 환경시민단체가 발제와 토론자로 나섰다.

불교에서는 안필섭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개신교 대표로는 전남대 최병주 교수와 성결대 오은열 교수가, 가톨릭은 세종대 전의찬 교수, 원불교는 원영상 원광대 교수가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종교계 역할을 고찰했다.

"선리 전하는 선법가, 정신 진화 발전"

〈禪理〉 〈禪法歌〉

'대행선사 9주기 다례재' 봉행
한마음선원, 5월 12일 본원서
'선법가' 추모영상 큰울림 선사
선원 유튜브채널 동시 생중계



한마음선원은 5월 12일 '묘공당 대행 선사 9주기 열반 다례재'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와 포교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신을 선양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고(苦)가 높아진 작금의 현실에서 일생동안 중생 제도를 펼친 대행 선사의 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이 행사는 대중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12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9주기 열반 다례재'를 봉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침에 따라 이번 다례재는 한마음선원 문도 스님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및 주요 임원 300여 명만이 참석했다. 행사 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이자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과 前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등이 헌화 분향 했다.

이어진 다례재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 헌화로 시작되었다. 또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대행 선사를 향한 추모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많은 신도들이 계신다. 그 분들에게 일일이 모두 감사한 마음 뿐"이라며 "선법합창단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이고 자긍심이다. 악보도 못보고 그랬던 합창단원들이 큰 스님 말씀 잘 받들어서 이렇게 음성공양들을 훌륭히 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내년 10주기를 맞아 대합창제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악회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늘 신도들이 합창을 준비한 영상을 보며 한편의 작은 합창제를 본 것 같아 감동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문도를 대표해 혜염 스님 등 5명의 상좌들이 '스승의 은혜'를 불러 사부대중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였다.

이어 진행된 추모특집 영상에서는 선법가(禪法歌)를 만들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며, 불법의 묘미를 저절로 깨닫도록 이끄신 대행 선사의 뜻을 일깨움과 동시에 선법가의 지나온 역사도 함께 조명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부친 故서창업 불교음악 작곡가의 뒤를 이어 불교음악가로 활동중인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서윤재 지휘자는 영상 인터뷰에서 "합창단들은 선법가 소절 한마디 한마디 마다 마음에 새기려는 심정으로 노래했으며 거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마음선원 본원 총무 혜룡 스님도 "일체 모든 생명들의 대화합의 장이며 법석이구나. 선사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고 법열감을 피력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한마음선원 본원과 국내외 22개 지원의 합창단원 609명은 지원 별로 각각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통해 '자유인의 한마음' '공무가' '선법가는' 세 곡을 온라인 음성 공양으로 올렸다.

한편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선원 입구에서 발열과 방문 기록 체크를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다례재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온라인으로 다례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종교 활동을 보여주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봉축 맞아 자비나눔·백만원력 기금 답지

조계종, 5월 13일 자비의 선물
종정 진제 대종사 1천만원 전달
전국 사찰·기업 후원도 잇따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이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종정예하 진제 대종사를 시작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전국 사찰·기업 후원도 잇따르고 있어 나눔실천으로 봉축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계종은 5월 1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백만원력결집불사 자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자비선물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백만원력결집위원장 금곡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등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쪽방촌 주민을 위한 자비의 선물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포장된 선물은 중림동과 영등포 쪽방촌 주민 600여 명을 위한 것으로 즉석밥과 컵라면, 참치캔, 김, 구운계란, 생수, 칼슘두유, 과일야채음료, 견과류바, 손소독제, KF94마스크가 한 박스에 담겼다. 이번 자비나눔에는 도반유통이 감로수 생수를, 매일유업이 과일야채음료와 두유, 에너지바 등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종정 진제 대종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나눔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에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비나눔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도 5월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20kg 쌀 100포와 마스크 3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을 소외이웃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임직원도 5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와 서울 강북구불교사암연합회,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는 불교 인재불사에 원력을 보탰다. 연화정토사는 5월12일 경내 법당에서 전달식을 열고 청소년 장학금 460만원을 쾌척했으며 강북구불교사암연합회는 청소년 장학금 13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강화 전등사도 강화 삼량고등학교 학생 등 총 12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2021불자대상에 박권흠·한금순·부석종

5월 19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권흠 회장, 한금순 역사학자, 부석종 총장.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원행, 총무원장)는 5월 4일 2021불자대상 수상자로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 한금순 역사학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선정했다.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봉직하면서, 교도소와 병원을 건립하는 등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진력했다. 현재는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의 차문화를 함양하여, 국민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아 선정됐다.

한금순 역사학자는 제주 근현대사 역사학자로서,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4.3사건의 불교계 피해 규명 및 제주 불교의 근현대사 연구를 통해 제주 지역사를 재조명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국민들을 위해 봉직하고 있으며, 해군사관학교 졸업한 이후 36년간 해군장교로 재임하면서,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안보확립에 지대한 공로에 불자대상자로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2565(2021).05.19
부처님 오신 날

늘 이웃과 함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국민과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길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표 충 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 산옹**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전화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교육의 초석, 민족정신도량 개원109주년

주지 **삼산 도문**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46
전화 055)246-8393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 대자유치원 055)245-0108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 인 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타인과 비교는 본래지닌 행복 쪼그라들게 해”

봉축 데스크 초대석

대효 스님
제주 원명선원 한주인

50여년간 조계종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효 스님. 스님은 1976년 제주도 화북에 개원한 원명선원과 참선재단을 문중 조카인 금강 스님(前 미황사 주지)에게 맡기고 지난달 떠났다. 여기에 2008년부터 일반인 대상의 간화선 포교 전진기지였던 활인선원 마저 후학에게 운영을 모두 맡겼다. 그리고 대효 스님은 올해 초부터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고 강원도 평창의 산골에서 운수납자로 걸림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본인을 무의한주인(無依閒主人) 즉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한가한 주인이란 의미로 자신을 소개했다.

인터뷰도 처음에는 한사코 사양했다. 몇 번의 삼고초려 끝에 간신히 5월 9일 강원도 봉평의 효석문학관서 대효 스님을 만났다. 스님께 2021년 올해 봉축을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반세기 동안 간화선 대중화에 힘써온 구도 역정을 들어봤다. **봉평=김주일 편집국장**



대효 스님은…1966년 경북 선산 대둔사서 서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8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제방 선원서 정진하며 당대 선지식인 서옹 서암 성철 향곡 경봉스님 등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1976년 제주도 화북에 원명선원을 열어 40여년 간 ‘고(苦) 땡 캠프’ 등 참선 수련회를 열어 재가불자들을 지도해 왔다. 또한 2008년 부터는 경기도 안성에 활인선원을 개원해 간화선 대중화에 함썼으며, 2010년 재단법인 참선재단을 설립해 조계종단에 등록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생활 속 행복을 위한 일상 수행법을 모색해 현대인들 스스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대중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여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 방안을 일러 주시지요.

=현대사회는 너무 균형이 깨지고 방향이 어긋나 있어서 바로 잡기위해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을 통해 전화위복으로 삼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근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행복이 나와는 동떨어진 나 밖에 있다고 보는 비뚤어진 시각에 기대고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닌 어딘가 밖의 나와 먼 곳에 안식처가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망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더 뛰쳐나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질 않으니까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은 외부와 차단하고 자제해 사람을 만나지 않는 자체 만으로도 백신이라고 받아드리면 위안 삼을 수 있겠지요. 밖에 있다고 믿던 행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고 삶의 방향을 내 안으로 되돌려놓으면 그때부터 온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1976년 제주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참선도량인 원명선원을 일으키셨는데요. 당시만 해도 섬지역 특성상 토속신앙과 뒤섞인 기복신앙이 대세인 제주에서 정통 조사선(祖師禪)을 전파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주서 포교를 시작한 연유와 녹록치 않았을 그 간의 포교 과정을 들려주시지요.

=1976년 겨울 한철 선방서 보내려고 제주에 왔다가 40여년 눌러 있게 됐죠. 당시만 해도 제주 불자들은 불심은 깊은데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군요. 특히 섬 지역 특성상 토속 신앙과 기복 신앙이 강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불교에는 밝고 큰 길이 있는데 길이 아닌데서 한사코 빌고 매달려서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그것은 위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고 연민이 쌓여서 결단을 감행했지요. 그래서 정통 조사선을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前 종정 서암 스님을 모셔와서 무차법회를 열고, 각종 참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포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잠들기 전에 하는 ‘침선’과 활동하면서 하는 ‘행선’ 등 수행법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일상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길로 이끄는 정통 조사선을 알리기 위해 진력 했습니다.

△제주 원명선원 수행 프로그램은 ‘구하지 않아도 깨달음이 저절로 다가오는 조사선 수행’을 모토로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특히 삼매 체험을 통해 빗나간 습관과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고통 끝 행복시작, 고(苦)땡 캠프’를 비롯해 연령별, 집단별, 성격별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조사선 콘텐츠들을 만드셨습니다. 계기와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한가지 일에 몰입하는 삼매를 경험하면 꼭 불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빗나간 습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깨침이 다가오는 무공용(無功用)의 경지를 맛볼 수 있죠. 고통 끝 행복 시작을 뜻하는 ‘고(苦)땡’ 캠프가 바로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 갈등 번민을 통털어 고통이라 하는데, 이 고(苦)를 끝내면 ‘땡’이 되는 것이지요. 고땡, 이렇게만 된다면 여한이 없기에 이것 저것 다 접고 고땡으로 질주를 한겁니다.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매달렸습니다. 기도도 접고 절 재정이 어려웠지만, 봉사자 스탭진들이 함께 해줘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재선 도의원 출신인 한 참가자는 ‘고땡’ 프로그램에 감화돼 의원직도 그만두고 지금까지도 스탭진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땡 캠프’는 유치원 초중고생 할 것 없이 제주도는 물론 국내외 전역에서 문의가 오는 등 호응도가 높았죠. 이전엔 없던 ‘자젠 침선’도 새 영역으로 끌어 들였고, 선농도 조사선적 시각으로 시작은 했으나 대중화까지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50년간 제주 원명선원서 간화선 대중화
‘고땡’ ‘자젠’ 등 참선 프로그램 히트시켜
2008년 활인선원 개원…참선지도 집중

어린이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연령대에 선적 바탕으로 이 시대의 고민을 해결할 방안으로 가능성을 보았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적용했으며, 세대 계층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실험성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죠.

△스님의 주도 하에 치러지는 수련회는 무엇보다 ‘무공용(無功用)’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물 흐르듯이 어느 순간 이뤄지는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평소 “조사선 정신은 힘을 쓰는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힘을 써서 이루고자 하면 깨달음을 거스르게 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역사상 최고의 당나라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이룩된 300년 조사선 문화는 인간의 존재적 측면과 가치적면을 무한 공간으로 넓혀 놓았습니다. 조사선의 극치는 인간을 인간 본연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털끝만큼도 걸릴게 없는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무위진인(無位眞人) 즉 사람을 극치에 이른 존재로 본 당대 최고의 조사선 정신이지요. 본래생사가 없다는 것이에요(本無生死). 본래부터 나고 죽음이 없는데 불법을 쓸 만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고 익히고 뼈를 깎고 심혈을 기울여 밤낮으로 열심히 연마해도 부족할텐데, 이와는 정반대로 하늘과 땅의 위치를 바꿔 놓을 만큼 다른 교훈이 당대 조사선 정신에 농축돼 있었지요. 차례 차례 힘써 배워서 얻으려 하는데 미련 두지 말고 정리를 분명하게 하라는 정신이에요. 수련 과정에 이 정신을 적용해서 매달리거나 쫓기지 않도록 여유로움을 받아들이고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 과정에는 굳이 시간표를 두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 두면 오히려 시간에 구속됩니다. 시간은 생각이고 시간의 관념을 허물어 버리니 시간의 고정관념서 벗어나는 진실하고 효과적인 체험이 되지요.

△스님 말씀대로라면 ‘일상 속에서 말을 듣다 깨닫는 법’이 조사선의 핵심 사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굳이 구하거나 얻으려 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뛰놀며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불교가 이 같은 조사선에서 획기적 불교 전통을 세우고 승속의 차별 없이 깨달음의 높은 고지를 평지로 끌어내리는 신기원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대에 들어서 지식과 신분 및 성별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일상의 평이한 체험으로 깨달음을 보편화한 대중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에 깨닫는다(言下大悟)라는 말을 선가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지요. 이런 문화에서 훗날 간화선도 잉태될 수 있었어요. 원활하게 계승하지 못한 여러 이유는 있지만, 한 생각 바꾸면 온 산을 통째 옮기는 일도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조사선은 매우 뛰어난 정신문화로 스승의 언어 한마디와 표정 및 행동을 면밀하게 살피면 제자의 일상이 우수한 일상 수행으로 승화됩니다. 일상에서 언어 한마디에 천금이 오가기도하고 찰나에 세상이 천만번 바뀌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중국 역사상 최고 문예부흥기인 당나라가 무너져가는 혼란한 시기에 촌철살인 같은 선의 어록을 많이 남기신 임제 선사를 멘토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눈과 귀가 밖으로만 쏠려있는 이들에게, 하늘과도 같은 부처님을 죽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제자인 조사를 죽이고, 충효의 근간인 부모를 죽이라는 ‘살불살조 살부모(殺佛殺祖 殺父母)’의 외침은 청천벽력과도 같은데요. 임제 선사는 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또한 현대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살불살조의 표현을 한 임제선사를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날 극과 극 흑백논리의 낮은 정신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대 문화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지요. 세계 역사상 가장 우수한 문화 전성기인 당대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는 것은 당시의 정신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았느냐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의 전개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구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당당하고 뛰어난 정신문화로 극찬되는 것도 당이 문을 닫고 송대에 접어들면서 잠시 잠깐에 그치고 끝을 맺고 말았지요.

오늘날 황금만능의 대가가 혼미한 정신문화로서 갈등과 고통의 물결로 넘실대는 사회상을 낳고 있다고 하겠지요. 전통과 풍습 관례의 틀을 벗어난 정신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인류 역사상 두드러진 절대적 주체의 인간 사상을 정확히 안다면 이 시대를 위기에서 건져내게 할 것입니다.

△화두 참구는 악한 자의 에너지마저도 긍정으로 돌리는 수행이며, 참선 공부를 위해 업장소멸 한답시고 기도할 이유는 없고, 화두 참구에 업장소멸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화두는 깨달음의 구경 즉 완성이며 화두참구는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화두를 제대로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선은 최상승 법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건 중요치 않습니다. 화두만 들면 단박에 생사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화두 참구는 악한 자의 에너지마저도 긍정적으로 돌리는 수행입니다. 백정도 모자란 사람도 한소식을 했죠. 참선 공부를 위해 업장 소멸 한답시고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화두 참구에 업장소멸은 불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새역사 쓰는 대전환 기회
화두참구는 긍정 에너지 돌리는 큰힘
과거 미래 생각지 말고 지금행복해야

서로 대화하는 이 순간, 학교 수업에서 강의할 때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 그 순간마다 삼매를 체험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촉발되면 깨달음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 듣다 깨닫는 법이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린애가 태어나 먹고자고 뛰놀며 저절로 어른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간화선은 일순간에 뛰어넘는 확철대오에 이르는 길임에 틀림없지요. 그래서 굳이 다른 관심사에 방황하지 말고 화두 의문을 갖는다면 화두 참구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잘 일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착한 정신을 쉽게 포기 말고 일상 활동 중에 여유를 갖고 화두에 임하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화두 참구입니다. 그래서 화두 참구는 간결하고 빠르고 바로 들어가야 하며, 화두를 드는 순간부터 깨달음을 일상서 가느다랗게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2008년 부터는 경기도 안성에 활인선원을 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을 가르치며 간화선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힘쓰고 계신데요. 활인선원은 특히 축원이나 기도의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활인(活人) 즉 제 마음을 바로 보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쉽고 근본적인 길이란 믿음에 참선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거사가 제주 원명선원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수도권에도 이런 도량이 있다면 좋겠다고 발원해 현재 안성 활인선원 산자락을 마련해줘 2008년에 개산하게 됐죠. 시주자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도량이 되기를 발원해 활인(活人)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활인선원에 오면 조사선을 기본으로 쉽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원을 경영하지 않는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선원은 경영이 아니라 수행하는 곳이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원칙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인선원은 축원이나 기도 의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직 참선만 합니다. 인생의 성장은 결국 마음과 생각의 발전에서 옵니다. 생각이 막힐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해냄으로써 비로소 빛을 발하죠. 그때에 마침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자비심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면목만 제대로 보아도 잃어버린 인성을 찾아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참선의 목적인 것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딪히는 게 중생의 삶입니다. 일상서 마음이 부처님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숨은 쉬어지는데, 숨쉬기 힘들 만큼의 고통들도 속속 나타나지요. 어떻게 극복해야 최선을 다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힘들고 고통스러운게 세상은 아닙니다. 모두 어두운 세상으로 규정 짓다보니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밝은면 또 바람직한면 까지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지요. 어떤 사람이 한 눈만 갖고 한눈으로만 보고 사는데, 그 주위 사람들도 모두 눈을 하나씩만 갖고 있다고 합시다.

한 눈을 갖은 사람들은 조금도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이와 달리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사람만이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다면 외눈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두눈 박이를 어떻게 볼까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수군거리고 가깝게 가는 것조차 망설여지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와 비교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규정짓는 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과오입니다.

주변과 이웃과 대상과의 단순 비교로 결정짓는 어리석음처럼 무모한 짓에서 하루빨리 손을 씻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라는 다리를 훌쩍 건너 뛸 때 우리 사회는 힘 빼지 않고 성숙한 사회에 진입할 것입니다. 비교는 곧 죄악입니다. 비교가 죄악이 된다는 공식을 안다면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계층 간에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며 평화로운 사회가 펼쳐지겠지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크나큰 행복을 쪼그라들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최상의 지혜입니다. 이 지금의 순간은 누릴 때 느끼는 것이지 머리로 헤아려서는 그 바다보다 깊고 우주만큼 큰 오묘함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순간은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에 진 빚 미래에 질 빚을 모두 갚는 유일한 자리이며 도리입니다. 이 순간에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은 이자가 복리로 돌아와 도산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기 대승경전인 〈금강경〉서 ‘여래를 여래라 하면 여래가 아니다’ 라는 구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 머릿속 생각으로써만 여래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드라마틱한 과거, 영상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들. 자신을 감동 시켜 이 순간에 감격하고 오열하고 심장이 멈추게 하는데, 이는 오직 생각과 관념을 넘지 못하는 비현실이죠.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깨달음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면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아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인데 과거를 있는 것처럼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를 제단하고 오인해서 환상과 관념의 틀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나 자신을 옥죄일만한 사실적 근거라곤 이 세상 저세상을 아무리 샅샅이 파헤쳐도 찾을 수 없는데, 거짓에 속아 그것도 내가 나에게 속으면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대중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나라고하면 나또한 내가 아니다. 이렇듯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진실로 성찰하는 삶이 될 때, 또한 모든 존재가 생겨나고 또 사라짐이 싱그럽고 생기 넘치는 순간순간이 될때 우리가 사는 지금이 활발발로 펼쳐질 것입니다.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2
전화 055)055-262-6663

대한불교조계종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불도량 **기청사**

주지 묘혜공

법화원도회
법화경 독송회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77
전화 055)383-1256, 1292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주지 원택스님
총무 일능스님
겁외사 신도회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지원장 혜 근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상생과 화합의 지혜 얻는 날

자연과 인류, 상생의 존재

진제 대종사
조계종 종정



일과명주(一顆明珠)를 아는 이가 이 세상에 몇몇이나 될고.

우리 부처님께서 일과명주를 뚜렷이 증득(證得)하여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인연(因緣)이 도래하여 백상(白象)을 타고 마야부인의 태중(胎中)에 잉태(孕胎)하여 열달만에 우협(右脇)으로 출태(出胎)하심이라.

즉시 일곱 걸음 걸으신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제일기(第一機)의 법(法)을 베푸시니,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天上天下 唯我獨尊)

고금(古今)을 통하여 이를 지나갈 성인(聖人)이 있으리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모든 인류시여! 합장예경(合掌禮敬)합시다.

그러나 자세히 점검컨대, 다리아래 삼척(三尺)이로다.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독특한 안목(眼目)으로 진리(眞理)를 제시하고 세세생생(世世生生) 밝아 있는 것은 오직 불교(佛敎)의 진리(眞理)뿐이라.

오늘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大慈大悲)로 무명(無明)의 사바세계에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으로 강탄(降誕)하신 날입니다. 차별 없이 일체중생을 교화(敎化)하니 지옥문도 사라지고 유정(有情)들도 무정들도 법열(法悅)로 가득하니 시시(時時)가 호시(好時)이고, 일일(日日)이 환희가 충만한 날입니다.

온 지구촌이 거년(去年)부터 코로나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우월적 사고(思考)'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연과 인류(人類)는 상생(相生)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기원(祈願)하며 물려준 것이며, 또한 우리도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穩全)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契機)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시여! 부처님 전에 등공양(燈供養)을 올려서 다생의 업(業)을 소멸하고 무량(無量)의 복덕을 받으소서.

필경(畢竟)에 일구(一句)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파유조수부득(一把柳條收不得)해서
화풍탑재옥난간(和風搭在玉欄干)이로다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봄바람에 옥난간에 걸어 둠이로다.

집착과 어리석음을 떨쳐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은 한량없는 기쁨으로 이 날을 찬탄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뜻과 우주법계(宇宙法界)에 가득한 자비광명을 찬탄하고 또 찬탄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극심한 병고(病苦)를 앓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된 지 벌써 일 년 수개월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질병의 고통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봉축법요식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비록 힘드시더라도 모두가 환희로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이웃과 함께 염화미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매일 부처님오신날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오늘 하루만 부처님오신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고, 오늘 하루만 연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등을 켜는 마음으로, 부처님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뜻이니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떨쳐야 합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참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 나'와 '참 나'들이 하나로 모여 공생(共生)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축제로 기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삶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이렇게 조촐하게 봉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밝힌 등불은 그 어느 해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의 힘으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해 평화롭고 안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리라 여깁니다.

삼라만상이 길상의 시현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삼천대천 세계에 꽃향기 가득하고 일체중생의 마음에 환희가 솟구치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기쁜 날을 봉축하며 사람마다 연등을 밝히고 거리마다 오색 등을 내걸었으니, 이미 우주 법계는 진리의 본체요 삼라만상이 길상의 시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19' 질병과 경제불황으로 고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은 병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코로나 19'의 소멸을 기원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청정 일심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은 돌아올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하염없이 밝았듯이, 오늘 우리가 밝히는 봉축의 연등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모든 생명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평등 실현으로 공업 소멸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지난 1년간 전 세계는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방역과 경제의 대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노력에 온 힘을 모았으며 그 결과 이제 그 끝이 조금 보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종착지를 앞두고 희망의 결실을 사유화하려는 일부의 지나친 경쟁과 이기적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19사태는 탐진치에서 비롯된 이기의 인연을 누겁 동안 쌓아 온 공업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법은 대지혜로써 완전한 자비와 평등의 이치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구현해내는 것 뿐입니다. 일체 세간 모든 현상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설법이므로 지금의 고난은 참회의 거울이자 서원의 깃발입니다. 정진의 높은 고개를 바로 넘는다면 나눌수록 불어나고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기적을 현실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 실천이 바로 봉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지금 이 세상은 움직이되 움직이지 못하고, 만나되 만나지 못하는 소위 언택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나친 욕심으로 환경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미생물과 무생물이 살아가야 할 영역까지도 거침없이 간섭하면서 오히려 인간 사회는 자유가 통제되고 인격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불기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편의에 의한 지나친 생태계의 간섭을 피해야 합니다. 합리적 불편은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불기2565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의 실천이 바로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밝히면 어둠 사라져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불자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먼저 나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거둬내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비로자나부처님임을 믿고 현세정화(現世淨化)의 길을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은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지혜광명이 되는 것이며, 타인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비로자나부처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안팎이 하나의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 지혜가 될 때 현세정화의 길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현실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 비로자나의 맑고 깨끗한 광명이 나타나도록 우리 불자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잇고 실천하는 모든 불자 여러분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부처인 줄 알라

지허 대종사
태고종 종정



부처님은 본래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또한 머무르는 일도 없습니다. 하늘 땅을 나누기 전에 있었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었습니다. 태어난 일도 죽은 일도 없으니 사월 초파일에 탄생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는 고통을 끝없이 이어가야 하는 현상을 보고 이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여 모두가 부처 되게 하고자 사바세계에 오셔서 마야 부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인연을 사월 초파일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생노병사를 통하여 부처님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를 따라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 되는 까닭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천백억 화신입니다. 오늘 태어난 부처님 외에도 천백억의 몸이 있습니다. 중생을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수한 몸으로 변화하여 무량중생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월 초파일의 사부대중들이여. 일체 중생들이여.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의 법문이 끝없이 들립니다.

소박한 삶에 평안의 길이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대자대비의 실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외치신 거룩한 가르침이 고통과 혼란의 이 시대에 더욱 빛이 납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에서 부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지혜로운 마음에서 희망을 보고 자비의 실천으로 치유의 길을 갑니다.

꿈속의 일들이 깨고 나면 허망하듯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중생의 삶 속에 자기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목표이니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의 추구보다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 해탈의 평안한 길이 있습니다.

진리에 감응하는 세상을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내가 가장 존귀하다 하시고 지금 그처럼 부처님이 오시는 날

뭇 중생은 한 몸이라 사자후 한 소리, 내일도 부처님 오실 날, 뜻 모아 받들면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오십니다.

연등달아 불 밝혀서 초파일을 봉축하고 사람마다 마음 밭에 부처 씨앗 가꾸어서 슬기가 움 틔우고 자비가 싹을 돋우면 저이도 사랑스럽고 나도 자랑스러워서 아프고 괴로워도 삶의 기운 솟아납니다.

세상살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거늘 쉬운 일 즐거운 인생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낮과 밤 쉴 틈 없이 과학기술 일으키고 엄청난 생존경쟁 살아남아 미소 지으려면 앞집 뒷집 이웃도 마음에 품고 정진합시다.

눈뜨면 세상살이 이것저것 달라보여도 안으로 눈을 돌려 그 바탕을 살피면 하나가 여럿으로 여기저기 빛을 내고 그 빛이 다시 뭉쳐 결 맞추어 장엄하니 주객 노사 여야의 갈등은 어울림의 소식입니다.

칭찬은 치유 묘약입니다

법공 정사
불교총지종 종령



부처님오신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사바세계에 나투신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중생들의 삶의 고통을 멸하여서 마음 속에 영원한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고통을 멸하여 심청정(心淸淨) 불국토를 이루고자 함은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자 불교의 요체(要諦)라 할 수 있습니다.

가히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苦)의 소멸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이자 사성제, 팔정도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의 소멸은 우리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 지난(至難)한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으로써 고(苦)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데서 고통은 사라집니다.

마음 닦으면 누구나 부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승정 금당 목탁



看看佛祖的真面目就知道
부처님 참모습을 보고 바로 깨우쳐라.
要像佛祖
부처님을 닮아야 한다.
只要正心, 谁都可以成
마음을 바로 닦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不但要像佛祖,肚子也要像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습, 그리고 속까지 닮아야 한다.

중생과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의 고통을 소멸하는
부처님 탄신일 봉축이 되자.

아픔 치유의 등을 밝히자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니련선하에 빗소리가 떠나간 밤, 둥근달이 뜨듯 부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이 켜지듯, 부처님은 가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시고, 무명을 밝히며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모두 인간의 끝없는 탐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여의라는 부처님 말씀을 간과한데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매우 뜻깊은 법석을 열어야 하는 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토의 원력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가정을 위한 화목의 등, 코로나 치유의 등, 아픔을 위로하는 관세음의 등, 앞날을 환히 비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등을 저마다 불 밝혀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합시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신뇨엔은 매일 코로나극복기념, 희생자회향, 미증유의 사태수습에 진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南無眞如' 라는 진언을 외울 것을 권유해봅니다. '眞如' 란 지혜와 자비, 삼보의 공덕을 담은 구제의 힘이자, 귀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깃드는 마음의 빛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치료제, 백신 개발 연구와 함께 퇴치하는 힘의 결집은 '지혜' 이며,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배려하며 서로 돕는 것이 '자비' 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갑시다.

중생 널리 구제함이로다

동행승가단
총재 무송



奉獻燈燭三寶前
(봉헌등촉삼보전)에
一切光明遍法界
(일체광명변법계)요
照破三界之昏衢
(조파삼계지혼구)는
南贍部洲廣濟泉
(남섬부주광제천)이로다
삼보전에 등촉 밝혀 받들어 올리오니
일체 광명의 빛이 온 법계에 두루 하고
여례의 밝은 빛은 어두운 네거리를 타파하니
인간세상 모든 중생 감로수로 널리 구제 함이로다

상대방 존중하는 마음을…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진리법에 의지하면 희망과 기쁨이 따른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불행과 고통이 따른다.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불경에 수일사견(水一四見)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보면서 사람은 먹는 물로 보고, 물고기는 자기 사는 집으로 보고, 귀신은 활활 타는 불로 보고, 천상의 사람들은 감로수로 본다 합니다. 이렇게 중생들은 업에 따라 같은 대상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아직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중생은 언제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요. 허망한 허상에 바탕을 두고 산다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자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높이 떠올랐던 화살도 기운이 다하면 땅에 떨어지고 피었던 잎도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만 년 동안 비춰주는 해와같고 티없이 맑은 창공과 같아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로써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로 보고 내가 이웃이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도 하나가 되는 융화의 중도를 바로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모두가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잘사는 나라. 우리 모두 불국정토를 만들어 갑시다.

참된 삶 행하는 불국토를

현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부처님오신날 밝은 연등을 높이 들어 봉축하고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고귀한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삶을 되새겨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주는 참된 삶을 실천하는 불국정토 사회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집착 버려야 법성 만난다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복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봉축하며 무명 걷어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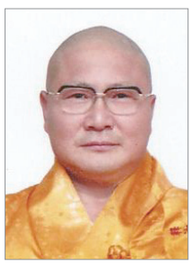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지리산 구재봉 무량겁 무량광불 풀섭에 놀고있는자, 일곱 봉우리 어찌 볼까 옥중 춘향이 어떤죄로 갇혀 있나요. 이현령 비현령 관장수청 거역죄라 독초가 무성하니, 상처는 예사롭고 예쁜 꽃잎 떨어지면 좋은 열매 얻으리라. 그대들은 못 보았는가 민심이 천심인줄 자비연등 불 밝힐 때 속죄하기 딱 좋은데, 인연없는 중생들 부처인들 어쩔거나,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며 무명을 걷어 냅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이라 심경여등(心敬汝等) 불감경만(不敢輕慢) 하며, 개행보살도(皆行菩薩道) 당득작불(當得作佛)이니라.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믿고 기도 정진하며 모두를 깊이 공경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보살도를 닦으면 코로나19도 박멸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마음 등불을 밝히시기를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두운 것은 가고 밝은 것이 오리라는 염원의 등불을 밝혀 일체중생이 이고득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들을 부처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쓰라린 상처를 부처님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껴안아 주십시오!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정진하면 언젠가 부처님전에 닿으리라는 믿음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각자의 등불을 밝히고 보람된 삶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온정 베푸는 자비행 하자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사바세계의 번뇌를 씻어주고 온 생명에 행복과 안락을 내려주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산천초목이 푸르러지는 화창한 봄날, 이 행복한 순간을 피부로 느끼며 온전히 만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축의 환희와 기쁨도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수많은 보살의 실천과 서원을 통해 모든 생명이 존귀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어려울 시기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아끼며 따뜻한 온정 베풀어 갑시다.

聲前眉語傳默然眼微笑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소리전에 눈썹 말이 전하고 묵연히 있다가 눈이 사르르 미소 짓네. 우리가 입으로서 말을 한다고 하지마는 눈썹이 말을 하고 눈만 꿈쩍 하고 눈만 떠도 불법의 소식을 전하고 다 통한다.
우리가 청과시장 가보며 어디 말을 하느냐? 손으로 값이 다 나온다. 그러니 진리법문(眞理法門)이라는 것은 진리(眞理)는 무언(無言)이라 이치(理致)는 말이 없고, 무법가설(無法可設)이라 법(法)을 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이 설법(設法)인 것이다. 코로나 극복도 눈으로 전달하고,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진리 추구하며 잘 삽시다

(사)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이기와 독선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직 '나' 만의 이익을 탐하고 안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과 아상은 다른 이를 미워하며, 해치고자 하는 무서운 몰이해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파경으로 이끄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불자로서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마음을 등불처럼 밝혀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심생종 종종법생(心生積 種種法生)
심 멸 종종법멸(心滅 種種法滅)
약불전법 도중생(若不傳法 度衆生)
필경무능 보은자(畢竟無能 報恩者)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지면, 만물이 살아진다.
만약,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가 없다.
이러하여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해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며, 신종 코로나를 물리치고 복과 지혜가 가득하여 세상일이 다 풍요로워지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상 행복위해 평상심을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오늘은 좋은 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날입니다. 화사한 봄날을 맞듯 환희의 초파일을 기대했으나 조심스럽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위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차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 스스로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로 귀결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닌 작금의 사태에 스스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곧 다시 맞이할 일상의 행복을 위해 평상심을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희망등불 되길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불기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즉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본래 평등한 존재로 자신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고, 진리의 등불을 삼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나와 어려운 이웃의 등불을 밝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지혜 자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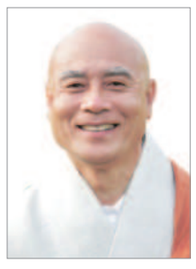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아름다운 초목과 정겨운 새소리, 살랑거리는 오색연등이 어울려 연주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는 까닭은 어두운 세상을 지혜와 자비로 아름답게 수놓으려는 모든 불자들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팬데믹 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광명의 등이 되고 자비실천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기쁨도 함께 나눠 모두가 행복한 환희와 축복으로 질병 일체가 소멸되고 지구촌 곳곳의 나라마다 사람마다 부처님 무량가피가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은 늘 그자리에 현신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설국 무명



본래 나지 않는 법을 설하고자 부처님 나투셨고, 드러낼 수 없는 법을 드러내고자 장광설을 쏟아내셨도다.
진실 된 모습은 텅 비어 보이지 않지만 묘용(妙用)과 자재(自在)가 서로를 의지한다네. 그대들의 부름에 응답하거나 말거나 진실의 모습은 늘 그 자리에 현신해 있다네.
무명(無明) 속에 걸림 없는 지혜보배를 찾은 이는 무명(無名) 속에 거닐며 진속(眞俗)을 상관 않네.
1,2,3,4,5,6,7
일곱 걸음이 한 걸음도 떼지 않은 자리임을 안다면 그대들을 나고 죽음 없는 무생(無生)의 눈뜬이라 부르리.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내야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오늘 진리의 꽃비가 사바의 중생들에게 두루 하는 신록지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부처님을 맞이하여 중생 모두가 등불이 되어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천지 부처님의 가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연등만으로 무명을 다 걷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불을 밝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공경하고 존경하여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비로소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비극의 역사

12만 6천명의 귀무덤 원혼 천도 위령재

교토 민가 주변에 초라하게 모셔져 있는 애혼 영가 귀무덤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1592~1598년)

불교전통의식 천도재 의식 스님 20명, 육법 공양 15명, 의식 증명단 108명
일본 거류민단 300명, 뜻을 같이하는 일본인 다수 참가의사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1592~1598년) 당시 희생된 조선인 12만 6천여 명분의 귀와 코무덤인 귀무덤은 일본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차야마치(京都市 東山区 茶屋町)에 있다.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모시는 도요쿠니신사(豊國神社)와 가깝다.

귀무덤에는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의 무장들이 전리품으로 확인받기 위해 보낸 코가 묻혀 있다. 원래 이름은 '코무덤(하나즈카)'이었으나 에도시대 초기 유학자 하야시라잔(林羅山)이 자신의 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보(豊臣秀吉譜)'에서 야만스럽다는 이유로 '귀무덤(미미즈카)'이라고 적은 이후 '귀무덤'으로 널리 알려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코가 묻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듯하다. 1915년에 정비가 실시되었으며, 1968년에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무덤 일부는 경상남도 사천시로 옮겨졌으나 아직 완전한 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관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현재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는 한국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주 최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주 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 붓다자비 평화봉사단
행사일시 2021년 11월, 2022년 4월
접 수 처 02-733-5665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역봉사단원을 모십니다

자격 종단불문 출가자로 봉사와 포교에 활동하시는 지역불교 지도자
- 국내 외 활동 재가자 남·녀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창단 된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이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지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이들의 인간방생의 도반이 되어 주시길 청합니다.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재가자 남성분, 여성분과
대한민국 나라사랑 연합협의회가 주최하는

나라를 위한 호국 호법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야단법석

한반도에서 울리는 국민의 꾸짖는 함성

대한민국 나라사랑 호국 호법단
결성 준비위원회

지구촌에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분단된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마음과 행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념과 지역과 권력을 위해 국민의 소리와 신음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정권 탈취에 목숨을 건 모습과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정권 다툼이 아니라 8색 당파 싸움을 보고 있는 현실과 투쟁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픈 현실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깨달음의 목탁 소리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게 된 지금 구국의 일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각 지역 국민들이 모여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뭉쳐진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 야단법석 대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행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정진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호국호법단 도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 010-3618-6061



그림 · 박구원

도시중심 · 첨단매체 활용…미래 불교 키워드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찾아가는 불교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세속화와 함께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탈종교화하고 있다. 각종 종교인구 조사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종교가 있는 사람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됐다. 2005년 통계에서 1100만 불자라는 조사 결과는 이미 과거의 영광이 되었고, 2025년에는 500만 불자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불교계를 억누르고 있다. 도대체 한국불교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침몰하는 배와 같은 한국불교의 운명을 혁신적인 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까?

비록 불교가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지만, 불교는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물론 불교가 보살 사상과 정토 신앙을 통해 구원의 종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는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 우리 삶의 주변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번뇌와 집착을 끊어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불교에 입문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을 익혀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다양한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고 고요하며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이러한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즉,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의지적 노력과 지속적인 수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 불자들은 기쁨과 쾌락에 집착하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계율을 지켜야 한다. 재가 불자는 불살생 · 불투도 · 불사음 · 불망어 · 불음주의 5계를 지켜야 하고, 출가 비구와 비구니는 적어도 200~300여 개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

비록, 이러한 계율이 계단을 오를 때 의지할 수 있는 난간과 같은 것으로서 불자들이 잘 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불교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금지규정 속에 묻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자의 삶이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기 쉽고, 움직이기보다는 앉아있기 쉬우며, 활기차기보다는 침체되기 쉽고, 함께하기보다는 혼자이기 쉽다.

1100만 불자, 과거 영광… 500만 전락 위기

원하는 정보 언제든 손쉽게얻는 초연결사회

도심서 능동적 · 적극적 불교 구현해 나가야

그렇다면 불교가 혁신적인 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면해야 할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어떠한가? 한국사회는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과학과 경제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미 4차 산업 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자기 생각을 사회구성원들 전체와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이들은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 결과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즐기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원하는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접근하기 어렵고,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며, 힘든 수행을 해야 하고, 소극적이며, 앉아있고, 침체되어 있으며, 혼자인 종교로 비치기 쉽다.

한국불교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오늘날 불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비록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대의 불교는 전통적이고 고답적인 모습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복잡다단한 사회로 귀환하고 있으며, 명상, 힐링(Healing), 생명,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현대인의 삶 속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새롭게 도약하기에는 부족하다. 한국불교가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활기차고, 함께하는 태도로 전환해서 능동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다가가야만 한다.

혹자는 이야기한다. "불교는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는 요란한 종교가 아니다", "산사에서 수행하지 않고 도시에서 무슨 야단법석이냐", "수행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스님들이 바르게 생활하기만 하면 신도는 자연히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늘어놓고 한국불교가 직면한 냉엄한 현실은 애써 외면한다. 출가 지원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방의 빈 사찰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사찰 신도들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고, 사찰의 청소년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조금이라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불교가 더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국불교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변화' 라는 신호탄은 어떻게 쏘아 올려야 할까? 한국불교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법하고 포교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도시에서 한국불교가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도시에서 한국불교가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을 때, 한국불교의 혁신적인 전환과 새로운 도약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명산대찰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스스로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현대사회의 중심인 도시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한국사회는 도시화와 함께 인구 대부분이 도시로 이동했지만, 한국불교는 여전히 물려받은 유산과 함께 명산대찰에 안주해왔다. 따라서 불교가 도시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이에 타종교가 도시에 맞는 시스템과 장엄한 건축을 통해 도시를 장악해버린 것이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도시는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완전히 정복해야 할 영토와 같은 곳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초연결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불교에 만족하지 않는다. 4차 산업 시대에 적응하여 사회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으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앉은 불교, 가만히 있는 불교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도시의 불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첨단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불교의 장점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불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법에 나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불교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불교는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불교는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 미래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라는 신념을 가지고 시대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불교를 상상해 본다.



황순일 / 동국대 불교대학장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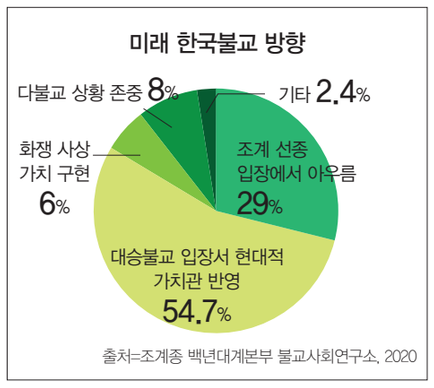
시대 선도한 불교…스님 역량 강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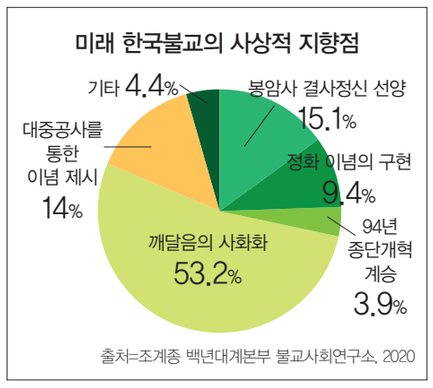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왜 찾아가는 불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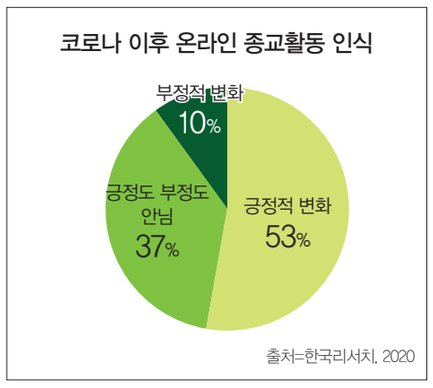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에서 열린 지역 어르신 세족식. 지역성 · 공공성은 '찾아가는 불교'의 중요한 요소다.







코로나19로 탈종교화 가속
고령자 다수, 불교 더 취약
승가내부서도 변화 목소리
'사회적 실천' 지향점 꼽아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불교 인구가 700만 명으로 집계된 것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줬다. 더불어 종교계와 학계에 적지 않는 파장을 준 것은 무종교 인구 2750만 명(56.1%), 종교 인구 2155만 명(43.9%)이라는 조사 결과였다. 이는 1995년부터 처음 실시된 조사 이래 무종교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선 결과로, 사실상 한국 사회가 '탈종교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 인구 감소는 고령화된 신도구조를 가진 불교에게 더 취약하다. 여기에 정상가족의 붕괴 등 가족 · 사회 구조의 변화는 '가족 종교 전승'도 옅게 만들고 있다. 명상 · 힐링 붐 등 제도 종교권 밖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현상은 불교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젊은 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만, 적극적인 신도로 편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명상 · 힐링 붐을 마냥 호재라고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종교사회 진입, 정상가족 신화 붕괴, 명상 · 힐링 붐 등 일련의 사회 현상들은 불교계에 보내는 위기의 시그널이다. 여기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대면을 기반으로 한 종교 의례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했고, 영향력에도 타격을 입혔다.

실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20년 8월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72%는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은 없는 느낌"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향후 종교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55%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종교 위상이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기존처럼 앉아 있기만 해서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불교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도 일련의 사회 현상이 보여주는 위기감을 체감해서다. 실제, 변화의 필요성은 승가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해 4월 '종단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국 25개 교구본사 스님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조계종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첫 종단 미래 주제의 여론조사였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계종 스님들은 승가 고령화와 출가자 및 스님 수 급감, 종교지형 변화로 인한 신도 수 감소 등 종단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립 및 종단 미래를 위한 변화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미래 한국불교의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서 스님들 중 54.7%가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살행을 비롯한 현대적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29%만이 '조계 선종의 입장에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아우른다'는 현행 방침을 선택했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지향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3.2%)이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혹은 불교의 사회참여 강화)'를 꼽은 데 반해, 기존 조계종의 사상적 뿌리인 '봉암사 결사정신의 선양'과 '94년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 '정화이념의 구현'은 각각 15.1% · 3.9% · 9.4%에 그쳤다. 이는 미래 사찰의 역할 항목에서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 8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과도 맥을 함께한다.

이와 관련 설문조사를 담당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미래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해 대승불교 · 보살행 · 사회참여 등의 키워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선불교의 전통을 강조하고 다양한 수행방법을 폭넓게 수행해 온 '통불교'의 전통과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흐름이 승가 내부에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승불교와 보살행, 사회참여를 미래 한국불교의 핵심 가치로 삼고자 한다면, 종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찾아가는 불교'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제기된 대안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세미나에서 처음 나온 개념들이기도 하다.

당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가 타성에 젖어 산중불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월선원이 보여준 일련의 결사가 "기존의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가 아닌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도 "미래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기실, '찾아가는 불교'는 불교가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선언적 운동이다. 이는 근대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과제이기도 하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조선불교의 쇠퇴 원인을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산중 사찰에 대해 비판했다. 사찰이 산 속에 있어서 승려 교육부터 포교, 전법 등 여러모로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조선불교는 불교의 구세적 · 포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도시로 나와야 한다"는 게 만해 스님의 주장이다.

상월선원 결사를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결사체'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 일선 사찰의 염불봉사, 불교 복지 사업 등은 넓은 의미의 '찾아가는 불교'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찾아가는 불교'는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고통, 괴로움 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포교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사찰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교적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에서의 '찾아가는 불교'는 이제는 온라인 · 뉴미디어로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된 만큼 불교계 법회, 수행, 기도, 교육 등이 이를 요구받고 있어서다. 특히 MZ세대 포교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한국리서치가 2020년 6월 발표한 '코로나19와 비대면 디지털사회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8%만 온라인 종교활동에 참여했지만,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6%에 달했다. 또한 종교 신행생활의 온라인화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 변화'라고 답했으며, 37%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은 종교 신행활동에 온라인화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해인사, 월정사, 조계사, 봉은사, 한마음선원 등 교구본사와 도심 유명 사찰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포교가 이뤄지지만,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색 있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리 강의, 법문 등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수준이고,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활용도도 낮다.

이 같은 뉴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님들부터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적응과 해당 분야의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들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진입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을 넘어야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뉴미디어를 통한 '찾아가는 불교'의 첫 걸음이 된다.

온라인 종교활동 호감 상승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필요
스님들 관련 기술 습득해야
"불교는 '얼리 어답터' 종교"

이를 위해서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2020년부터 유튜브 제작에 대한 승려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연수 교육에서도 지난 3월에 해당 강좌가 진행된 바 있다.

지정학 조계종 교육원 교육차장은 "유튜브 영상 제작은 향후 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 연수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서 "해당 강좌에 대한 인기가 좋아 하반기에도 1회 더 진행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인 스님들의 유튜브 제작을 함께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시대에 맞는 전법과 포교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다양한 문물을 접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옛날 구법승들은 서역까지 가서 세상을 선도하는 학문을 배워왔다. 이를 통해 불교는 시대를 선도했다. 요즘 말로 불교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종교였던 것"이라면서 "안주해서는 절대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일반인들이 하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야 전법 · 포교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스님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보살선원장 천 진 포교국장 선 행
유나 항 조 총무국장 종 현 호법국장 천 주
강주 인 해 기획국장 지 범 박물관장 송 천
노전 광 우 교무국장 인 경 원주 범 용
율원장 덕 문 재무국장 현 담 농감 서 일
염불원장 영 산 사회국장 성 오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 불.법.승 ◈

(宗)대한불교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성. 법공. 용인. 보각. 해곤. 평산. 도오. 지일. 해봉**
외 각원장(15인)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송. 지원. 청광. 정륵**
(전국 16개 교구)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사)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탄 영**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전 법현** 고시원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유 한** 경기종무원장 **혜 암**
충청종무원장 **진 산** 전라종무원장 **덕 운** 군산종무원장 **덕 일**
경북종무원장 **탄 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 성**

총무부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호법부장 **진 각** 포교부장 **진 산**
재무부장 **지 안** 연화부장 **정 해** 문화부장 **공 덕** 교무부장 **진 문**
포교부장 **태 천**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1-870-0021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전화 055)232-7819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옵니다.

함안불교연합회신도회

신도회장 **조용찬**
부 회 장 **박성하**

총무 **신현숙**
차장 **김상곤**

신도회일동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번지
전화 055)584-0033

대한불교조계종

사천 신 해 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법인관리위원장
회주 **무 공**

사부대중일동

신해사 말사

진주금천암 주지 도 연
남해반야용선 주지 동 운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2821-46번길
전화 055)855-1772 팩스 055)855-0247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총무이사 **인각** 교무이사 **만법** 재무이사 **대전**
교육이사 **도각** 포교이사 **법공**
총무국장 **현무** 교무국장 **선행** 재무국장 **자은**
교육국장 **현덕** 포교국장 **자경**
경남서부교구장 **만법** 중부교구장 **도혜** 경남동부교구장 **동준**
부산교구장대행 **인각** 직할교구

이 사 **화산 경월 법광 연지 정혜 법성 법혜**
감 사 **대성 혜원**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옵니다.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벽송스님**

종도일동
신도회장 김희숙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
전화 055)855-0191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효산현각**
총무원장 **지호혜관**

사정원장 **성군**, 사회부장 **향광**, 재무부장 **선혜**,
교무부장 **보명**, 사정부장 **자공**, 비구니원장 **덕심**, 울산종무원장 **향광**.
지장사 **광영**, 금정사 **덕심**, 법성사 **인덕**, 천광정사 **취운**, 당포사 **종철**,
운고자 **운고**, 동방사 **법운**, 용연사 **취암**, 보문선원 **보문**, 천운사 **현장**,
동방원 **법운**, 동방원 **효혜**, 불심정사 **혜관**, 쌍암사 **덕산**, 미륵사 **혜각**,
미륵정사 **혜월**, 미정사 **선혜**, 무심사 **보명**, 보우선원 **성군**, 칠성암 **무설**,
관음사 **월명**, 용덕미륵정사 **영주**, 계령미록정사 **계령**, 보광정사 **자공**,
약불암 **무여**, 은진정시 **고경**. 쌍암사포교원 **향광**, 무심사포교원 **임야**,
백련암 **문정**, 화성암 **성화**, 금강사 **금강**.

■ 총본산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384-3 서림사
■ 총무원 : 전화 052-275-5539 HP. 010-4590-5539(울산불심정사)
■ 사정원 : HP. 010-5061-8300
■ 울산종무원 : HP. 010-4546-1100

(사)대한불교무량종

종 정 **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해초**

총무원장 법정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림** 포교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임**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정향** 포교국장 **법산** 사서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11(괴정동) 은암천불정사 전화 :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 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1 -595-6522, 010-8939-6522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 로 원 장 **법두 수암**
총 무 원 장 **법응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찾아가는 '컨택트' 불교

찾아가서 고치고 나누며 '대중 속으로'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자들의 사찰 방문이 급감한 현재, 적극적인 포교 전법과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불교는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이른바 '불교'라는 굴레를 벗고, 대중들 속에서 불교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법행을 하는 것이란 점이다. 코로나 시기를 맞아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딛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베지나랑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 채식문화보급을 통해 불교를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계사 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봉사자들이 어르신과 화이팅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교합창 아카데미에서 찬불가를 배우고 있다.


서울지역단 염불포교팀이 무연고자 염불불사를 하는 모습.

염불봉사

코로나19로 장례식장에 가기조차 두려운 시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염불봉사를 하는 불자들은 보다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불교신자가 아니어도 요청이 오면 한걸음에 달려가 마지막 배웅을 하는 이들은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염불포교팀이다.

이들은 코로나가 심각한 올해에도 매주 주말이면 서울시립 벽제 승화원을 찾아 불교식 장례가 필요한 무연고자 등에게 염불봉사를 하고 있다. 염불포교팀이 최초로 결성된 것은 2014년. 인천경기지역단과 분단되기 전 염불포교팀이 있었지만 분단되며 잠시 활동이 멈췄고, 다시 활동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창설됐다.

코로나 희생자 염불봉사
지역 가정 '집수리' 진행

한달에 한차례 가량 현장포교를 진행하는 다른 팀과 달리 언제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염불포교는 상시로 운영된다. 서울지역단 염불포교팀은 현재 17명 규모로 주중 3~4명이, 주말에는 11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식장 방문이 어렵지만, 시립승화원 등에는 또 다른 요청이 밀려온다.

장희자 염불포교팀장은 "최근에는 상주분들이 요청을 하셔도 장례식장 측에서 봉사자들을 받는 것을 거절한다. 개방된 시립승화원에는 무연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도 있지만 저희마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스크도 두 개씩 겹쳐 쓰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불포교팀은 팀원 절반 이상이 직장인이다. 생업 현장에서 일하다 쉬는 주말, 장례식장에서 봉사를 하지만 이들은 이런 봉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희자 팀장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이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시면서 명함을 요청해서 받아가시고, 나중에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팀원들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5시간씩 주말마다 왕복하고, 식사 등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계속 봉사하는 이유는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게 웃었다.

가정수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중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요소다.

조계사 신도들이 2018년 구성한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200여 신도들이 활발한 사회참여, 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집수리봉사팀의 '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집수리봉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피봉사단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집수리봉사팀은 2018년 이후 종로 관내의 취약가구 20여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단순히 도배나 장판교체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변기나 싱크대, 방충망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모두 바꾼다.

특히 집수리 봉사에는 스님들도 참여한다. 작업복을 입고 승속이 봉사를 하면 그 순간 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이다.

가피봉사단 집수리봉사팀은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연말까지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15일에는 3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집수리봉사팀이 종로구 창신동 김 모 어르신댁의 변기와 방충망을 교체하기도 했다.

방문을 받은 이들은 집이 고쳐지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따뜻한 자비온기를 함께 느끼게 된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가피봉사단 방문을 받은 이 모 할머니는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맙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 주니 자식과도 다름이 없다"며 "조계사에도 틈틈이 나가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주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장은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불자들의 역할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악전법

소리부터 트로트 열풍까지 2019년과 2020년 우리나라는 음악으로 하나가 됐다. 이런 시대 흐름을 맞아 불교계도 음악을 비롯한 문화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015년 설립된 불교계 대표 불교음악 전승기관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봉은국악합주단, 불교합창아카데미, 불음꽃합창단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중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불교합창아카데미다.

매주 수요일 서울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합창교육은 '붓다', '보현행원송'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박범훈 불교음악원장(동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前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인 김성녀 불음합창단 예술감독이 찬불가와 연기지도를 진행한다. 여기에 창작찬불가는 박천지 봉은국악합주단 지휘자와 작곡가들이 직접 지도한다.

불교합창아카데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찬불가 뿐만이 아니다. 국악풍의 곡은 국악계의 스타 박애리, 최수정 선생이 지도하고, 뮤지컬은 뮤지컬협회 이사장인 유희성 서울예술단 단장, 그리고 한국무용은 불교음악원 무용지도위원인 강미숙 선생이 담당한다. 한국무용과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도가 병행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1기 42명, 2기 24명, 3기 16명이 졸업했으며, 4기 30여 명이 등록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불교음악교육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이수생들은 불음꽃합창단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각종 법회에서 찬불가 합창을 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이면 봉은사 일대에서 합창 공연도 선보인다.

이 같은 열정은 5월 1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무문보이스 합창제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3기와 4기 불교합창아카데미 졸업생 및 수강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참여해 다양한 찬불가를 선보였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불교음악 대중화를 통해 문화전법포교의 새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사찰 측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970 · 1980년대 등장한 새로운 찬불가는 우리 불교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불교계 의식과 행사 등에서 보여지는 불교합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합창을 통해서 이를 보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환희를 자아내고 또 다른 불교포교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채식보급

불교 채식문화 확산을 통해 그 밑바탕에 깔린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탐식에 대한 절제를 알리고 있는 식당이 있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이사장 은산)이 운영하는 베지나랑이다.

베지나랑은 말 그대로 사찰 공양간처럼 수행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며 음식을 통해 깨달음에 가까이 가도록 돕는 곳이다.

베지나랑은 2020년 거창 행복한마을 공동체가 설립되면서 시민을 위한 채식당 개념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해인사, 통도사 등 지역사찰을 찾아 새로운 채식단을 선보이고, 지역사회에서 채식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채식문화 전법을 선보이고 있다.

시민 불교음악체험 제공
채식 배달서비스도 선뵈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베지나랑을 즐겨 찾는 김호경 씨(54)는 "사찰 수행 음식을 모든 일반인들이 맛있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채식을 즐기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가 소개해도 반응이 좋아서 채식하는 저에겐 오아시스 같은 만남의 장소이다.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관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베지나랑은 최근 무오신채 채식푸드 배달 서비스 '베지나랑 공양간(물류센터)' 도 추진 중이다. 베지나랑 공양간은 전국 비건 채식자들과 채식을 시작해보려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베지나랑 공양간은 매주 화요일 채이장, 연잎밥, 콩까스, 모링가 두부 등을 집으로 배송하고 있다. '베지나랑 공양간'을 검색하면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곧 문을 열 예정이다.

허재영 베지나랑 공양간 총괄은 "생명을 위한 음식, 깨달음을 위한 음식을 전국 모든 이들에게 공양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 양양군노인복지관 /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sksansa.or.kr

찾아가는 '언택트' 불교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솔직 · 기발 콘텐츠, 불교 문턱 낮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포교는 MZ세대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대면을 기본으로 하던 종교계는 유튜브와 SNS 활용을 빠르게 확대했다. 불교계 적응 속도도 빠르다. 조계종 일부 교구본사와 유명 도심 사찰들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법회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스님들의 유튜브 진출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나 '군계일학(群鷄一鶴)' 은 있는 법,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 '찾아가는 불교' 를 실천하는 사찰들을 찾아봤다.

'인싸' 스님이 되고 싶어요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는 승가대학은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는다. 비구 ·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수행과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의 유튜브 채널 해인사TV는 이 같은 불문율을 내려놓았다. 해인사TV 내 주요 콘텐츠 중 하나가 '해:인싸TV(승가대학 이야기)' 이기 때문이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긴 브이로그(V-log,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는 단번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인사 스님들의 재미있는 일상을 담은 '해인사 브이로그' 도 인기가 많다.

종무원 출연해 소식 전달

학인 솔직 브이로그 눈길

해인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25일이다. 주요한 콘텐츠는 해인사에서 이뤄지는 법회와 기도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님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다.

해인사TV를 담당하고 있는 서현 스님은 "해인사 유튜브 채널은 선원, 승가대학, 후원 등 사찰 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라며 "솔직한 스님들의 모습과 해인사 법회 · 기도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인싸TV는 일종의 대학 방송국"이라고 밝힌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작가로 참여해서 시놉시스도 쓰고, 액션캠으로 촬영하며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서 "스님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포교와 전법을 할 수 있어 교육 효과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해인사 승가대학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를 전부 활용한다. 이를 보고 후원해 주시는 재가불자들도 많다"며 "해인사 페이스북 등 SNS를 보고 출가했다는 학인 스님도 있다. 출가자 증가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행 · 기도 대중과 함께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사찰 내 미디어실과 스튜디오를 별도로 운영하며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까지 대중들이 활용하는 유명 뉴미디어 · SNS 채널들을 개설 · 운영 중이다.

월정사의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 는 주지 정념 스님이 '젊은 층에게 어떻게 하면 불교와 월정사를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나온 산물로, 지난 2019년 12월 13일 개설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법회, 기도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방향 수정은 있었지만, '몸은 멀리 있어도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자' 는 월정사 유튜브 채널의 모토는 유지했다.

이 모토를 그대로 담은 콘텐츠가 '불꽃 속에 피는 연꽃- 월정사 열린선원' 이다. 매일 아침 5시, 저녁 8시 두 차례 1시간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튜브를 통해 하 · 동안거 참가자를 받아 수행 정진하기도 했다.

월정사 미디어실장 지찬 스님은 "사찰 소임을 사는 스님들의 '수행에 동참하고 싶다' 는 요구에 만들어진 것이 유튜브를 통한 열린선원"이라며 "매일 일정 시간 함께 수행 정진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월정사 유튜브는 '부처님오신날 168시간 봉찬기도' , '168시간 라이브 새해맞이 석가모니 정근' 등 꾸준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강점이다.

이병섭 월정사 기획실장은 "유튜브 채널이지만, 방송의 필요성이 있어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튜디오를 만들었다"면서 "향후에는 명상 · 수행 플랫폼을 제작해서 '함께 하는 수행' 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정사 알리기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다시 시작되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반환운동에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철 스님은 "유튜브 채널은 월정사 홍보 목적도 있다. 실록과 의궤 환지본처 운동은 월정사의 주요 사업인 만큼 관련 콘텐츠들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톡톡 튀는 젊은 감성에 미소

한국불교 1번지 종로 조계사(주지 지현)는 어느 사찰 유튜브 채널보다도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톡톡 튀고, 아기자기하며, 귀엽다.

조계사 유튜브 채널은 2010년 12월 15일 개설됐으나, 홈페이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스트리밍 서버로 이용됐다. 이후 2016년 간단한 카드뉴스 등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했고, 2019년 조계사 유튜브 채널의 시그니처 콘텐츠인 '조계사 불짬뽕' 이 나왔다.

'조계사 불짬뽕' 은 스님, 종무원, 신도들이 출연해 소통하는 토크쇼 형식의 콘텐츠다. 주제도 불교에 국한돼 있지 않다. 딩크족 · 워라벨 · 라떼족 등 사회적 이슈의 키워드를 다루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 달 전부터 잠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계사 유튜브는 사찰 홍보라는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특유의 젊은 불자 감성은 여전하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총총 조계사' 와 각종 재일 기도 동영상 섬네일(Thumbnail)은 단연 압권이다.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한다며 삽입된 귀여운 토끼 캐릭터와 아이들의 부처님 그림은 눈이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종무원들이 직접 진행, 리포팅, 체험을 하며 발로 뛰는 '총총 조계사' 는 마치 지상파 방송 정보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이 재미도 있다.

조계사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이해진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조계사 유튜브는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한다"면서 " '조계사 불짬뽕' 의 서브 개념으로 '배달왔습니다' 를 준비 중인데 '유퀴즈 온 더 블록' 처럼 조계사 유관단체에 찾아가서 구성원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불교대학' 첫 선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는 교육을 통해 엘리트 불자를 양성하는 신도교육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유튜브를 통한 신도교육을 시작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도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불교대학' 이며, 사실상 '유튜브 불교대학' 이라는 첫 선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은 회주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과 독경, 멤버십 강좌로 이뤄져 있다. 특히 우학 스님의 독경은 최대 119만 회의 조회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콘텐츠다.

멤버십도 다른 사찰 유튜브에는 없는 신도 서비스다. 이는 유튜브 멤버십을 활용한 것으로 월 2990원의 구독료를 결제하면, 우학 스님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주교재 〈새로운 불교공부〉와 부교재 〈불교의범〉이 무료로 배송된다. 강의를 모두 마친 신도에게는 수료증이 송부되며, 한국불교대학 동문으로 인정된다.

최설아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종무실장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며 전국으로 수강생들이 늘었다"면서 "코로나19로 신도들에게 가정법당 불사를 제안했는데, 자신의 집에서 수행 ·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이다. 온 · 오프 신행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사찰 법회 일상화

새로운 플랫폼 개발 고민

대행 선사 가르침 '한 눈에'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011년 6월 8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래 꾸준하게 묘공당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대행 선사 법문' , '길을 묻는 이에게' 를 비롯해 선법가, 국내외 지원 활동 소개 등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실천 수행하는 한마음선원 도반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마음꽃이 피었습니다' 와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가장 돋보이는 한마음선원 장엄등과 행렬등을 소개하는 '한마음선원 연등축제' 도 눈길을 끈다.

또한 한마음선원은 관련 채널이 11개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세계에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마음꽃 TV' 는 한마음선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에 담긴 내용을 유튜브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으며, 대행 선사의 게송과 가르침에 곡을 붙인 선법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한마음선법가' 도 운영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 한마음선원청년회, 한마음선원학생회, 한마음공방 등 한마음선원 신도회 및 산하단체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경 선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주경야선 관음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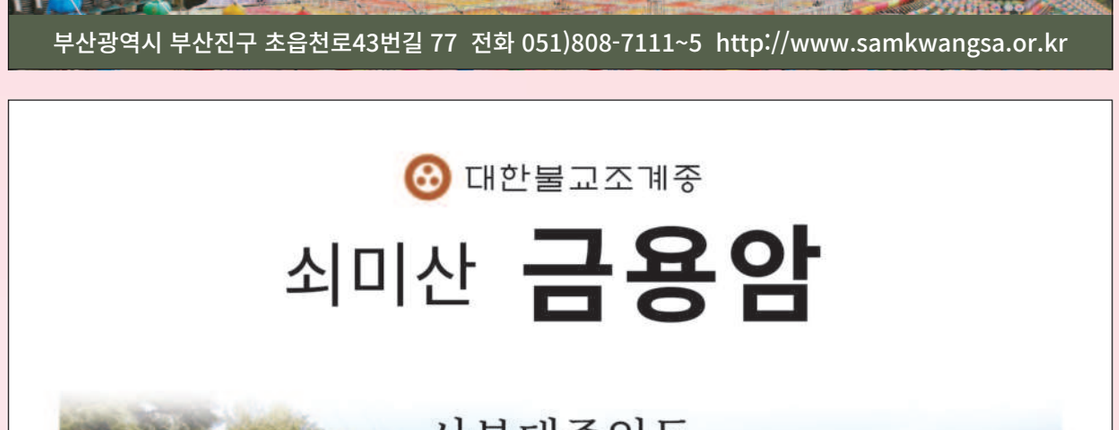
천태종 **삼 광 사**

게으른 자여 성불을 바라는가? -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중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별기도 및 불공 4월 28일~5월 18일
봉축전야점등식 5월 18일 오후 7시
봉축법요식 5월 19일 오전 11시

주 지 **영 제**
교무 **덕 중** 재무 **무 성**
사부대중 일동 합장

정기법회 매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금강경전법회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철야기도 매월 일주일간 봉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43번길 77 전화 051)808-7111~5 http://www.samkwangsa.or.kr

---

부산불교교육대학

40년 전통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에*

새 지평을 열어가는 **명품 교육기관**

2021년 개설학과

- **불교엘리트 1기** (1년 , 목 / 유튜브강좌 병행)
  - 연세대 신규탁 교수의 「화엄경」
  -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의 「금강경」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강좌 병행)
- **불교학과** (1년, 월 / 유튜브강좌 병행)
- **불교문화포교사** (수) – 민간자격등록 2018-000374
- **불교문화전문지도사** (금) – 민간자격등록 2019-000629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2021년 승려 연수교육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교 수 : 문일수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 일 정 : 8/30(월)~9/3일(금) 총 5일간
- 시 간 : 13:30~16:30

문화힐링 강좌

- **합창단** (월, 오전10시) **다도반** (월, 오후2시)
- **수화반** (월) **대금반** (목) **사물놀이반** (금)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용암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전화 : 051)501-6300

재 단 법 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이 사 장 **김경조**
상임이사 **이재동**

이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강석진 허장욱 조성두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이욱태 송삼종 성재곤**
감사 **서재형 고영배**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 지 **무 관**

신도단체 **지장회, 보현회, 불광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3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Tel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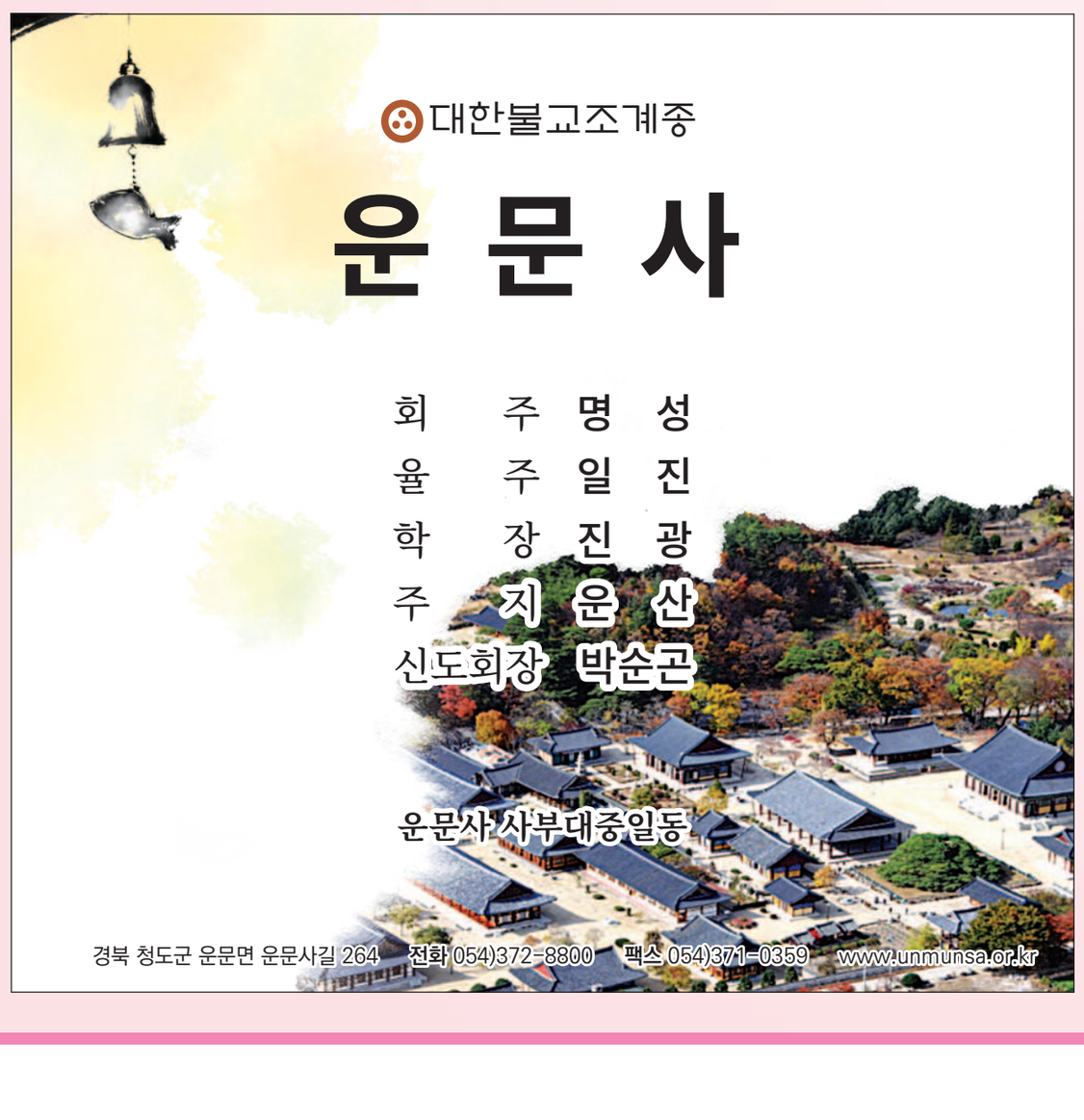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ALGONG CHONGLIM DONGHWAS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회주 임담 의현
주지 능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주 명성
율주 일진
학장 진광
주지 운산
신도회장 박순곤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 륜
회원사찰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Tel:(054)853-4185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찾아가는 불교' 제언 대담

시대 맞는 전법 · 포교행 절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대변화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불교계 안팎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욱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찾아가는 불교를 현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능동적이면서, 대중적인 불교로의 변화에 대해 제언을 들어보았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대담에서는 조계종 前미래세대위원장인 심산 스님과 새로운 불교복지문화를 이끄는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불교테인먼트를 주창한 신영섭 동국대 연극학부 교수, 승가 교육과 포교사회분야 연구를 진행 중인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 주〉



심산 스님 홍법사 주지

찾아오는 불자 기다리면 안돼
지역사회 호흡하며 연계해야



정관 스님 종로노인복지관장

1인 다역 스님들만으론 한계
네트워크 활용, 사각 없애야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계층별 미디어 포교사 배출
스타 스님 · 재가자 발굴도



신영섭 교수 동국대

놀이문화, 참여콘텐츠 통해
'찾아오게 만드는 불교'로

Q 최근 '찾아가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적극적이고 대중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이 '찾아가는 불교'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산 스님: 지금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심 깊은 불자들이 깊은 산속이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저잣거리를 막론하고 사찰을 찾아 왔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불자들이 사찰로 찾아오는 것을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시민,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올 여건이 되지 않으니, 지금까지 해온 불교계 활동이 수동적이 아니었는지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대중들이 사찰을 찾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불교계는 멘붕에 빠진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만 보아도 대중들의 생활패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하고 쇼핑몰과 마트에 물건을 사러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새벽배송, 배달음식 등이 일상화 되었죠.

불교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공동의 신행문화가 축소되고 개인 중심의 신행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체 순례가 중단되는 등 여파에 소규모 관계 중심으로 신도 커뮤니티도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김응철: 사찰과 지역 주민, 주요 포교대상인 청소년 및 청년층과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동안 이들 계층이 사찰을 찾지 않고, 사찰에서도 적극적인 포교전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매일 탁발을 하면서 포교 현장을 찾아 만나고 설법을 했습니다. 사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포교대상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효과적인 포교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신영섭: '찾아가는 불교'의 필요성은 동시대적 당위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제가 전공한 연극학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19로 탈종교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그동안 객체로 머물러 있던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불교'의 실체는 '동적인 불교', '신명나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입니다. '찾아가는 불교'는 불교중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불교 혁신의 창조적인 파괴까지 의미합니다.

Q 불교계 내부적으로 불교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 같은 담론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도, 불교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에는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관 스님: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포교활동에는 많은 부분 미약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부흥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모으고 종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불교는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를 위한 적극적인 액션 플랜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스님들의 숫자가 1만 2000여 명에 머물러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법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심산 스님: 불교 내부 문화정착에 머무른 점이 확산에 장애가 됐다고 봅니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를 위해서는 스님들과 일반인들간의 접점이 늘어나고, 사찰이 가정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불교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불교계 인식은 마치 사찰 바깥의 문화가 사찰 내부로 들어와 대중화, 사회화를 이끈다는 것에 반감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먼저 스님들의 인식이 사회변화에 대해 조금은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사찰과 불교문화에 익숙한 신도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도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김응철: 시민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의 대중화가 미흡했던 것은 대중들이 바라는 각 사회적 이슈에서 불교적 대안 제시가 크게 와 닿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생활화 부분은 마찬가지로 불교 교리가 일상생활과 괴리된 고담준론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 사안 발생 시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이런 부분이 대중들에게 인식될 때 자연스럽게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등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Q 신명나는 동적인 불교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찾아가는 불교'는 무엇일까요?

정관 스님: 각 지역 속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중흥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전법단 활동을 구축하며, 온 · 오프라인을 활용한 불교대중화 활동이 찾아가는 불교를 이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섭: 저는 사고를 바꿔 '찾아가는 불교'는 역설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불교'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불자대중 모두가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예술분야에서는 관객과 함께가 핵심적인 테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은 이성적 사유 대신에 신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감각하고 지각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불교 사부대중은 다른 종교와 달리 모두가 '주체'입니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성은 개인이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동시대적 니즈에 부합합니다.

Q 코로나19 상황은 불교가 더욱 '찾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어지간한 대형 도심 사찰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뉴미디어 포교 · 전법에 열심입니다. 현재 불교계의 뉴미디어 포교 · 전법 활동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요?

정관 스님: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평가합니다. 불교 신도 연령대를 살펴봤을 때, 노보살님들의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분들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각 사찰에서는 젊은 신도를 활용한 노보살들의 스마트폰 1:1 교육 등을 접목하여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온 · 오프라인을 접목하고 강화했으면 합니다.

심산 스님: 지금은 평가를 떠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뉴미디어 포교와 전법에는 무조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양날이 존재하고 특히 종교계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있긴 하지만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직접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죠. 정관 스님 말씀처럼 사찰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의 활용방안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교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는데, 만약 이런 코로나 시대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유튜브를 하셨을까 안하셨을까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영섭: '찾아오게 만드는 불교'로 최종적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전법 · 포교가 필수라고 봅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뉴미디어의 핵심은 이미지와 이미지를 상호공유하며 소통하는 놀이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뉴미디어 전법 · 포교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매개하는 플랫폼 기능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이미지와 놀이성(유희성)을 전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지각, 감각의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스스로 창출하는 문화적 형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새로운 인연 맺기가 가능한 '찾아가는 불교'의 최적의 실천방안일 것입니다.

김응철: 활발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콘텐츠가 대중성이 없고, 사찰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스타성이 있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을 발굴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온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합니다"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주제2본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15층,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향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치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찾아가는 불교' 제언 대담

대중문화·예술 접목 콘텐츠 개발을



전법 포교 현장과 이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언택트 대담을 통해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찾아가는 불교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Q MZ세대를 위한 뉴미디어 포교 · 전법 방안을 제언해 주십시오.

김응철: 이들 세대를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적절한 음악이 부족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층을 다양화하고, 각 계층별로 책임질 수 있는 미디어 포교사들을 배출해서 활동하도록 촉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영섭: MZ세대는 관계성에서 자신이 주체임을 자신의 취향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내며, 온라인 환경 속에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익숙하고,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 결과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세대입니다. 이는 MZ세대를 지칭하는 미닝아웃, 플렉스, 욜로족, 딩크족, 파이어족 등의 신조어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볼만한 유튜브 콘텐츠가 없다는 것은 MZ세대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공간은 스님들 중심의 공간에서 사부대중들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확장된 공간은 MZ세대가 직접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들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MZ세대들은 자신의 취향, 생각들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소통함으로써 불교의 대중적인 친밀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은 세대별 개성과 취향이 뚜렷하게 서로 다른 동시대적 니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통한 대중화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 스님: 사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법문 중계, 교리 강좌 등에 머무른 경우가 많긴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교리 강좌, 염불 독경 등을 집에서 들으면서 불심을 통한 마음수련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MZ세대들은 빠르면서도 임팩트 있는 전달이 중요한 만큼, 불교계 언론매체에서 MZ세대들에게 맞는 유튜브 등을 적극 제작해서 알리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불교 언론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큰스님들의 일대기, 어린이들이 만든 불교 연극, 인기 있는 젊은 불자 가수들을 활용하여 불교 가사를 넣은 트로트 등 재미와 감동, 불심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MZ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네요. 현재 메타버스 등 다양한 가상공간에서의 포교도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듯이 불교계도 현재 변화하는 상황에 맞춘 가상세계에서의 법문, 불교 전파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산 스님: 세대 간 이해가 쉽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MZ세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20대 스님들 아니면 적어도 30대 스님들이 전면에 나서서 청년세대들과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대 간 소통 정말 쉽지 않지만 인간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불교야말로 수많은 종교들 중에 세대를 넘어선 소통이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내부적으로 본다면, 젊은 스님들에게 무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젊은 스님들의 문화가 있는데, 나이든 스님들이 이에 대해 강압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Q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채식과 같은 불교와 접점이 있는 사회 트렌드와 접목한 전법 포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가 불교를 알리는 데 유망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리고 그 활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영섭: 최근 드라마 〈빈센조〉에 등장하는 스님 캐릭터는 생경한 불교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불교가 현재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화적 형상은 불교 대중화를 위한 '찾아가는 불교'에 적합한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동시대적 니즈에 부합하는 전법 · 포교 콘텐츠가 문화적 형상으로 구현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중예술과의 결합을 통한 전법 · 포교 콘텐츠들의 문화적 형상 구현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의 트렌드를 보면 니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예능프로그램은 대본 없이 출연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합니다. 템플스테이와 예능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법 · 포교 콘텐츠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관 스님: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불교를 알리고, 스님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조계종에서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이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포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저변에 불교가 널리 퍼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지역 커뮤니티에 불교가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가장 유망한 활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문화에 불교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한데, 트로트 형식의 찬불가를 통해 불교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산 스님: 간혹 영화나 코미디 등 영상물을 볼 때 불교에 대한 왜곡된 관점으로 표현되어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이러한 것을 공식 통로를 통해 정제되어야 합니다. 불교 소재가 문화 콘텐츠 속에 잘 스며 든다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내부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할 자세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열혈사제'에서는 가톨릭 신부들이 출연합니다. 기존 이미지와 정반대의 캐릭터지만 가톨릭 서울교구에서 드라마 자문과 검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화방송의 경우 유튜브 채널로 드라마 장면을 보며 드라마 캐릭터와 신부들의 생각을 비교하는 토크 콘텐츠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유무형 유산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면 대중들이 불교에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불교를 위한 제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영섭: '찾아가는 불교'는 새로운 인연 맺기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는 불자의 구성이 특정세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있을 때 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불교는 불자의 대부분이 장년, 노년층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불교가 어렵고, 대중친화성이 없다는 선입견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특히 청소년, MZ세대의 새로운 인연 맺기에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MZ세대의 전법 · 포교 활동에 대중친화적인 요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콘텐츠와 대중예술을 결합한 전법 · 포교 콘텐츠로 청소년, MZ세대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불교'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불교의 창조적 혁신, 불교의 인식의 대전환을 뜻합니다. 또한 불교와 대중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전법 · 포교 콘텐츠의 문화적 형상 구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응철: 찾아가는 불교는 스님들이 포교현장을 찾아 나서는 것도 있으나 각 지역, 직능 단체의 불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지원하고 신행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도 정보사회에서 불교는 해로운 쓰레기 정보를 제거하고, 유익하고 보람 있는 정보들이 유통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관 스님: 스님들은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종교에 비하면 너무 열악합니다. 스님 한 사람이 일인 다역을 하다 보니 포교에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본사별로 병원 전법단, 군 전법단, 어르신 전법단, 청소년 전법단들을 활용하여 못 오시는 분들을 직접 발 벗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젊어서 불사비를 많이 낼 때는 스님들이 전화도 자주 하시더니 나이 먹고 힘없다고 법당도 못 오게 한다는 어르신들의 푸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심산 스님: 우리는 세계일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민족, 국가, 종교간 분별을 해 왔지만, 세계는 하나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불교 가르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청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철저하게 지역사회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불자, 시민들에 기대던 불교계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도선언문이 그냥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도, 전법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수적 다소 감소가 됐지만, 결속은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세대 간 소통과 전승이 약화된 것입니다. 불교가 가진 콘텐츠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찰음식, 건축, 명상 등을 확대 재생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야 합니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사)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원로원장 설봉 성인(대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인륜 보현(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갤러리 리유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반야스터디 카페
  - 담마 북까페

주지 **경 우**

사부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공월주	총 무	화평	사 회	우림
회 주	금산도영	기 획	광진	포 교	제환
주 지	월강일원	교 무	석초	호 법	덕림
부주지	시산원혜	재 무	여찬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천탑을 쌓는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에 민주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비의 령산 # 마이산 탑사

회 주 **혜명** 주 지 **진성**

총무국장	정 원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장	이재현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원 주	보연심	탑밴드 음악 봉사단장	천순희	(사) 문화법인 장엄
교무국장	보 문	전주 소년원 어머니회 위원장	김도은	(사)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
홍보국장	추 파	총 무	정해자	
사회국장	대 련	전주교도소 교정 봉사단장	박성균	
신도회장	윤복길	사랑,나눔,행복을 붓다(지원센터)	김경은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대표전화 063)433-0012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증명 태공 월주 대종사

전북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일 원	|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주지
	진 성	|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수석부위원장	원 혜	|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부주지
부위원장	화 평	| 금산사 총무국장
	도 홍	|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지 용	| 보문종
	용 성	| 용화종
	승 오	| 천태종
	서 강	| 총지종
집행위원장	광 진	| 금산사 기획국장
	회 일	| 참좋은우리절주지
	이근재	| 조계종17교구 금산사신도회장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5 TEL 063)224-4441 FAX 063)224-4460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 쌍 봉 사

주지 **보 경**

섬김봉사단
사부대중일동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Tel 063)432-0880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 전	종무원장	진 성
수석부의장	청 명	부 원 장	도 홍
부 의 장	혜 일	총무국장	행 담
종회의원	법륜, 정 수	교무국장	연 수
	송월, 혜 담	규정국장	대 공
	법윤, 혜 신	포교국장	명 각
	혜경, 원 만	재무국장	현 진
	정 수, 보 경	문화국장	법 진
	법화심	사회국장	지 오
		교임국장	명 현
		주재기자	문 선 희

사부대중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혜 정	총 무	정 수	사무국장	법 진
부회장	혜 안(보유자)	교 무	법 전		
		재 무	지 오		

사부대중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쉼 없이 재가자 공부 이끈 생활불교 30년

마산반야불교학당 경전 강의 현장

일반 재가자 위한 심도 깊은 강의
지안 스님 재가자 교화 원력 43년
마산 및 경남 재가 지성들의 전당
"생활속 불교실천 이끄는 것 보람"


지안 스님의 경전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법화경〉을 강의하는 지안 스님.


1991년 마산 정법사 안심요에서 시작된 마산 반야불교학당은 현재 매주 화요일에 〈법화경〉과 〈화엄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마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무수제불자 문세존분별(無數諸佛子 聞世尊分別) 설득법리자 환희충변신(說得法利者 歡喜充徧身)…세존이 법을 설명하는 것을 들은 사람의 온몸에 기쁨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지안 스님의 강의가 시작되자 불자들은 스님의 말씀을 공책에 빼곡하게 받아 적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열정이 강의실을 채웠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만이 오롯이 지안 스님을 향했다. 오직 정법을 향한 열정으로 30년 동안 운영된 마산 반야불교학당의 수업 현장 모습이다.

5월 3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마산 반야불교학당을 방문했다. 학당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과 의자가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고 뒤편 책장에는 〈대승기신론 강해〉, 〈백일법문〉,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경전들이 빼곡히 쌓여있었다.

"저희는 승가대학 운영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춘 고문은 반야불교학당의 수업 방향을 설명했다. 책장에는 승가대학에서 배우는 불교경전뿐 아니라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불조삼경〉, 원효 스님이 〈열반경〉을 집약하고 핵심요지를 설명한 〈열반경 종요〉 등 다양한 교재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실 승가대학 학사 커리큘럼보다 과목은 더 많았습니다. 〈육조단경〉, 〈임제록〉, 노자 〈도덕경〉까지 공부했습니다. 과목이 많습니다. 한 곳에서 여러 과목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공부모임은 반야불교학당이 대표적일 겁니다. 현재는 〈법화경〉을 주간에 〈화엄경〉은 오후에 수업하고 있습니다. 〈화엄경〉과 〈법화경〉은 고급반에 속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왔기에 가능한 것이며 앞으로도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마산 반야불교학당은 현재 매주 화요일에 〈법화경〉과 〈화엄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반야불교학당은 1991년 마산 정법사 안심요에서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경전 강의를 진행했다. 지안 스님이 1988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로 오신 후 일반 법문 외 불교경전을 심도 있게 전할 방법을 고심했고, 1991년 7월 17일 〈대승기신론〉을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당시는 법회에서 설하는 법문 외 재가자를 위한 깊이 있는 경전 강의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어려운 한자 원문을 보며 깊이 있는 해석을 경험하게 된 불자들은 하나둘 입소문으로 늘어났고 일반 불자들 뿐 아니라 당시 교사와 교수 등 지식인들의 전당이 되었다.

이후 〈금강경오가해〉, 〈능엄경〉, 〈원각경〉 등 심도 깊은 강의를 이어 가던 중 1997년 지안 스님이 정법사를 떠나 통도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반야불교학당은 강의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게 됐다.

불자들은 강의실을 따로 마련해서라도 강의를 이어가길 바랐고 자발적인 십시일반 동참금 모금을 진행했다. 그리고 불자들은 마침내 통도사를 찾아 지안 스님께 강의를 요청했으며 현재 수업중인 삼원빌딩 5층(약 70평)을 계약해 3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김형춘 고문은 당시를 회상하며 "십시일반 모금에도 금액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안 큰스님께서 성금을 보태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또 통도사에서 이곳에 오시려면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셔야 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에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일체 강의료도 받지 않으시고 빠짐없이 강의를 해주시는 스님의 원력은 저희 대중을 향한 자비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지안 스님의 재가자 교화 원력은 43년 전인 1978년부터 시작됐다.

스님 외에는 심도 깊은 경전 공부를 접할 수 없었던 당시, 부산 남부민동에 위치했던 대법사에서 최초로 재가자를 상대로 경전 강의를 진행했던 것이다. 무비 스님의 제안으로 함께 시작하면서 사집과 이교 가운데 과목을 선정해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나눠 진행했다.

지안 스님은 오랫동안 절에 다녔지만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보살들을 만났을 때 현재 불교의 과제가 무엇인지 절감했고 불교의 지성화와 생활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20년 가까이 절에 다니신 보살님이 '자신은 불교에 대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통도사서 지내며 승가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마침 김형춘 교수님을 중심으로 경전모임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절에 교사불자회, 공무원불자회도 조직되고 경전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안 스님은 경전 강의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불자들의 '변화' 라고 했다. 스님은 30년 동안 함께해준 불자님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불자답게 겸손하고 보살도를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불자들은 그런 스님의 원력 앞에서 게을러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조명연 불자(진혜월 · 72)는 "스님께서는 시작 당시부터 강의 시간을 빼 먹은 적이 없으셨다. 저는 정작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 주시고 송구하게도 법사비도 드리지 못했다"며 "우리들의 빛이고 스승이시다.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손숙 불자(혜공화 · 71)는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한없이 부족하다"며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스님의 원력을 따라 잊지 않고 학당에 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고 말했다.

한정희 불자(원광화 · 71)는 "30년부터 꾸준히 동참하고 공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스님과의 공부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도반들을 만났다. 이 큰 보물들을 얻게 해주신 큰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안 스님의 재가자를 위한 경전 강의는 현재 마산, 서울, 통도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산 반야불교학당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오후 8시 창원시 합포구 오동동 삼원빌딩 5층에서 열린다. 지안 스님의 또 다른 재가자 공부모임인 반야암 불교경전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반야암 대웅전에서, 서울 패엽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두산위브 836호에서 각각 진행된다. 재가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선사템플스테이
참가문의 : 031-527-9969, 010-5262-9969
홈페이지 : www.bongsunsatemplestay.com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조실 월운 해룡
회주 밀운 부림 주지 서성 초격
부주지 선우 문화원장 오봉 종책실장 덕암
총무국장 보관 기획국장 도일 교무국장 법등
재무국장 성의 사회국장 지공 호법국장 혜복
복지국장 혜공 포교국장 보타 연수국장 혜아
교구신도회장 벽송 김남명 봉선사신도회장 이도피안
사부대중 일동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 (부평리) 사무실 : 031-527-1951~2, 529-1950
종무실 : 031-527-5974 팩스 : 031-527-1958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부설운영기관
연꽃유치원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장자어린이집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구리시 실버인력뱅크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

수행연금 조성을 위한 '승보공양에 동참합니다'
공양중에 으뜸이라는 '승보공양'은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으로 부처님 재세시부터 전해져 온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자동이체 : 우리1006-001-534062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승려복지회
동참문의 : 031-527-1956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지 **진 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사부대중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부산광역시금정구두구로33번길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행복드림센터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공부하다 죽어라”…‘장좌불와’ ‘일종식’ 평생 실천



혜암평전
박원자 지음/벽산원각 감수
조계종출판사 펴냄/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혜암 선사께서는 시간만 나면 호미를 들고 밭에서 직접 울력하는 등 후학들에게 몸소 모범을 보였다.

“공부하다 죽어라.”

제자들은 혜암 선사가 세상에 남긴 이 금과옥조와도 같은 말을 경남 합천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 옆 대형 석조 죽비에 새겨 놓았다. 길다란 돌에 새겨진 이 촌철살인 같은 말씀은 현재까지도 길이길이 후학들에게 수행의 지표로 전해진다.

그래서 ‘혜암’이란 두 글자는 기억 못하더라도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은 불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법호보다 그 말씀이 더 유명하다면 혜암 스님이 생전에 얼마나 수행을 강조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자들은 혜암 선사가 남긴 이 감로 법문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오늘도 정진한다. 공부하다 죽는 일이 가장 수지맞는 일이라며 죽는 날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았던 가야산 정진불, 그가 바로 혜암 스님(1920~2001)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인사 해인총림 제6대 방장으로 ‘혜암’이라는 법호보다 ‘가야산 정진불’ ‘두타수행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평생을 장좌불와(長坐不臥)하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후학들과 함께 용맹정진했던 스님의 모습이 대중들의 기억에 무섭도록 깊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산중 방장으로 있던 70대 중반일 때도 안거 중 7일 철야 용맹정진에 반드시 참여해 단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정진에 임한 철저한 수행자, 사람이 갖는 최고의 능력이 곧 깨달음임을 선언하며, 본래의 마음을 깨치라고 항상 부르짖던 수행자인 혜암 스님. 평생 시종일관 우리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길을 설한 혜암대종사 탄신 101주년과 입적 20주기를 맞아 한국불교의 지남이 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혜암문도회가 중심이 돼 〈혜암 평전〉을 출간했다. 박원자 불교 전문작가가 쓴 이 책에는 20세기 후반 한국 불교 정신세계를 이끌던 혜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비롯해, 10대 때 일본 유학 도중 불교에 첫발을 딛고 출가한 이후 성철 스님 등과 함께 수행하는 과정이 오롯이 담겼다. 제자들에게 ‘공부하다 죽어라’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은 출가한 날부터 50년간 하루 한 끼 식사만 하는 ‘일종식’과 눕지 않고 좌선하는 ‘장좌불와’ ‘두타고행’ 등을 실천하며 수행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설파한다.

〈혜암 평전〉의 또 다른 재미는 혜암 스님 일상을 기억하는 이들의 입을 통해 대쪽처럼 한결 같은 수행자이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게 만물을 대한 스님의 맑은 일상을 눈앞에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위를 정화하고, 시간 나면 호미 들고 밭을 일구고, 일체중생을 꽃이라 하며 항상 미소 짓고 계신 청정수행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책을 들여다보면 사진으로 남은 스님의 생전 모습과 당시 사찰 근황도 생생히 볼 수 있다. 여기에 변화가 있는 곳은 현재의 사진을 함께 실어 근현대 한국불교 역사에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탄신 101주년과 입적20주기 맞아 출간
“공부하다 죽는일이 가장 수지 맞는일”

책을 집필한 박원자 작가는 “여든둘의 연세로 입적하기 한해 전까지 재가자들에게 법문하고 원당암 선원에 함께 앉아 정진하셨다고 한다”며 “몸이 쇠약해져 선방에 앉을 수 없을 때는 정진이 끝나는 새벽 3시에 나와 선방 밖을 한 번 둘러보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쓸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한사람이라도 더 깨우쳐 주려했던 허공보다 드넓은 사랑 앞에 삼배를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큰 스님의 그 자비로움으로 인해 불교 입문 40여 년 만에 비로소 ‘이뭣고’ 화두를 가슴에 품게 되었으며, 그 천금같은 가치를 알게 해주신 혜암 선사와의 인연에 깊은 감사를 올린다”고 법열감을 피력했다.

혜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며 해인사 선원을 비롯해 남해 용문사, 각화사 동암, 하동 칠불암, 실상사 백장암 등에서 혜암 스님을 모시고 정진한 해인총림방장 벽산원각 스님은 “혜암대종사의 1백년은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수행자로서 치열한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후학들에게 남기셨다”며 “시대적 아픔 극복과 개인적 번뇌 소멸 그리고 사회구제를 위해 선종적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회고했다.

〈혜암평전〉 기자 간담회서 만난 혜암 스님 제자 대오 스님(前 고양 흥국사 주지)도 “아침예불 후에는 바로 밭으로 호미들고 나가 일해야지 방에서 쉬면 불호령이 떨어졌으며, 스승께서도 시간만 나면 밭에서 울력하시는 등 몸소 모범을 보이셨다”며 “수행자는 무엇을 하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고 기억을 되새겼다.

이렇듯 스승으로서 수행자로서 혜암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중들의 가슴을 적시고 울렸다. “용맹정진하다가 죽는 놈 봤어? 그러다가 죽는다면 그보다 수지 맞는 장사는 없어. 정진하다가 죽을 수만 있거든 죽어버려. 내가 화장해 줄테니까” “내가 여기 원당암서 20년 동안 한 말이 이것입니다. 쉼 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쉬세요, 한 생각 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져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등등.

입버릇처럼 ‘늘 깨어 있어라’ ‘공부만이 살길이다’는 말을 만나는 이들마다 되뇌이며 수행의 중요성을 평생 강조한 혜암 스님. 스님은 1947년 문경 봉암사서 성철 자운 우봉 보문 도우 법전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당시 속가 나이 28세로 출가한지 1년도 안 된 학인 신분이었다. 이후 태백산 동암, 오대산 서대와 동대, 설악산 오세암 등 전국 주요 암자와 사찰에서 용맹 정진했다. 이후 해인사 방장 시절인 1981년에는 해인사 원당암에 재가자 선원인 달마선원을 개설하고, 매 안거때마다 1주일 철야 용맹정진을 지도하며 대중 수행 문화를 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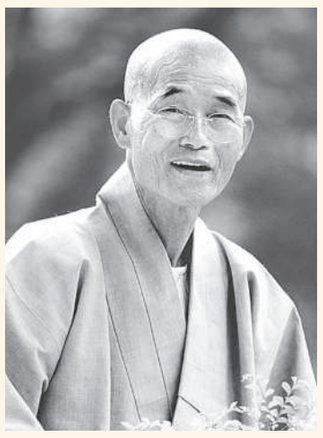
1947년 성철스님등과 봉암사결사 참여
1981년 해인사 원당암에 달마선원 개설

이렇듯 혜암 선사는 수행자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면 바로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일이요 도인의 삶이라고 했다. 이러한 당부가 그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면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따라야 할 삶의 수칙이 아닐까. 매일 아침 눈 뜨면 어제의 나는 죽은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오늘 밤 눈감을 때까지 목숨 걸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한다. ‘목숨을 내놓고 정진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등 혜암 선사의 서슬 퍼런 일갈은 문득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상서 매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혜암 선사가 전하는 용맹정진의 가르침이 시공간을 넘어 생생히 이어지도록 〈혜암 평전〉은 씨줄과 날줄로 튼실히 엮었다. 이 책을 읽은 후라면 공부하다 죽을 수 있는게 불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해준다.

한편 합천 해인사는 5월 3일 대적광전서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 혜암당 성관 대종사의 생전 발자취와 가르침이 오롯이 담긴 〈혜암 평전〉 봉정식과 혜암 대종사 탄신 10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혜암당 성관대종사 행장





△1920년 음력 3월 22일=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720번지서 출생

△1933년(14세)=장성읍 성산 보통학교 졸업

△1936년(17세)=일본 유학중 출가 결심 귀국

△1946년(27세)=합천 해인사로 입산 출가.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하고 ‘성관’이라는 법명 받음. 출가한 날로부터 평생토록 ‘일일일식(一日一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 두타고행(頭陀苦行)으로 용맹정진.

△1947년(28세)=문경 봉암사서 성철 자운 우봉 보문 도우 법전 스님 등 20여 납자와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결사에 참여.

△1948년(29세)=해인사서 상월 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하고, 한암 스님 회상서 안거.

△1949년(30세)=범어사서 동산 스님 계사로 보살계 수지하고 범어사 동산 스님 회상과 가야총림 선원서 안거.

△1952년(33세)=범어사 동산 스님 회상서 하안거 대중 88명 가운데 유일하게 안거증 받음.

△1967년(48세)=해인총림개설됨에 첫 유나.

△1970년(51세)=대중 요청에 따라 잠시 해인사 주지를 역임.

△1973년(54세)=해인사 극락전서 철조망 치고 결사 정진.

△1979년(60세)=해인사 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시작으로 1990년(71세)까지 총림 선원 대중과 함께 정진. 유나 · 주좌 · 부방장으로서 수행 가풍 진작 위해 진력.

△1981년(62세)=해인사 원당암에 재가불자 선원(달마선원)을 개설해 매 안거마다 1주일 철야 용맹정진을 지도. 매월 2회 토요 철야참선 법회 개최해 약 500여 회에 걸쳐 참선 법문.

△1987년(68세)=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선출.

△1993년(74세)=해인총림 제6대 방장에 추대.

△1994년(75세)=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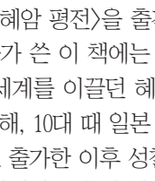
△1999년(80세)=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

△2001년(82세)=12월 31일 오전,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因果)가 역연(歷然)하니 참선 공부 잘해라’고 당부한 후 임종게를 수서(手書). 편안히 열반에 드니 세수는 82세요 법랍은 56년.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동 행 승 가 단



회장 성각

총 재 **무 송**
회 장 **성 각**(부산)
수석고문 **성 각**(하동)

사 무 총 장 **성 군** 초대총재 **정공**
영상홍보실장 **상 운** 초대회장 **정오**
감 사 **보강.성혜** 2대회장 **석경**

전국 각 시·도·운영위원장
심오, 해원, 혜정, 성오, 여육, 현덕, 자문, 광명, 현강, 도선

승가동행단회원일동

국제승가동행은 지난 4월18일 하동군 청암면 하동호에서 제7차 주변 환경청소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회장 성각스님 께서는 자연은 곧 인간의 생명이 다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설하고 진심 어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청암면 이재정 부면장님 께서는 직원을 데리고 오물포대 및 물과 부족한 장비들을 현장으로 찾아와 전달해주었다.



위안과 진리인 이 시대 비천상

〈飛天像〉

박은신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 ' 展

서울 갤러리이즈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현대적 · 개성적 변용 비천상 등 30여 점
해인사 주악비천 등 실존 비천 모티브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박은신 作, 소리없는 노래를 들려줄께 162.2×115cm 장지에 분채, 금박, 금분 2020

전통불화 속의 '비천(飛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시가 열린다. 현대적 불화의 한국화를 그려오고 있는 박은신 작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개최한다.

박 작가는 네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해인사 명부전의 주악비천, 안성 청룡사 대웅전의 주악비천, 경북 영덕 장육사 대웅전의 비천 등 실제 존재하는 사찰의 비천을 현대적이면서 개성 있게 변용한 작품을 비롯하여 수인과 연꽃 등 불교적인 도상을 소재로 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명의 '보이지 않는 빛, 들리지 않는 소리'는 비천이 연주하는 음악과 아우라를 상징한다.

비천상은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석등 · 부도 · 불단이나 단청의 별지화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천상에 머물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 · 찬탄하는 천인의 일종이다.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함께 들어온 우리나라의 비천상은 고구려 고분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교미술에 수용되기 시작해 양식의 변천을 거치면서 한국적인 비천상으로 정착했다.

박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한지에 스며드는 먹빛의 질감과 겹겹이 쌓아올려 색을 내는 진채의 매력에 빠져 2013년부터 순지 위에 먹과 분채, 석채, 금분, 금박을 이용한 한국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동양철학과 현대과학, 그리고 불교철학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을 그려보고 싶었던 박 작가는 지금까지 부처님이나 보살, 수인, 별자리 고목과 적벽 등의 지극히 초월적인 것을 상징하는 도상들과 떨어지는 매화꽃, 동백꽃,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 등 현실적이고 감각적이면서 시간을 상징하는 도상을 한 화면에 담아냄으로써 시간의 단위와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해왔다.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던 고려불화대전은 저에게 제 작품이 추구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둡지만 빛나고, 화려하지만 고요한 고려불화는 그 어떤 유명 미술관에서 본 명작보다도 더 큰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힘을 가진 그림을 경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으로, 순수회화로서 표현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불화의 도상을 적극적으로 화면에 도입하였고, 부처님의 수인을 연작으로 계속 그려오게 되었습니다."

박 작가의 작품세계는 불교적인 도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작가 자신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동양철학이나 현대과학, 문학의 주제가 결국은 불교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불교철학에 심취하게 된 결과다. 이렇게 다소 관념적이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작가는 가능하면 시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한 편의 시화를 보듯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려했다. 소식(蘇軾)의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有詩)라는 말 이래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는 정서는 전통적인 동양회화사상의 특징이다. 박 작가는 현대 채색화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살리고 싶어서 연꽃과 백로, 버드나무와 달, 매화가지 등 동양회화에서 이미 익숙한 소재를 클리셰로 사용하면서 불교적 도상의 엄숙하고 고전적인 소재들을 좀 더 친숙한 느낌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한 화면에 배치하고 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눈과 귀를 혹사당하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빛나고 귀한 그 무엇이 있다는 상상,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따뜻한 울림이 있다는 상상을 통해 감각으로 점철된 현실의 이면에 고요하고 숭고한 그 무엇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품는 표현되지 않은 공감이나 연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혹자에게는 자신이 추구했던 그러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상적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초감각적인 세계를 그림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박 작가는 "광공해로 덮인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구름너머 저 위에는 선연히 빛나는 수많은 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오듯이, 지상의 모든 이들의 지친 어깨 위에 꽃비를 뿌려주듯 빛을 내고 노래를 들려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하면 조금은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시대의 비천상을 표현해봅니다. 저에게 이 비천은 단지 위안이 아닌 진리이며, 돌아보는 마음이며, 때로는 너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림의 이면에 담고 싶었습니다"고 말한다. 박 작가는 앞으로도 비천상을 위주로 한 작품은 계속 그려나갈 계획이다.

박은신 작가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서양화과 석사를 마쳤다. 2016년 '시공간을 소요하다1'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네 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3년부터 국내외 단체전 및 프로젝트, 아트페어에 다수 참여했다.

제19회 유심작품상
윤효 · 문무학 · 이경자 · 한분순 수상



윤효 문무학 이경자 한분순

제19회 유심작품상 시 부문에 윤효 시인, 시조 부문에 문무학 시조시인, 소설 부문에 이경자 소설가, 특별상 부문에 한분순 시인(前 한국여성문학인회장)이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10일 제19회 유심작품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 부문에는 윤효 시인의 '차마객잔'이, 시조부문에는 문무학 시조시인의 '그전엔 알지 못했다'가, 소설 부문에는 이경자 소설자가의 단편 소설 '언니를 놓치다'가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 부문에는 한분순 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시 부문 수상자 윤효 시인에 대해 심사위원 오세영 시인은 "윤효 시인의 작품은 존재나 세계에 대해 항상 사색적이고 자기 성찰적"이라며 "그의 시에는 크든 작든 삶에 대한 깨우침이 있다. 한마디로 철학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조 부문 심사위원인 김영재 시조시인은 "문무학은 한국시조단뿐 아니라 한국문단에 소중한 시인으로, 한글 자모(子母)를 시로 쓴 유일한 시인"임을 강조했다.

소설부문을 심사한 구중서 문학평론가는 이경자 소설가에 대해서 "작가 이경자는 인간 존

만해선양회 10일 선정 발표
8월 11일 만해축전서 시상식

재의 기본권에서부터 문제를 추적하는 작품을 쓰고 있다. 아울러 총체적 세계관 범주에서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소설을 쓴다"면서 "소설 〈언니를 놓치다〉는 이러한 현실의식을 충직한 수법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윤효 시인은 "수상 통보를 받고 만해 한용운 스님을 떠올렸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환하게 밝힌 선지식의 전인적 풍모가 그리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문무학 시조시인은 "수상작 '그전엔 알지 못했다'가 만해 스님의 '알 수 없어요'를 많이 좇아가고 싶었나 보다. 수상의 기쁨을 숨기지 않으면서 여기선 그런 억지라도 마구 부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양 이북이 고향"이라고 밝힌 이경자 소설가는 수상소감으로 "인간 삶의 모순이 층층이 켜켜이 시공간에 뭉쳐있는 곳. 이곳에서 내 무의식이 모두 형성 됐다. 그러므로 소설가인 나는 뭉친 것을 풀어야 하는, 책무를 얻었다"고 밝혔다. 제19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만해축전에서 진행되며,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안양 수리산 용 화 사

주 지 태명 혜 우 신도회장 송창록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미륵부처님께 깨우친 불법을 배우세요.

천도는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용화 미륵부처님만이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으로 영가가 전생에 살아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걸 천도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를 해야만이 죽은 영가가 다시 윤회의 길로 다시 이생에 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다. 소중한 말이니 불자들은 뼈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람이 죽어서 천년에 한번 몸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을 받겠느냐? 전부다 죽으면 다 귀신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천도라는 것은 염불로 하는게 아니라 · 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그 도력이란 게 무엇이냐?
즉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부처님이 방광을 안하면 그건 부처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6 공평빌딩 6층 (우)14032
blog.naver.com/wiserain10
• 네이버 검색 의철미륵부처님 • 유튜브 불교방송 용화미륵부처님 TV
TEL. 031-444-9985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韓國佛教太古宗

宗正指墟 예경실장 印峯

僧正院

僧正 德化,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院 德山, 錦龍, 山翁, 泰宇, 性雨, 鏡潭, 覺林, 南坡
青山, 明月, 智弘, 雪山, 法宣, 吉祥, 智性, 智山, 保惠

中央宗會 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祥明
次席副議長

護法院長 智玄
副院長 觀正
委院 智淸, 普雲, 虎山, 淸山, 晩愚, 惺應, 六和

初審院長 九山
副院長 明願
委院 金輪, 德明, 碧岩, 法能, 古潭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月峰
副委員長 法蓮
委院 鳳峰, 法一, 智海

總務院長 虎溟

副院長 善慧

總務部長 道惺
教務部長 正眼
財務部長 曉能
文社部長 圓悟
弘報部長 現潭
糾正部長 晴空
校宗部長 眞華
任·傳法部長 心圓
務委員長 道宗
宗策委員長 智弘
教育院長 法眼
考試委員長 才京
法規委員 慧弘
社會福祉院長 休周
東邦大學長 常完
教佛學處長 哲眞
全國信徒會長 裵錫墅
青年會長 李承允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김갈수
재무부장 정장호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서덕재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무원
종의회부의장 이덕해
황세열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어려울수록 하나되는 우리,
세상을 치유하는 연등을 밝힙니다 !

총인 경정 통리원장 도진
종의회의장 효원 현정원장 회성
교육원장 효명 총금강회장 정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진각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정진합니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종 창종 50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종의회의장 우인 정사
사감원장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사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정대행 석성
총무원장 석성
※ 별종직
기획추진위원장 법해

원로회의
원로의장 대륜
원로의원 덕봉, 혜천
혜성, 동봉
현암, 법선

중앙종회
종회의장 혜일
종회의원 덕산, 무착
도정, 석경
령산, 진공
서현, 성운
보은, 혜암
혜광, 백운심
여래자
재단이사회,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계원장 지성
교육원장 지광
포교원장 마덕
문화원장 제법
선거관리위원장 원공
감사원장 동청
총무부원장 도명
문화부원장 해동
총무부장 지원
규정부장 지흘
문화부장 지안
교육부장 덕산
법사회사무처장 혜각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해
경기남부교구 지안
경기북부교구 지흘
경남교구 덕운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현담
부산교구 원공
전북.전남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울산교구 현산
충북.충남교구 지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www. ilbung.org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전화 02)991-8175, 8904 / 팩스 02)991-8176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사부대중일동

내 마음이 부처면 남도부처로 볼 수 있다.
내 마음이 마구니라면 남도 그렇게 보인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창원시 불교연합회

연합회장 **정 인** (창원불지사 주지)

"미얀마에 평화와 자비를"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75
사무국 055)222-1393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원 명**
총 무 **영 공**
감 사 **정 광**

신행단체

함안 불교신도회 회장 **조용찬**
함안 바웃다합창단 단장 **박문자**
함안 공무원 불자회장 **심은숙**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태우 (부은사)	종무원장	환명 (약수암)
원로의원	대안 (극락사)	종무부원장	도각 (선암사)
원로의원	등법 (법운사)	종무국장	자명 (석봉암)
자문위원	서산 (보광사)	교무국장	법조 (보현사)
자문위원	월봉 (석봉암)	규정국장	혜각 (수도사)
자문위원	세명 (관음정사)	재경국장	명성 (보광사)
자문위원	법안 (청량사)	문사과장	지연 (일원사)
자문위원	옥산 (화엄사)	교무과장	법윤 (불정사)
자문위원	법철 (세심사)	종회의장	정광 (문수암)
자문위원	석봉 (백운사)	종회부의장	자범 (옥골사)
포교위원장	황봉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교육위원장	석봉 (백운사)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감사위원장	성각 (기원정사)	중앙종회의원	보행 (법운사)
선거관리위원장	만우(법성사)	중앙종회의원	청호 (관음사)
중부분원장	혜우 (봉연암)	중부분원총무	자명 (석봉암)
서부분원장	백현 (금봉사)	서부분원총무	자운(여여암)
남부분원장	자범 (옥골사)	남부분원총무	근해 (무상사)
밀양분원장	승범 (해광사)	밀양분원총무	지원 (부은사)
김해분원장	정광 (문수암)	김해분원총무	무진 (보현정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 1201호
전화 055)298-3634 팩스 055)298-3638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 장 **이병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 (농민빌딩 4층)
전화 052)271-1310 팩스 052)258-1370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학장 : 보선스님
부학장 : 광운 김종윤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지도법사 : 원명스님
센타장 : 원명 안정임

붓다기행단
지도법사 :지현스님
단장 :혜월 윤재철

만일회
지도법사 : 성각스닝
회장 : 일향 최형석

자비도량참법기도회
지도법사 : 보선스님
회장 : 대명 옥광주

법화경독송회
지도법사 : 지산스님

진불선원
선원장 : 만산 정재영

108인후원회
지도법사 : 원각스님
회장 : 상전 홍수승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및 신행단체 문화교실 ☎ 052) 258-9944**
초하루, 일요,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다라니·금강경·행원참법 기도 등
어린이, 학생, 청년, 거사회, 108순례·일요순례회, 신도회, 동문회
합창단, 요가반, 민화반, 다도반, 난타반, 관현악단, 혼성합창단 등

◉ **장학 복지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행복한평생교육원**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월봉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운영 울산광역시 시립노인 요양원

주지 보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5번지(화정동)
전화 052)251-4602 팩스 052)235-4602
메일 wolbong sa33@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정인사

주지 원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
마산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마산시니어 클럽,
마산회원 시니어클럽



대한불교조계종

녹색사찰 백련사

주지 천도

신도회일동

울산시 울주군 향산 다개로 405-66
전화 052)262-6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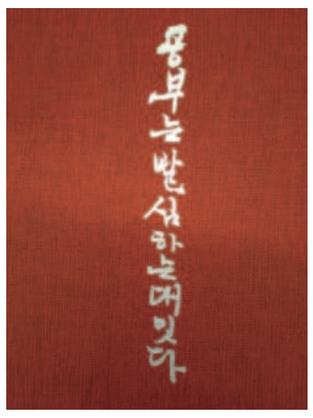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 남 사

사부대중일동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절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길 13
전화 052)211-3340, 010-7450-3340

33관음성지 치술령

울주 법왕사

주지 혜경

사부대중일동

불사금 마련(메주, 된장) 주문 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동대산 성불사

회주 만상
주지 혜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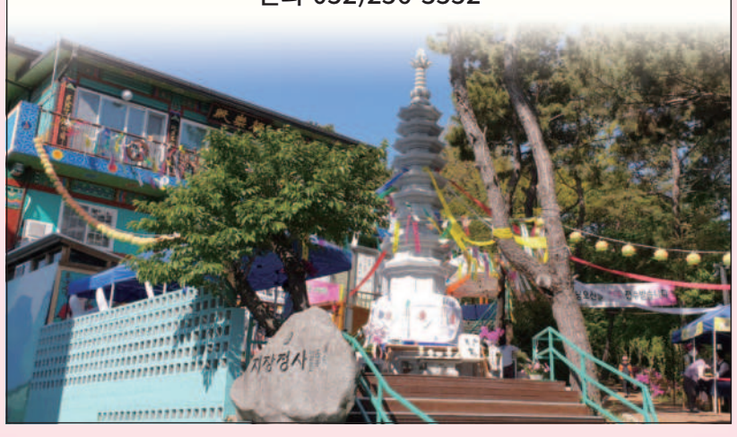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우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울산 천마산 서장사

회주 진옥 주지 불성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253
종무소 전화 052)293-0108 010)9741-1188



자비광명으로 코로나 극복을…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국점등식 및 법요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연등이 불을 밝혔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태화강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울산종단연합회는 장엄등의 환한 불빛으로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전했다. 올해 태화강 연등축제의 제등행진과 체험, 시민축하공연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됐으며, 비대면 프로그램과 전시전 등이 진행됐다. 점등식을 시작으로 영상탑과 장엄등, 울산 반구대 암각화등, 고래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등이 시민을 반겼고 사진으로 보는 울산 연등축제, 미얀마 평화를 위한 삼보일배와 거리행진, 미얀마 평화기원 사진전 등 평화기원 행사도 진행됐다.

점등식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 봉행위원장 대활 스님, 덕진 스님, 보화 스님, 혜진 스님, 혜원 스님, 혜안 스님 등 지역불교계 스님들을 비롯해 이병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우리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와 우리 지역, 국가와 인류에 행복을 전하자"며 "코로나19로 힘든 사회에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극복 발원
희망·치유마음 전해
철저한 방역 속 진행



울산 종단연합회 봉축장엄등.


창원시청 앞 광장 봉축탑.


밀양불교사암연합회 봉축축제.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5월 14일 창원 마산포교당 정법사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고문 흥교 스님과 창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정인 스님, 원행 스님, 도홍 스님, 도문 스님, 월봉 스님 등 지역불교계 스님들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 박완수, 윤한홍 국회위원,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메옴 미얀마 경남교민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이번 법요식에서 미얀마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창원불자들은 쿠데타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생명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자비성금 1000만원을 미얀마 경남교민회 회원 2000여 명에게 전달했다.

회장 정인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세계인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부처님 가피와 방역수칙 준수로 반드시 극복 치유될 것을 확신한다"며 "특히 불교국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선량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미얀마 사태의 평화로운 종식을 위해 창원지역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A29면에 계속


울산불교환경연대는 5월 9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앞에서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미얀마 민주화 기원 오체투지 진행

울산불교환경연대, 5월 9일 미얀마 군부 규탄

"미얀마 평화를 기원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을 존중합시다."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며 죽어 가는 생명을 애도하는 간절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5월 9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앞에서 '미얀마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삼보일배에는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해 미얀마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공병도 성공회 신부는 "절을 하다 보니 발아래 개미가 보였다.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비심이 이것이구나를 느꼈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삼보일배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평화기원 기도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동했다"고 말했다.

천도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살아 있는 것들은 모두가 안락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고통 받는 미얀마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준비했다"며 "삼보일배가 진행된 날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98일째 되는 날이다. 현재 770여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4700여 명이 구속되었다. 또 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국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스님은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간절한 삼보일배가 국제사회와 미얀마에 울림이 돼 민주화의 꽃이 피어나길 염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울산=하성미 기자

제3회 부산불교대상, '김수현 BTN부산지사장'

부산불교연합회, 11일 선정
5월 16일 송상현광장서 시상

'제3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로 김수현〈사진〉 BTN 불교TV부산지사장이 선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부산불교대상의 수상자가 5월 11일 발표됐다. 대상은 김수현 BTN 부산지사장, 최우수상은 범어사 금강암 장학회, 우수상은 강미자 금정총림포교사회 회장, 삼광사 봉사회,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수현 BTN 부산지사장(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은 영상포교와 불법 홍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으로 취임 후 여성불자들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 정책개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김 부산지사장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법륜회 후원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시상식은 5월 16일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서 열린 '부산연등축제 회향식'서 진행됐으며, 대상에게는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300만원과 부상으로 상패가 수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축 맞아 밀양소방관 · 경찰관 격려

밀양사암聯, 5월 7일 위문품 전달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는 5월 7일 밀양소방서와 밀양경찰서를 방문해 봉축위문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위문품은 떡과 과일, 빵 등 간식 500인분이다. 밀양소방서는 스님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소방차 및 특수 소방차량, 구급차 등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회장 진각 스님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사찰은 건축물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 등산객 및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라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손현호 밀양소방서장은 "사찰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밀양경찰서에도 봉축위문품을 전달하고 경승 위촉식을 진행했다.

경승실장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표충사)이 위촉 됐다.

밀양=하성미 기자

국제붓다자비 봉사단 봉축 자비물품 전달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총재 목탁)은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독거어르신 및 지체장애자들에게 생필품 및 간장과 고추장 등 60상자를 비롯한 총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물품은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총재 목탁 스님과 해탈심의전원장, 보현수 직전회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진행한 특별기도를 통해 모연된 것들로, 청정원 후원이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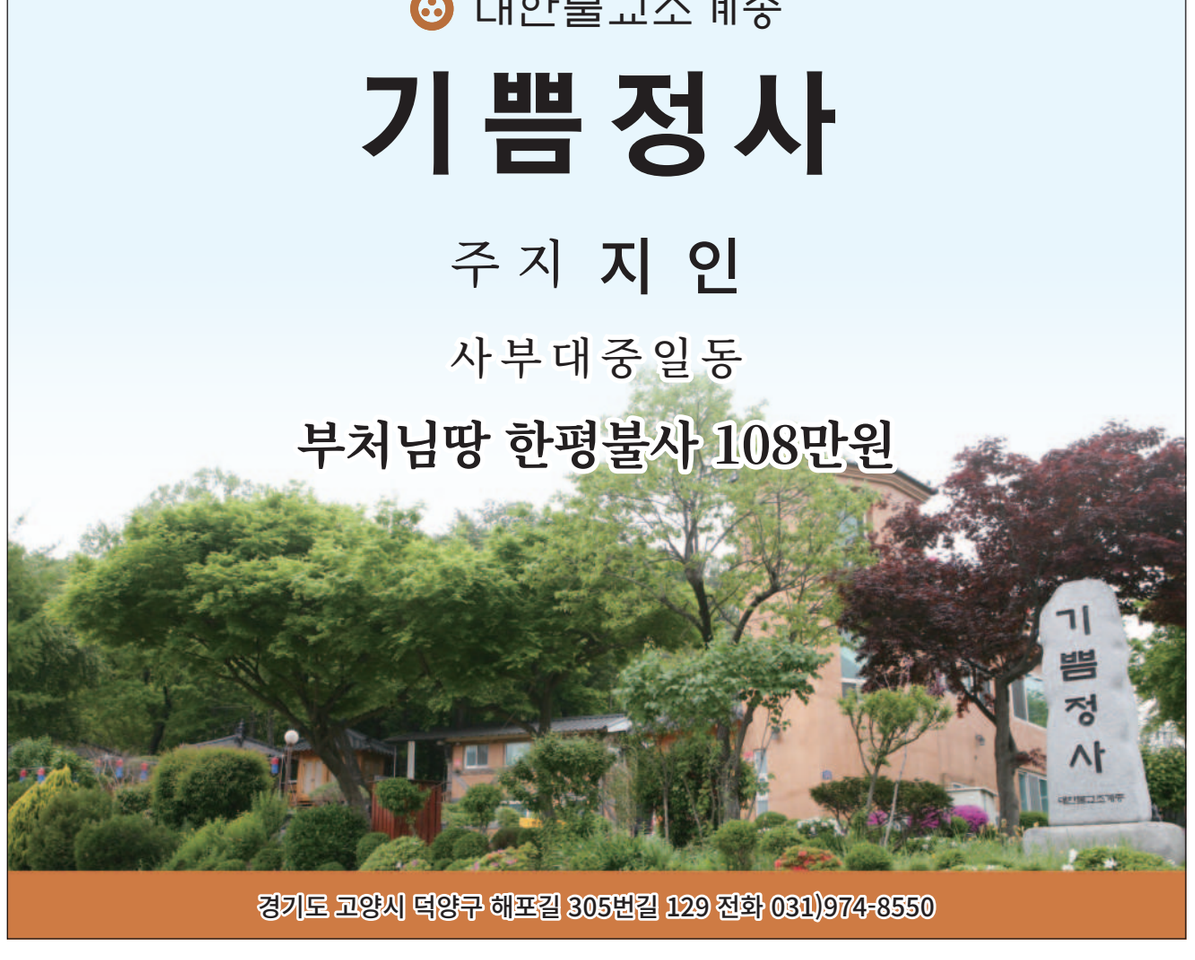
봉사단은 매년 두차례에 걸쳐 서광사 복지원을 비롯한 기관에 자비물품을 전달해왔다. 4월 16일과 4월 23일 등에는 해외 저개발 국가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2700만원 상당의 열소독기구와 마스크 5만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3차에 걸쳐 전달된 자비물품 총액은 8000만원 상당이다.

총재 목탁 스님은 "지속적인 자비보시행으로 세계일화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안성 망이산성 연등사
주지 도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장
동문회 사무처 회장 주석사찰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
전화 031)674-5765 / 팩스 031)674-5769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기쁨정사
주지 지인
사부대중일동
부처님땅 한평불사 108만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 전화 031)974-8550

전국서 봉축 열기 뜨겁다



함안불교사암연합회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


부산 천태종 광명사 국운융창 코로나 소멸 점등법회.

A28면에서 계속

창원시불교연합회는 지난 4월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연꽃 장엄등 및 탑등을 창원광장 봉축탑, 진해중원로타리 연등탑, 마산합포구청 광장에서 점등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따르기 위해 제등행렬과 시민봉축음악회 등은 취소됐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는 5월 7일 밀양역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봉축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밀양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안전 및 생명보호를 발원했다.

밀양사암연합회회장 진각 스님은 "어둡고 깊은 밤일수록 등불이 더욱 빛나듯, 어려운 때를 맞아 부처님 지혜 광명이 많은 이들에게 의지처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를 극복해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자"고 당부했다.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도 5월 9일 함안군 함안문화원에서 '부처님오신날 함안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봉축법회에는 사암연합회장 원명 스님, 재경 스님, 정광 스님, 진홍 스님, 수암 스님 등 회원 사찰 스님들과 조용찬 함안연합신도회장, 조근제 함안군수, 성재기 운영위원장, 심은숙 공무원불자회장, 박문자 바웃다합창단장 등 대중이 동참했다.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 스님은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공동체에서 개인의 탐욕은 반목으로 나타나 사회는 병들고 자신은 괴로움만 자초할 뿐"이라며 "삼보에 귀의하고, 지난 날을 참회하며, 미래의 향기로운 세상을 발원하는 불퇴전의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는 5월 7일 광명사 지관전에서 '국운융창 및 코로나19 속득소멸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이창욱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명사는 이날 부산대 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명사는 현재 인재불사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 중으로 학생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고 일체 가구와 가전제품을 후원해 학생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광명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등 신행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불자들을 위한 선물도 전달됐다.

점등식에서는 도량에 새롭게 조성된 원만상호 부처님등, 53존불 법화대보탑 등, 우주법계를 밝히는 33인등에 화동과 내빈들이 불을 밝혔다.

주지 춘광 스님은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밝히는 봉축의 등불이 마음을 밝히는 지혜등불이 되어 만중생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내장사 학명 스님 91주기 추모재

5월 7일 부도전서 봉행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가 학명선사 열반 91주기 추모재 및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5월 7일 내장사 부도전에서 봉행된 이날 다례재는 최근 대웅보전 화재로 인한 참회 및 코로나19 방역으로 외부인사 초청 없이 진행됐다.

다례재에는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과 범여 스님, 대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 20여 명이 참석했다.

학명 스님은 1867년 전라남도 영광서 출생해 20세에 출가하여, 수행 교육 포교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 교정 등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타종단에도 많은 문도를 두고 있다. 스님은 1929년 향년 63세로 입적했다.

내장사의 역대 조사로는 창건주 영은 스님, 승병장 희묵 스님, 학명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 등이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불교聯, '엄마의 밥상'에 성금 전달

신의진 학생, 장학금 195만원 기탁해 성금전달 행사 이뤄져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3일 전주 금선암에서 전주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하 엄마의 밥상)'에 성금을 전달했다.

전주불교연합회는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 성금을 전달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달하지 못했고 올해도 성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전주불교연합회 신용훈 사무국장의 자녀 신의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4월에 받은 국가장학금 195만원 전액을 '엄마의 밥상'에 써 달라며 전주불교연합회에 전달하면서 이날 행사가 마련됐다.

신의진 학생은 "평소 지역 불교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할머니로부터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며 "국가장학금을 받고 보니 전주불교연합회에서 매년 '엄마의 밥상'에 성금을 전달해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라 아버지와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낸 신의진 학생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불교위, 영양찰떡 전달

5월 13일 비대면 1400명분 전달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주교도소 불교위원회(위원장 현진)가 전주교도소 전수용자들에게 영양 찰떡 1400명분을 전달했다.

5월 13일 전주 교도소 교정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전주 교도소 교정위원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천지사 현진 스님, 교임국장 명현 스님 등 스님들과 양현섭 광주교정협 사무총장, 강석춘 포교사, 김도은 전주소년원 어머니위원회 위원장, 정해자 총무, 천순희 탑밴드 단장, 김경은 '사랑 나눔 행복을 붓다 지원센터' 센터장, 박성균 교정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앞서 참석대중들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후 연등을 들고 수용자들이 참회의 삶을 살아 줄 것을 염원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하여 교도소 외부에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축년 부처님 오신날 자아반성 중인 수용자 법우들을 만날 수 없어 부득이 담장 너머로 우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영경 동국대 캠퍼스 총장을 필두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순례대중들이 자비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 상월결사 자비순례

5월 11일 캠퍼스 일대서 진행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영경)가 상월선원의 만행결사 정신을 잇는 자비순례를 시작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5월 11일 '2021코로나19 국난극복 자비순례'를 경주 일대서 봉행했다.

자비순례는 종립대학인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상월선원 만행결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순례에는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 교수,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순례대중들은 경주캠퍼스 본관을 출발해 분황사, 황룡사지를 거쳐 정각원에서 회향했다. 먼저 백주년 기념관 광장에 모인 순례대중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았고 발원문을 통해 불교의 중흥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이번 순례는 총 13km로 3시간이 소요됐다. 대중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묵언 정진으로 순례를 진행했으며, 분황사에서 순례대중은 탑돌이를 하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발전과 코로나19 국난극복을 발원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이번 자비순례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지역불교계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코로나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불교중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철야외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자비순례를 시작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매월 11일 상월결사의 원력을 되새기는 자비순례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주=하성미 기자

제3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대상
  김수현(BTN불교TV 부산지사장,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
  (상패, 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
  범어사금강암장학회
  (상패, 상금 500만원)
- 우수상
  강미자(금정총림포교사회 회장)
  삼광사봉사회
  현익채(전. 금정중학교 교장)
  (상패, 상금 300만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2021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 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이영숙 김수현 하정선 정분옥

■ 자문위원
김진수 정홍섭 이장호 박홍대 전호환 박순곤
박태학 김영섭 고영립 박한일 박무성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회문화부회장 조용국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섭외부회장 최영호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총무부회장 박종문
경조부회장 신기열
사찰교류협력부회장 박수곤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문화부회장 최삼섭
홍보부회장 이경신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재무부회장 김원용
기획부회장 이희태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 부회장
윤종경 박효섭 박영근 최태식 김종한 이종우 최순환 유영남 강경희
노종헌 장호익 김정화 김상훈 김영도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경조이사 오세룡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의전이사 박태원 정연식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재무이사 이근욱
친목이사 문종헌 김상규
집전 류상영

■ 이 사
강근순 강길주 권혁란
김선일 김성익 김영자
류강렬 박수진 백정진선
성재곤 심인택 안천일
유진상 이동진 이명학
정분남 정순천 하승준
허 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 808-8600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진불선원

진불선불교대학

선원장 **설 우** 주지 **무 아**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 112(용호동)
전화 055)275-3222 팩스 055)275-1222
http://cafe.daum.net/jinbulcenter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동림불교대학 선문화대학

주 지 **은암신공**
신도회장 **노도명화**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 계곡길168-14
전화 055)325-4008



대한불교조계종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 예향다회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번지
055)533-2073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산사

주지 **동 조**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지 **종 성**

사부대중일동

옥천사템플스테이
체험형『졸졸졸 탁탁탁』
휴식형『물소리바람소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전화 055-672-0100 팩스 055)672-0481
템플스테이 055)672-6296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포교원당 구룡사

주지 **무 성**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관음종

진주 불명사

주지 **허주 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233-27
전화 055)756-1095



대한불교관음종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 여**

사부대중일동

법화경 기도소원성취도량



경남 진주시 의병로128
전화 055)761-5382

교담미와 야수다라가 수기 받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⑲ 최초의 비구니 수기

그때 마하파사파제(교담미) 비구니는 유학 · 무학의 비구니 6천 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존안을 우러러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세존께서 교담미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까닭으로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는가? 그대의 생각에 행여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수기를 주지 않아서 그러는가? 교담미여, 내 먼저 통틀어서 모든 성문에게 다 수기를 설하였나니, 이제 그대의 수기를 알려 한다면 장차 오는 세상에 마땅히 6만 8천억 모든 부처님법 가운데서 대법사가 될 것이며, 6천의 유학 · 무학 비구니들도 그때 함께 법사가 되리라. 그대가 이와 같이 점점 보살도 갖추어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일체중생희견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라 하리라. 교담미여, 이 일체중생희견불과 6천 보살이 차례로 수기를 받아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얻게 되리라."

그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가 가만히 생각하였다.

"세존이 수기를 주시되 유독 내 이름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야수다라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오는 세상 백천만 억 모든 부처님 법 중에서 보살행을 닦아 대법사가 되어 점점 불도를 갖추고 좋은 국토에서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구족천만광상(具足千萬光相)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라 하리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지겁이니라."

그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 권속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일찍이 없던 일이라 하여, 곧 부처님 앞에서 게송을 설해 사뢰었다.

"세존은 도사이시라 인간과 천상을 편안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나이다."

비구니들이 게송을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리다."

'권지품'에 설해져 있는 이 내용은 처음으로 비구니가 수기 받는 장면이다. 마하파사파제는 본래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였다. 그리고 난타라는 아들도 낳았다. 정반왕이 죽은 뒤 그녀는 세 번에 걸쳐 출가를 청하여 마침내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교담미라고 하며, 대애도(大愛道)비구니라고도 부른다. 바이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고 쿠시나가라로 떠나가던 부처님이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라고 아난에게 말한 것을 전해들은 대애도 비구니는 차마 자기보다 부처님이 먼저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스스로 자진하여 바이살리의 대림사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키워준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모정에 기인한 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녀에 대해 설해 놓은 〈대애도비구니경〉이 있고 또 열반에 대해 설해 놓은 〈대애도열반경〉이 있다. 야수다라는 출가 전 부처님의 부인이었다. 그녀도 마하파사파제가 출가할 때 같이 출가하였다. 그때 석가족 여인 500명이 함께 출가했다고 한다.

이 장에서 두 비구니에게 부처님이 수기를 준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법화경〉의 일체가 모두 성불한다는 성불론에 의거, 여성 성불의 단적인 예를 들어 성불이 남성 위주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고 한다. 종래 일부에서 제기한 여성 성불 불가를 분명하게 일축해버린 결과가 된다. 또 하나 숨어 있는 뜻은 법화 법문을 들은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성불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성문들뿐만 아니라 오종법사(五種法師)로 밝혔듯이 수지(受持), 독(讀), 송(誦), 서사(書寫), 해설(解說)한 인연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기를 주면서 대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법화경〉을 설할 대법사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법화경〉이 설해져야 불법이 유통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법화 법문을 들은 것이 성불의 가장 중요한 인연이 된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탐욕 · 집착 본질부터 꿰뚫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⑲ 재가 보살의 정행(淨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대승 보살'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불자들은 '재가 보살'이나 '출가 보살'이라는 용어를 낯설어한다. 아마도 사찰에서 여성 신자에게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보살이라고 하면 재가 보살, 특히 여성 신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대승 경전에는 재가 보살이 등장하기도 하고, 출가 보살이 등장하기도 한다. 재가 보살이 등장하는 대승 경전으로는 〈유마경(維摩經)〉과 〈승만경(勝鬘經)〉을 꼽을 수 있으며, 각각 유마거사와 승만 부인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처음에는 성문승(聲聞僧)을 비판하는 재가 보살이 많이 등장했지만, 점차 재가 보살과 다른 출가 보살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 〈화엄경(華嚴經)〉에는 재가 보살과 출가 보살의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정행품(淨行品)'에서는 재가 보살과 출가 보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청정한 행을 설한다. 이 품에서는 지수(智首)보살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보살의 행을 묻는다. 이에 대해 문수(文殊)보살은 141가지 서원으로 보살의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하나씩 설한다. 다시 말해 모든 행위, 즉 육체적 언어적 의지적 행위를 순화시켜 청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41가지 서원을 세울 것을 설한다. 이 가운데 11가지 서원은 재가 보살의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살이 집에 있을 때면 중생이 집의 성품이 공(空)한 줄 알아서 그 핍박을 면하길 원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모를 효(孝)로 섬길 때면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양하길 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처자가 모일 때면 중생이 원수이거나 친하거나 평등하여 영원히 탐착을 여의길 원해야 한다. 네 번째는 만약 오욕락(五欲樂)을 얻을 때면 중생이 욕심의 화살을 뽑아 없애서 구경에 안온하길 원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즐거운 놀이로 모일 때면 중생이 법으로써 스스로 즐겨 놀이가 진실이 아닌 줄 분명히 알기를 원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만약 궁실(宮室)에 있을 때면 중생이 성인의 지위[聖地]에 들어서 영원히 더러운 탐욕을 없애길 원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영락(瓔珞)을 걸칠 때면 중생이 모든 거짓 장식을 버려서 진실한 곳에 이르길 원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누각에 오를 때면 중생이 바른 법의 누각에 올라서 온갖 것을 철저히 보길 원해야 한다. 아홉 번째는 보시하는 바가 있을 때면 중생이 온갖 것을 버려서 마음에 애착이 없길 원해야 한다. 열 번째는 대중이 모일 때면 중생이 온갖 모인 법[衆聚法]을 버려서 모든 지혜를 이루길 원해야 한다. 열한 번째는 만약 액난(厄難)에 있을 때면 중생이 뜻을 따라 자재하여 행하는 바가 걸림 없길 원해야 한다.

첫 번째 서원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성(空性)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이다.

모든 존재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고 인식해야만 모든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탐욕과 집착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행위, 즉 육체적 언어적 의지적 행위가 청정해질 수 있다. 또 나머지 서원들을 살펴보면 보살은 세간에서 중생들과 어울리지만,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보살은 중생이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군가에 대한 진실한 바람이 그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⑲ 고대 인도의 건물형태

문루 아래로 성 나간 '싯다르타'

석가모니가 성읍으로 들어와 거닐었던, 그 도시 내의 건물들은 어떠한 형태였을까. 우리에게는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이전의 건축형태가 어떠했는지 추정해볼 수 있는 고고학적 단서가 거의 없다. 마하바라따나 라마야나 같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가 당시의 건물형태를 상상할 수 있는 문학적 단서가 될 것이고, 그 이후 기원전 1~3세기에 건립된 산치(Sanci)나 바르후트(Bharhut) 스투파 등에 나타난 조각을 통해서야 시각적인 단서를 얻게 된다.

만일 건축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산치 스투파의 조각을 통해서 석가모니 당시의 건축형태를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건물 평면의 형태는 원형과 정방형, 그리고 직사각형 형태가 보인다. 직사각형의 평면을 갖는 건물들은 원형이나 정방형의 건물형태가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규모가 더 컸을 것이다. 건물의 평면이 둥글거나 정방형인 경우는 일반 가정의 가옥형태의 형태로 단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붕의 크기를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치 스투파에 조각된 베산타라 자타까(Vessantara Jataka)가 묘사된 부분을 보면 일반 농가의 형태는 원형의 벽으로 초가지붕을 얹은 형태인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눌러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붕은 당시의 건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읍성 내의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은 지붕의 길이도 길어지는데, 직사각형의 평면을 갖는 건물은 흔히 배럴 볼트라 말하는 긴 반(半)원통 모양의 지붕을 얹었다. 마치 둥근 드럼통을 길게 반으로 쪼개서 엎어놓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지붕을 만들자면 지붕틀은 휨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나무 같은 자재를 썼을 것이다. 대나무 지붕틀을 둥글게 반원 형태로 휜 다음 이것들을 일렬로 묶어주는 긴 나무나 대나무를 늑골처럼 덧대어 고정시켰다. 그 다음 덮개를 씌웠을 것인데, 아마도 그 덮개는 볏짚이나 띠풀 같은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다. 지붕의 용마루 선은 따라서 볏짚이나 띠풀 등을 잡아주는 매듭 등으로 상투처럼 불쑥 올라오게 나름이다. 이러한 지붕형태는 아잔타 석굴이나 바자 석굴 등에서 보듯이 초기 석굴 형태의 천정 구조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지붕의 양쪽 끝 박공 부위에는 창문을 내었는데, 당연히 반원(半圓)형태이거나 말발굽 형태의 창문을 내서 사람이 바깥을 내다보거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흥미로운 것은 긴 반원 형태의 지붕 중간쯤에 이 지붕의 긴 축과 직각을 이루는 짧은 축의 지붕을 양쪽으로 한 개나 두 개 정도 덧대어 낸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긴 축의 둥근 지붕과 짧은 축의 둥근 지붕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천정은 그로인 볼트와 같은 궁륭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2층 건물일 경우는 짧은 축 반원 지붕 아래쪽에는 난간이 있는 베란다를 내어 밖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되면 건물의 평면은 꽤 복잡해지는데, 벽면은 리듬감 있는 요철이 나타나 단순한 직사각형의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읍 내에 있었던 건물의 높이는 단층건물도 있었지만 2층이나 3층 건물도 어렵지 않게 조각 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의 건물들도 대체로 난간이 있는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반원통형 긴 지붕을 십자로 엮을 수 있다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여 복합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산치의 스투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문(城門)의 높이는 코끼리에 올라탄 사람이 충분히 통과할 만큼 높이 솟아있으며 그 문루(門樓) 위에도 역시 반원 형태의 지붕과 베란다 등이 조성되었다. 벽체와 기둥 일부는 나무와 벽돌을 이용해 조성했을 것이며, 난간과 기둥 등은 쌀라(Śala) 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를 깎고 다듬어 결구법으로 고정시켰을 것이다. 기단부는 대부분 자연석과 벽돌을 이용해 쌓았는데, 그 흔적들의 일부는 여전히 발굴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싯다르타 태자가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을 틈타 성문을 빠져나갈 때, 그 때 그는 이러한 문루 아래를 통과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우리도 부처님같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19일 (수, 음 4.8)

주 지 벽암 지홍 합장
신도회장 정광자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 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

법회일 YouTube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진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2동 341-2)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압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전화 02)803-4779 팩스 02)891-0770

日고야산, 코로나 종식 특별기도

NHK 등 5월 5일 보도
코로나 희생자 추모행사

코보대사 유지 계승 일환
밀교 의식으로 기도 봉행
슈쿠보 급감에 재정 영향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 금당에서 요잡의례를 하며 반야경을 독송하는 스님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불교 성지인 고야산(高野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특별법회가 봉행됐다. 법회는 1년이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속에 희생된 이들을 천도하고 확산의 조기종식을 기원했다. 5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NHK' 등은 고야산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지난 3일 고야산 총본당인 금당에서 열린 '코로나 재난 조기종식 기원, 희생자 추모법회'는 산내 각 사찰을 대표하는 30인의 대중 스님들이 모였다. 이번 특별기도회는 종조 코보대사의 원적기념일(음 3월 21일) 법회에 맞춰 종조 유지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고야산 측은 "종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께서도 역병이 돌 때 대중들과 함께 종식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천도하셨다. 그 전례를 따라 특별기도를 봉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야산 진언종 소에다 류쇼 종무총장 스님은 "고야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관계자분을 기도로 응원하고자 한다. 동시에 돌아가신 전 세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기도 내용을 전했다.

특별법회서는 캇사이 코우기 진언종 관장이 법주를 맡아 금당에 마련된 단상에서 밀교의식으로 기도를 봉행했다. 이에 따라 대중스님들은 〈이취반야경〉 등의 경을 독송하며 법당 안에서 요잡의례를 봉행했다. 기도 중 발원문에는 "역병이 속히 물러나고, 명을 달리한 이들이 안식을 얻길 바란다"는 문구가 낭독됐다.

법회에 참석한 한 가족은 "이런 시기에 고야산에서 참배하고, 또 스님들이 특별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여성은 "모두가 힘든 시기다. 모두에게 빨리 안정된 생활이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이자 관광지로도 유명한 고야산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고야산 류쇼 스님은 "코로나19로 긴급사태가 선언된 2020년 봄 이래로 산내 상황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고야산 측은 긴급사태가 발령됨과 동시에 산문을 폐쇄하고 모든 사찰과 시설의 방문 및 관람을 중지했다. 자연스럽게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연중 붐비던 고야산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특히 고야산의 명물이자 일본식 템플스테이로 불리는 '슈쿠보(宿坊)'가 숙박객을 받지 않고 폐쇄되면서 재정상황도 악화됐다.

한 슈쿠보 관계자는 "슈쿠보의 수입은 사찰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숙박객이 오지 않으면서 사찰의 재정이 타격을 받아 근심이 크다"고 털어놨다.

고야산 슈쿠보 연합회 측은 지난해 슈쿠보 방문객 중 내국인 23%, 외국인 9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슈쿠보 재정뿐만 아니라 슈쿠보와 연결된 식료품점, 기념품점 등의 산내 상권들도 함께 타격을 받았다.

고야산 측은 "올림픽과 더불어, 고야산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전 등 행사를 예정했으나 확산이 격화되며 모든 일정이 요원해졌다"고 어려운 사정을 밝혔다.

泰불교계, 부처님 디저트 판매 화제

부처님 모독 논란에 과잉반응 지적도


논란이 일고있는 호신불모양 과자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 중부도시 사뭇 송크람에 소재한 제과점에서 태국 전통 호신불인 '프라쿠르안' 모양케이크와 과자를 판매해 화제다. 부처님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일며 불교문화 상품에 대한 과잉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월 7일 태국의 '방콕 포스트'는 이 호신불 디저트에 대해 소개했다. 사뭇 송크람의 한 제과점은 SNS를 통해 호신불인 '프라쿠르안' 모양의 전통 코코넛 케이크와 과자들을 소개했다.

프라쿠르안은 소형 불상이나 불탑, 혹은 고승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호신불로 보통 목에 걸거나 차량 내 소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태국에서 프라쿠르안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프라쿠르안을 거래하는 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제과점 측은 새로 출시한 과자들을 소개하면서 "프라쿠르안 모양의 디저트을 먹으면 프라쿠르안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 제작동기를 밝혔다.

SNS에서 이 제품이 소개되자 사뭇 송크람의 불교문화사무국은 디저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사무국 측은 "식품에 부처님의 이미지를 넣어 홍보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먹는 형태는 없었다"며 "가령 제품이 손상되거나 부패할 경우 쓰레기로 버리거나 동물이 먹게 된다. 호신불은 기본적으로 예경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부처님 형상을 본딴 음식은 불교계서 이미 다양하게 있다"고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대로 동물이 이 과자를 먹고 가피로 다음생에 삼악도를 벗어나면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 네티즌은 "부처님 모습을 한 과자를 먹으며 맛과 향도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긴다면 불법을 전하는 음식이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불교계, 증오사회 '치유' 나서다

4일 LA히가시 혼간지서
'인종차별 반대' 법회

미국 전역서 불교도 운집
증오범죄 경각 주는 취지
애틀란타 피해자 49재도


'나무삼보' 마스크를 쓰고 기원하는 미국불교도들. 사진출처=LA타임즈

"무지(無知)가 있을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탐욕이 있을 때, 우리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오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미국 스님들이 '불법승에 귀의한다'는 뜻의 '나무삼보'(南無三寶)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불교 사원에 들어섰다. 가사를 갖춰 입고, 삭발을 한 머리는 모습은 같았으나 태어난 나라도, 자라 온 환경도 모두 다른 이들이었다.

미국 각지로부터 모인 불교도들이 미국 사회를 향해 '증오범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5월 8일(현지시간) 미국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A타임즈)'는 "그들(스님들)은 4일 리틀도쿄(Little Tokyo) 히가시 혼간지(Higashi Honganji) 불교사원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행사서 불교 전통과 아시아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표출했다"며 "약 2500년간 이어온 불교 역사에서 유래 없는 일로, '인종차별 반대'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계 각지의 불교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리틀도쿄로부터 온 일본계 미국인, 웨스트민스터로부터 온 베트남인, LA와 가든그로브 출신의 한국인, 롱비치 출신의 베트남인, 할리우드 출신의 태국인, 산타아나 출신의 캄보디아인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 불교도들도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USC종교학교 둔칸 규켄 윌리엄스 스님은 "공동체를 통해 '인종차별 반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미국 불교계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며 "이는 '다양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개 불교계가 모인 캘리포니아에서만 성사될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조동종 소속이기도 한 둔칸 규켄 윌리엄스 스님은 "수백 세기 동안 이처럼 다양한 전통과 계통, 종파들이 모인 유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오범죄에 대한 반대와 함께 미국 사회에 불교사상을 담은 메시지를 던져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

이 같은 일환으로 지난 2월 기물파손과 방화 등 증오범죄 테러를 당한 히가시 혼간지는 증오범죄 규탄성명 대신, 증오범죄인 애틀란타 총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49재를 열기도 했다.

윌리엄스 스님은 "증오심에 가득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증오범죄에 대한 분노 대신 증오범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3월 16일 애틀란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2)은 5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불교사원 연쇄 절도범 잡혀

여성 5명 · 남성 1명 구성된 범죄단 체포


사진출처=노스웨스트 아칸시스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Rogers)에 위치한 베트남 사찰에서 강도 · 무단침입 · 폭행 등의 혐의로 범죄단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사칸주 지역언론 '노스웨스트 아칸사스'(Northwest Arkansas)는 4월 20일 6명의 루마니아인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벤튼(Benton)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Sheriff's Office) 발표에 따르면, 루마니아 여성 2명이 4월 18일 사원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이에 사원 측은 베트남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 중 여성 1명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했고, 또 다른 여성은 사찰 관계자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 했다. 의식 중 자리를 비우는 이들을 수상케 여긴 사찰 관계자가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들은 매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틀 후 이들 여성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과 남성 1명이 사원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사원에는 관계자 1명만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다. 사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나자 이들은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며, 역주행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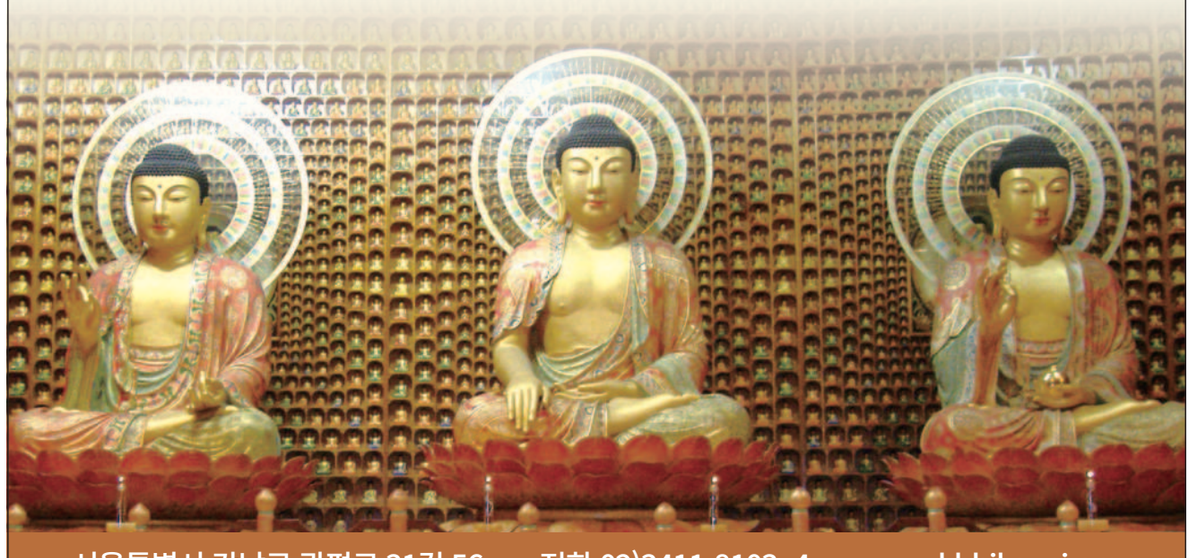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동안 불교사원을 대상으로 강도 행위를 벌여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일동

백 중	입재 : 7월 05일 (월요일) 회향 : 8월 22일 (일요일)
불교대학	화요일 ~ 일요일 문의 : 02-997-646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전화 02)902-2663 팩스 02)990-1885 | www.hwagyesa.org



대행 스님

여러분이 직접적인 실험을 자꾸자꾸 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관하는 방법

질문 인터넷상에서 대행 스님 법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이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관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은 기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대승으로서 천인의 왕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사회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심력과 더불어 중용을 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믿고 찾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덮어놓고 '주인공만 믿으면 된다더라.'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주인공이 해 줘야지.', '주인공,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마음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을 동시에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걸 했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팔방미인을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죠. 팔방으로 뛰어도 죽지 않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니만큼 우리가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니까, 찰나찰나 용도에 따라 변해서 애고(哀苦)도 세균성도 영계성도 유전성도 나오죠. 애고라는 것이 고정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도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것이 망쳐질 수도 있고 저런 것이 잘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이 모든 것을 일임해라." 할 때는 상황에 맞게 놔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병고가 오면 '너밖에 고칠 수 없어.' 하고 놓는데, 그 놓는 순간에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또 내가 법정에 들어설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독성, 산신도 되고 관세음도 됩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에 찰나찰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인노릇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요량 있고 지혜롭게 냄으로써 문제를 조금도 손색이 없이 타파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올 때, 이걸 꼭 타파를 해야겠다 하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이것은 너밖에 못 해!' 하고 놓을 수 있지만, 내가 가늠을 못 할 때, 판단을 못 할 때는 '너밖에 판단해 줄 수 없어!' 하고 놔야 됩니다.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이것저것 다르게 닥칠 때마다 내 마음은 화해서 자꾸자꾸 용도에 맞게 놔야 됩니다. 바꿔서 놔야 되죠. 아버지 노릇 할 때엔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 하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무조건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끊어라 하니까 끊으려고 애를 쓰기만 했지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끊어집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죠.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아주 지혜로운 본능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억겁을 거쳐서 경험을 쌓고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발전을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혜로움과 진화력과 그 모든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스스로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저 병고가 와도 '너 알아서 해.' 이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서류를 딱 주고 '너는 요것대로 해!' 해야 되지, 서류도 주지 않고 일거리도 주지 않고 '너 알아서 해!' 한다면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뭐뭐 사 가지고 와." 이래야 뭐뭐 뭐뭐를 사 가지고 오죠. "너 알아서 사 가지고 와." 한다면 그 사람이 뭐를 해 먹을 줄 알고, 입맛이 어떤 줄 알고 사 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기묘해서 마음 내는 거를 잘 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심봉이라면 그 심봉을 끼워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은 마음 내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심봉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잘 파악하셨습니까? 지금은 정신세계의 정신을 발전시켜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먼저 정신이 발전을 해야 물질도 발전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온다고 봅니다. 정신을 발전을 못 시킨다면 이 세상의 물질도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신계를 제일로 주장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을 깨달아야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나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가 없고, 일체 만물의 그 마음도 꿰뚫어 볼 수가 없느니라. 네 중생 하나 못 건지는 놈이 어떻게 남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겠느냐. 네 몸뚱이 속의 네 자생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고야 어찌 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하나하나 마음을 지혜롭게 써서 거기 놓고 굴리는 대로 이 몸속의 자생 중생들은 그 뜻을 받아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본래는 악업 선업에 의해서 그림자처럼 자기 영혼과 더불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마음 지도자가 자꾸자꾸 마음을, 어린애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땐 좀 안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은 해 나가시는데, 아주 까맣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내 영원의 생명, 그 근본 자체하고 마음 내는 거하고 육체가 움죽거리는 것이 같이 돌아가는 거를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움죽거리질 못 해도 무효고, 마음을 내지 못해도 목석이니 무효고, 또는 생명의 근본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빠져도 안 되죠. 밥을 짓고자 하면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물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쌀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작업은 바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는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정신적인 어버이시지만, 육체들은 바로 그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깨달으면 바로 곧 부처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이리로 쓸리고 저리로 쓸리지 마시고, 내 한마음 주장자로써 일체 만법을 손색없이 굴리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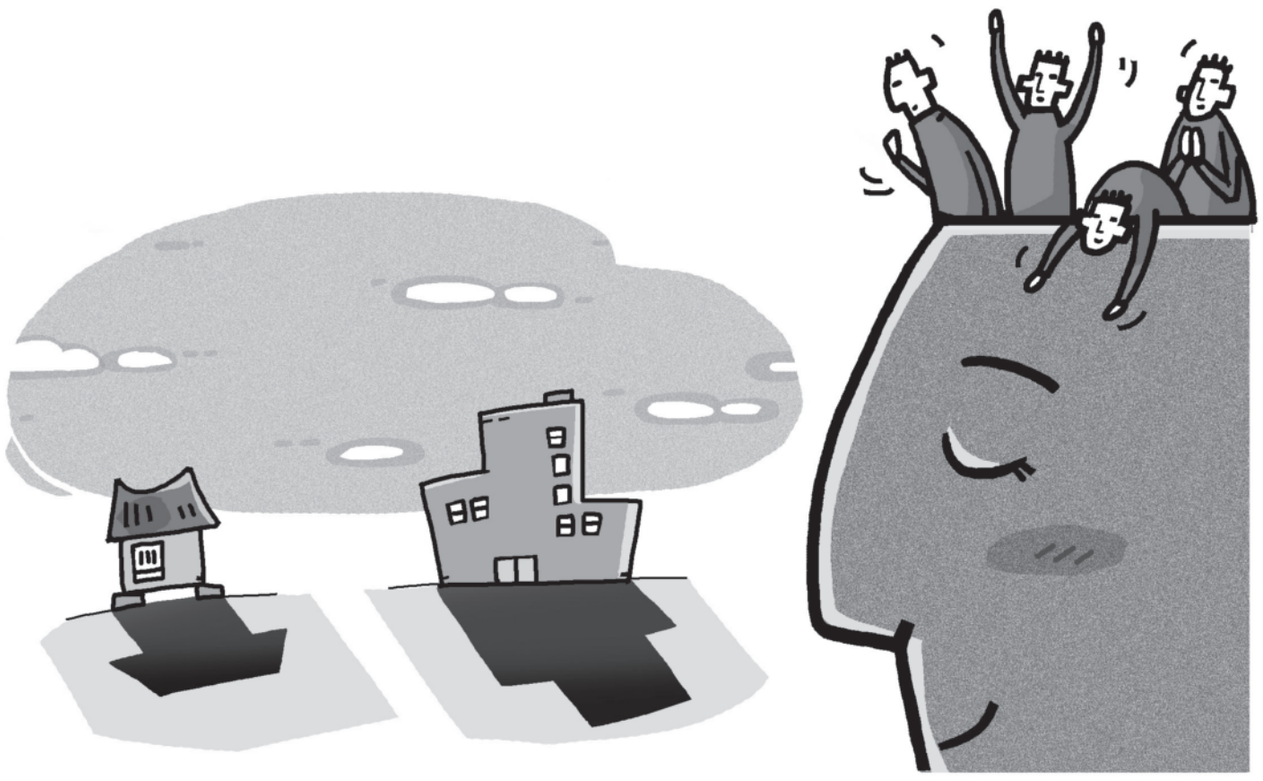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질문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학교도 안 보내고 돈 벌어 오라고 내몰았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게 한이 됐는지 지금은 결혼해서 그냥저냥 살고 있지만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연을 녹이고 효도를 좀 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

☞ A34면으로 계속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홀로계잘사

주지 봉암 도호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전화 02)814-5257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리암

사부대중일동

제1회대한민국전통문화사진공모전
'대상 이상민 보리암의 아침'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전화 055)862-6500, 6115

닥쳐오는 대로 일체 만법을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 A33면에서 계속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댁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나만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난 부모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미워하다가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이뻐하는 마음도 없다는데 댁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미움도 고움도 없었죠?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잖습니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 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인생 공부를 못 배워요. 남이 쓰린지 고운지 또는 아픈지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곱게 자란 사람보다 더한층 공부를 더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 새끼를 저 내리막에다가 내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습니까.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날 꽃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밉고 이쁘고 떠나서 무조건 부모예요.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뼈를 줬어요. 당신의 영혼은 거기에 부합이 돼서 삼합이 합쳐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세요, 이제. 모든 거를 맡겨 놓으시란 말입니다.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이 날 것입니다.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은 내 마음의 꽃입니다. 어머니, 꼭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딸 노릇을 꼭 할 겁니다." 그래야지, 밉도 곱도 않다는 게 어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그때 당시는 아마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십 곱절 아팠을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죠.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온 거예요. 바로 과거에 자기 산 대로 닥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병들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선 생각조차도 못 할 겁니다.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도. 자기 몸 막 굴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 하죠. 또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 할 땐 자기 집이 있으나 마나예요. 제도 못 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 인연들도 다 그냥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잘해 드리고 잘 입혀 드리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고 진짜 인간이 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식이 병상에 오래 있다 보니

질문 자식이 병상에 오래 있다 보니 제 몸도 마음도 자꾸 두렵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빨리 완쾌되기만을 관하고 있는데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겠죠?

답변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천으로 옮겨 가려면, 병고든지 가난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뭐든지, 그 용도에 따라 닥쳐오는 대로 일체 만법을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 어떻게 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참,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고 한 번 쳐다보고 웃고 한 번 내려다보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설로만 알아서 '큰스님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행하니깐 뭐, 물을 것도 없고 자실 것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빨리하겠다고 생각도 마시고요. 이것은 빨리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빨리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그냥, 시간도 공간도 없이 내가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죽게 됐대요. 죽게 된 것도 그렇지만 인체의 건은, 한마음 그 의식에 모두 달렸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정말 주인공 자성 부처로 인정을 해 준다면, 그 의식들이 그렇게 작용해서 건강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머슴도 존대를 해 주면서 인정을 해 준다면 자기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속에 있는 생명들한테 중생이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것들 그냥 모두, 세균 잡속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그런 생명체들을 우습게 보니까 '네가 우습게 보는데, 뭐.'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움죽거리는 거죠.

어린애를 자장자장 하니까 곰이 그것을 흉내 내서 자장자장 하다가 어린애를 죽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내서 오직 나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치가.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죠.

또 내 주인공과 자식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이 저렇더라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데, 뭐.' 그러고선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그 주인공까지 또 밝아지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행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적인 실험을 자꾸자꾸 해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 찰나가 바로 저승이고 한 찰나가 이승입니다.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서 한 찰나에 천당에 가고 한 찰나에 지옥에 가고, 한 찰나가 바로 이승이며, 이승의 천국이며 이승의 지옥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려도 말로는 100%를 꼬집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혹성에서도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질문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극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다른 혹성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을는지요.

답변 삼천대천세계가, 전 우주가 한 회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전부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럭하고 있지만 우린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구에 붙어서 사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붙어서 사는 벌레입니까? 하여튼 막말을 한다면 벌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 붙어서 사느냐. 우리는 그 속에서 진화돼서 우뚝 섰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질로 됐기 때문이죠. 물질로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부 상대성 원리로 '내가 뺏는다, 먹는다, 내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야지, 뺏어야지, 먹어야지' 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두 문제가 일어난 거죠. 지금 별성이나 저런 혹성들 이 자체를 본다면 전부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뺏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도 이 주인이 없으면 뺏깁니다.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또 자석이라고 하거나 자력이라고 하거나, 자력이 없으면 뺏기듯이 큰 자석이 여기 놓여 있다면 작은 쇳덩어리가 그저 스치기만 해도 그리로 붙어 버립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량 뺏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무한량 소멸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혹성 별성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인이 없다면 에너지는 소모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지구라는 데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에너지를 다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구의 수명은 길어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왜,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곳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그 옛날 소리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생명을 내놓는다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도리를 완전히 증득하고 난 뒤에는 모르지만 이 도리를 허명무스름하게 해 가지고는 그 잠자는 모든 걸 깨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잠자는 것을 깨운다면 서로 잡아먹을 테니까요. 진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진화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즉 말하자면 영혼이라는 것을 뺏어다가 막 살 테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남을 거란 말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멀고 가깝고가 없이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조금 갔지 않아?' , 허허허…, 이럴 수도 있죠. 갔다거나 말거나, 그저 난 누가 뭐래도 관여 안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다 해도 싱긋이 한 번 더 웃어 버리면 덜 늙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정체를 알고 싶다면,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정체를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잠자는 모두를 깨운다면, 어느 혹성에서나 생명들이 다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마 허다하게 나오겠죠. 뜨거워서 못 살고, 차서 못 살고, 얼어서 못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조절하기에 달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에너지를 나르는 데도 멀고 가깝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물질이라야 나르는 데 멀고 가까운 것이 있는 거지, 물질이 화해서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운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거 같습니까?

나무 껍데기 하나가 가공이 돼서 어떻게 종이가 됩니까? 그렇게 나무 껍데기로 옮기려면 힘이 드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옮기면 좋을 겁니다, 아마. 종이보다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또 있지요. 여러분이 임신을 하면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 아주 형체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게 딱 그냥 헤아릴 수도 없이 같이 몸속에서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수천 배 더 가벼운, 형체가 없는 것을 어느 혹성에 갖다가 뿌려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거를 찬 데다 갖다 놓으면 찬 거 녹으니 좋고….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워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냐는 문제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허황된 소리, 허황된 살림, 허황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팽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와 여러분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공부를 꼭 해서 앞으로 그 생명들을 건질 수 있어야죠. 이 도리를 모르는 그 생명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이 생명들, 중생들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서 악으로 내가 무엇을 훔치러 간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 줘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대로 또 따라 줘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지고 가야 보살로 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내 혹성에 들어 있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저 딴 혹성에 들어 있는 걸 해결하지요. 내 혹성의 해결도 못 하면서 남의 혹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수 국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전화 02)356-2001 / 팩스 02)359-6297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성남 봉국사

주지 혜 일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우13283)
전화 031)755-0329 팩스 031)722-3761
http://www.bongguksa.or.kr

奉祝隨想

비움의 삶이란

하림 스님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그림 · 최주현

은사 스님 모시며 다시 찾은 여유로움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이 나타나
혼란의 시기, 이제 우리도 내려놓을 때
반짝이는 아침 이슬 감사하며 살아가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 자주 나누는 인사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변화하고 혼돈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기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줄 글을 부탁받아 시작하고는 있지만 위로와 희망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려 한다.

요즘 내 주변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연로하신 은사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다. 스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일이다.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스님이 계신 2층에 가서 공양하시도록 모시고 내려온다. 때론 일어나 계실 때도 있고 다시 주무시고 계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린다. 한 시간이 넘게 더 주무실 때도 있다. 옆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겹거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간간이 고는 콧소리는 오히려 듣기 좋은 음악처럼 들린다. 공양이 식어가지만 스님의 시간은 온전히 스님에게 맞춰진다.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게 조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스님이 드시고 싶어 할 때가 공양 시간이고 주무시고 싶어 할 때가 잠자는 시간이다. 그래도 평소에는 8시 30분에 공양을 하셨는데 언젠가 부터는 더 늦어진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시간에 절에서 도량을 둘러보고 절 앞에 준비한 명상센터에서 문을 열고 차를 한 잔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한 달이 넘게 스님과 함께 아침 공양을 하느라 당연했던 일상을 놓치고 있다. 그런데도 왠지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다. 또,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시간에 쫓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다.

한 번은 은사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스님 계셔서 좋아요. 스님 모신다는 이유로 제가 일을 안 하고 쉬게 됩니다. 덕분에 몸도 마음도 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우리 종무원 식구들에게 이런 불평이 조금씩 들린다. "요즘, 스님하고 의논할 시간이 잘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짓는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던 과거와 온전히 은사 스님의 건강 챙기는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찰 운영이 더 잘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한 풀 죽어 오히려 편안해 보이듯이 내 삶이 한 숨 쉬고 있는 배추가 된 것 같이 오히려 편안하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가' 를 돌아보니 나는 어릴 적부터 늘 '남을 위해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어릴 적 절집 생활을 시작했고, 늘 신도들의 도움으로 살게 되니 그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이런 생각에 더 열심히 살고, 힘들어도 '이것이 잘 가고 있는거야' 라고 믿었다. 늘 신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편안하게 하고 신행생활을 편히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했다.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그 길을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 신세를 갚아야 해' 라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올가미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것은 분명 바른 것이지만, 지나치게 매달림으로서 정작 나는 힘들고 지치고 불편했던 것이다.

이제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균형을 잡을 때인 것 같다. 만약, 은사 스님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잠시 내려놓고 멈추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고 스스로도 살아가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요즘 우리 국민의 사정도 비슷하다. 한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목표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다. 먹고 사는 것 해결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앞으로, 앞으로만 급하게 빠르게 채찍질 하면서 달려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제는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됐다.

이제는 그 목표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좀 쉬면서 일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피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옮겨가야 할 때다. 나도 어릴 적부터 가졌던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는 생각과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한다' 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려고 한다. 나 혼자 붙들고 살았으니 혼자 내려놓으려 한다. 할 수 있었던 시기에 해야 할 만큼은 충분히 한 것 같다. 산꼭대기에 도달하면 오른 만큼 내려와야 하듯이 이제는 내려가는 시간을 즐기려고 한다.

성장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비우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조금 쉬어가더라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길은 좋은 추억들을 가슴에 남기고 다가올 미래는 희망을 담아도 될 만큼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을 스스로를 비우는 시간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바쁘게 뛰어온 만큼 잠시나마 가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 밤이 오면 쉬어가듯이 우리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선정됐다고 한다. 봄의 한가운데서 불을 밝힌 연등을 보며 스스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침이면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을 보며 기뻐하며 살아가자.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이기려고 살지 말고 여행 온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한 번 사는 세상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천천히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모든 것에 고맙고, 또 고맙다.

社說

국민과 함께 한 온라인 연등회

올해 연등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최초' 라는 수식어가 두 개나 추가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처음 열렸고, 역대 처음으로 온라인 연등회로 진행됐다. 각각의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유네스코 등재 이후 첫 연등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 불교계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지점임을 짚을 필요가 있다. 올해 연등회는 부처님오심을 축하하고 경탄하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는, 화룡점정의 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를 포기하고 연등회 본연의 의미를 살려 비대면 개최를 택했다.

그렇기에 올해 연등회의 의미 역시 찬찬히 되새겨 볼 만하다. 불교계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연등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키로 결단한 것은 대자비심의 발로다. 역사적인 순간, 불교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전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등회를 통해 유네스코 지정을 축하하고 규모를 키우기보다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기리는 행위, 즉 중생의 고통을 보듬는 가르침에 무게중심을 뒀다.

불교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해 산문폐쇄 등을 강행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연기하고 연등회까지도 취소한 전력이 있다.

불자들은 아쉬운 만큼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할 터다. 10만 연등의 물결은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가운데 모두의 마음 속에 연등이 장엄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마음 속 연등은 각기 서로가 자리한 곳에서 유의미하게 이어져, 결국엔 부처님 오신 진정한 의미를 더 넓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성전' 법공양, 십시일반 동참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종단본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단체 대표, 불교계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해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열었다.

〈화엄경〉에서는 "공양 중 으뜸은 법공양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열심히 수행하여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다양한 법공양이 있겠지만 팔만대장경 속 부처님 말씀 중 현대인에게 전할 가르침을 추린 조계종 최초 성전인 〈불교성전〉을 널리 알리는 것 만큼 수승한 법공양이 있을까.

참된 불공이란 개인의 수행 정진과 함께 중행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한 보살행을 의미한다. 타인의 수행을 독려하는 일 또한 보살행의 일종이다. 끊임없는 전법행이 바로 수행의 일환이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불교성전〉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다. 성전을 수지독송하는 문화형성과 이에 기반한 신행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공양 불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불교성전〉은 불자를 불자답게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소중한 인연들에게 〈불교성전〉 법공양을 올려 단단한 인연을 맺자. 〈불교성전〉을 이웃에게 권하여 수지 독송하게 하는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TEL 1670-2010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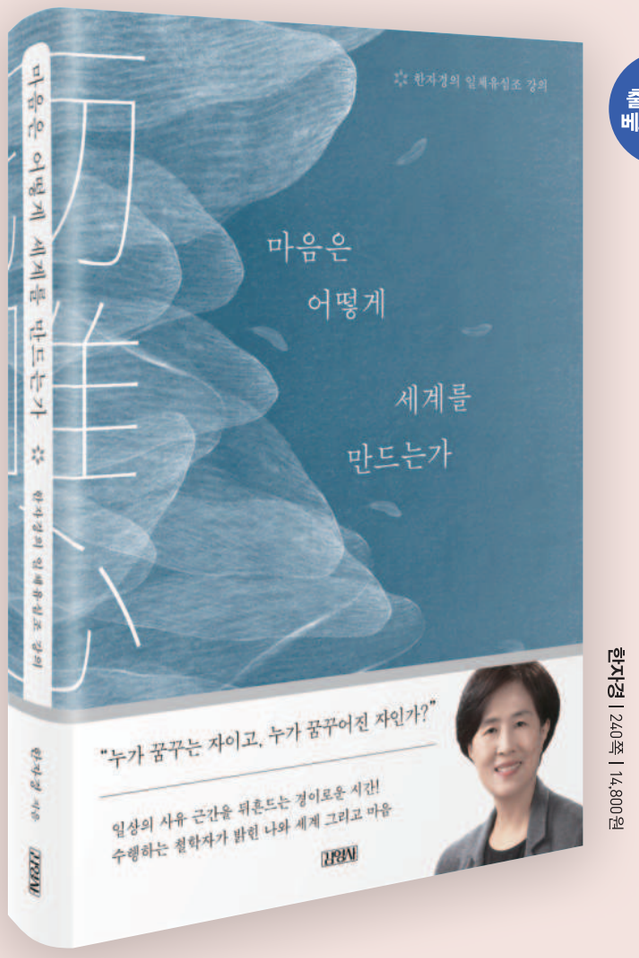
| 한자경의 일체유심조 강의 |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공' '연기' '수행' '일체유심조' '공적영지'로 나와 세계 그리고 마음의 실상을 밝힌 다섯 번의 명강의

나와 세계에 대한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닿게 되는 곳이 본래 마음자리다. 이 책은 그 길에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줄 것이다. 수불 스님 · 안국선원 선원장

전문적 학식을 대중적 열망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책은 모기 주둥이로 쇠를 뚫어온 독자들에게 뜻밖의 출구와 청량감을 선사할 것이다. 한형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한자경 | 240쪽 | 14,800원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40년이 넘도록 깊고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심층마음의 연구》(반야학술상), 《대승기신론 강해》(불교출판문화상대상),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원효학술상), 《불교의 무아론》(청송학술상), 《칸트와 초월철학》(서우철학상), 《실체의 연구》, 《성유식론 강해》 등이 있다.

본래 정해진 길, 그런 길은 없다 가면 열리는 길, 그런 길은 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법인 | 296쪽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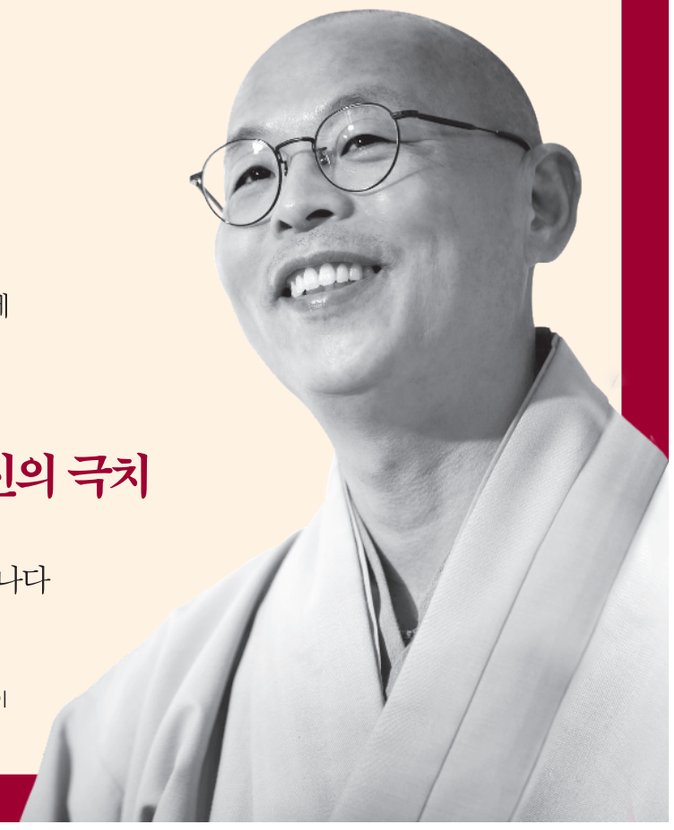
중심 中心

극단의 세상에서 나를 바로 세우다

법인은 설법하지 않는다. (…) 그러다 어느 대목에서 한마디 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괴로움으로 꽁꽁 뭉친 마음 한 귀퉁이를 죽비처럼 가격한다. 황지우 시인

46년 출가의 길에서 길어올린 인문정신의 극치

고집불통 같은 중심이 아닌, 받아들이며 단단해지는 중심!
소중한 가치를 지키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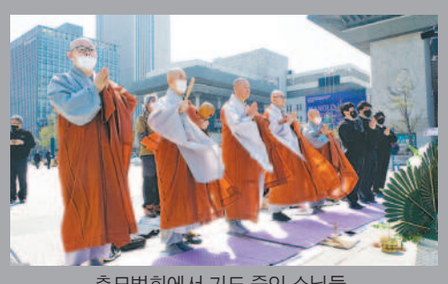
법인法忍 1976년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출가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0년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실상사 대안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며,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장으로 일상에서 깨달음이 빛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편견·차별 없는 평등사회가 곧 불국토



2600년 전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선언이었다. 사진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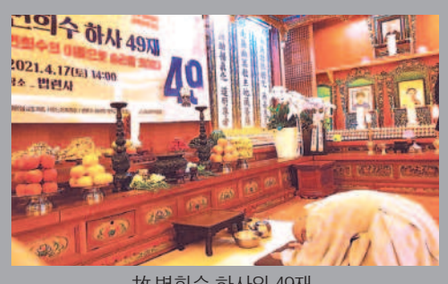
추모법회에서 기도 중인 스님들.



무연고 사망자 추모법회.



이주민차별금지 촉구 세미나



故 변희수 하사의 49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기도.

평등 일구는 사람들

지난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슈가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나 다시 고착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인종과 국적, 나이, 직업,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인 '평등'은 언제쯤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

2600년 전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번 기획의 주인공은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혐오를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극복하고 인식 개선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삶을 되짚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게 자리했던 편견과 차별을 인식하고,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로 모인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평등의 제도화는 물론, 어떤 누구도 차별로 고통 받지 않는 불국토가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편집자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세상에 던졌다. 카스트 제도로 인한 신분차별이 만연했던 당시의 인도에서 계급을 떠나 누구나 승단에 받아들이는 파격을 행했다.

부처님은 사람의 귀하고 천함은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승단 내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한 사람의 수행자였다. 부처님이 이끄는 승단에는 대부호와 귀족 뿐 아니라 천민과 거지, 장애인까지도 함께 공동체를 이뤘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비구승단보다 늦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당시 인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성이 아라한을 얻기 위해 가정을 떠나 독립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파격적이다. 부처님 재세시 인도사회의 여성인권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여성은 독립적으로는 카스트 제도에 편입되지 못했으며 인간으로 존중받기보다 후손과 가정 유지를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인식됐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여성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로부터 2600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이라는 화두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선천적 차별은 줄었지만 후천적이고 더욱 세부적인 곳곳에서 차별과 이로 인한 혐오가 드러나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발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는 것은, 제도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곧 부처님 가르침의 현대적 표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사회에 편견과 차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경우에 따라 선택적인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된 근거가 '동성애' 즉 성적지향·정체성 항목에 있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작 종교와 관련한 차별 항목을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종교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만 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표 차별금지법에 대해 '개신교계 눈치보기식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는 그동안 일부 개신교계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번번히 고배를 마신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19대 국회의원 51명이 김한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회기에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추가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일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10만 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게재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연대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단지 4만 부를 제작, 전국교회에 배포했고 결국 법안을 발의했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자진철회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역시 입법예고기간 동안 반대의견 7만여 건이 게재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대감은 있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차별금지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고무적인 수준으로 변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8.5%가 차별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셈이다. 이는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보다 일보 진전한 결과다. 같은 질문에 대해 당시 찬성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72.9%로 집계됐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성적지향·정체성' 항목에 대해서도 국민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인식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차별금지법' 이슈가 그 자체로 우리사회가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할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INSIDE

B1~7 봉축특집 평등 일구는 사람들
B12·13 봉축특집 기록으로 보는 '빛의 연등회'
B15 봉축특집 언택트 연등회 만드는 사람들
B21 봉축특집 포토절소리 아기부처님 오시는 소리
B23 봉축동화 우승미의 '지금 여기 너와 나'

2600년 전 평등사상 실천한 인류 스승

평등 일구는 사람들

가상인터뷰 부처님께 묻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의 일이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이 수행 중인 보리수나무를 지나다 질문을 던졌다.

"수행자여, 고귀한 바라문 중에서도 더욱 고귀하고 최고로 성스러운 바라문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했다.

"인간은 출생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라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보리수나무를 떠났다. 당시 인도사회에서 바라문은 온전히 출생으로 결정되는 귀족 계층이었다. 바라문에게서 태어나야 할 뿐 아니라, 7개에 걸쳐 순수한 바라문이어야 한다. 이 같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 바라문은 바라문과 혼인해야 하며 특히 바라문 여성은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남성과 결혼해선 안 됐다.

이는 인도의 사성계급 '카스트 제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브라만교는 사성계급이 선천전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믿었으며 힌두교는 영원불멸하는 영혼 '아트만'이 존재함에 따라 죽은 이후에도 윤회한다고 믿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사회가 엄격한 계급구조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핵심적인 토대가 됐다.

부처님이 시대를 뛰어넘은 진리를 전한 인류의 스승인 동시에, 혁명가로도 평가되는 이유는 이 같은 인도사회의 공고한 계급제도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고 인간 본질에 주목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신이나 인간에 의해 이뤄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로 이어질 뿐, 그 본질은 모두가 평등함을 설파했으며 이를 승단의 기반으로 삼아 스스로 행동으로 드러냈다.

부처님이 사왓띠 동쪽 문 밖 미가라마따 상당에 머무실 때의 일이다.

와셋타와 바라드와자라는 바라문 출신의 청년 두 명이 출가를 허가받고 수행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해질 무렵 부처님이 홀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본 두 청년은 부처님께 다가가 절을 올렸다.

부처님이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바라문 태생으로 바라문의 신분을 버리고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다른 바라문들이 그대들을 비웃지 않던가?"

와셋타가 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바라문이야말로 가장 밝고 청정한 계급이며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유일한 상속자임에도 너희는 어찌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범천의 다리에서 생겨난 비천한 사문이 되려하느냐' 라고 비난합니다."

"와셋타여. 바라문들은 태고적 옛일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어리석은 비난을 하였구나. 바라문 여인들도 다른 계급의 여인들과 똑같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 바라문을 낳고 길러낸다. 바라문 또한 다른 계급과 똑같이 여인의 자궁에서 태어나거늘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최상의 계급이라고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하며 공덕이 아닌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어 부처님은 당시 인도사회의 4계급인 왕족 끄샤트리아, 사제인 바라문, 평민인 바이샤, 노예인 수드라를 예로 들어 가르침을 전했다.

부처님 재세시 인도사회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 중심
빈부 · 지위고하 · 성별도
부처님 승단선 무의미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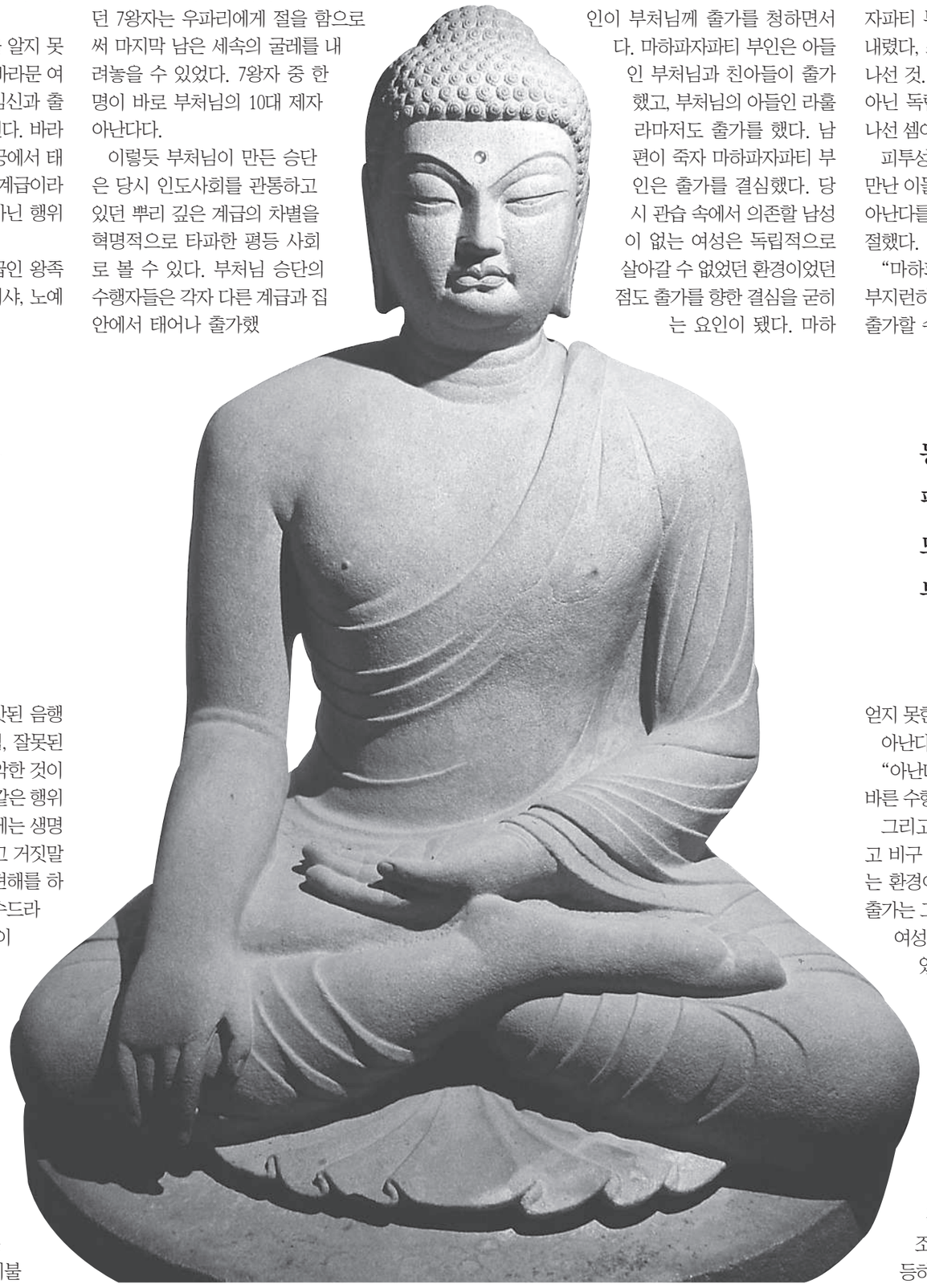
"끄샤뜨리아 중에는 생명을 해치고 삿된 음행을 하며 거짓말을 일삼으며 탐욕과 성냄,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악한 것이다. 바라문과 바이샤, 수드라 중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 반면 끄샤뜨리아 중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과 성냄과 잘못된 견해를 하지 않는 이가 있다. 바라문과 바이샤, 수드라 중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이가 있다. 이는 선한 행위이다. 네 종류 계급의 사람들은 이처럼 선한 행위를 하는 삶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한없이 뒤섞여 있다. 네 종류 계급의 사람들 중 누구라도 지극한 수행으로 번뇌를 소멸해 청정한 삶을 성취하고 올바르고 완전한 지혜를 얻어 해탈한다면 그를 일러 최상의 존재라 부른다."

계급구조를 탈피한 파격적인 일화는 적지않다.

석가족 7왕자들이 출가했다.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부트라 존자,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 계를 받았고 수행하던 중 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출가 당시 자신들의 머리를 삭발해 준 이발사 우파리다. 천민계급이자 왕자들의 수발을 들었던 우파리는 이미 집착의 끈은 놓은 채 수행력을 인정받는 스승의 한 사람이 돼 있었다. 7왕자가 머뭇거리던 차 부처님이 말했다. "우파리에게 절을 하라. 세상에는 4개의 큰 강이 있지만 바다에 가면 하나가 되듯이 세상에는 4개의 계급이 있지만 여래의 법 안에서는 하나로 평등하다."

출가를 했지만 관습의 끈을 놓지 못했던 7왕자는 우파리에게 절을 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세속의 굴레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7왕자 중 한 명이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아난다다.

이렇듯 부처님이 만든 승단은 당시 인도사회를 관통하고 있던 뿌리 깊은 계급의 차별을 혁명적으로 타파한 평등 사회로 볼 수 있다. 부처님 승단의 수행자들은 각자 다른 계급과 집안에서 태어나 출가했지만 모두 한결같이 '수행자'로 살아갔기 때문이다.



가장 차별받던 존재인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인도에서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남자에 의존해 존재하는 부차적인 존재였다. 당시 바라문이 아닌 계급도 학습에 의해 사문이 되는 경우가 소수 있었지만,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 사문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성 수행자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부처님께 출가를 청하면서다. 마하파자파티 부인은 아들인 부처님과 친아들이 출가했고,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마저도 출가를 했다. 남편이 죽자 마하파자파티 부인은 출가를 결심했다. 당시 관습 속에서 의존할 남성이 없는 여성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점도 출가를 향한 결심을 굳히는 요인이 됐다. 마하파자파티 부인 뿐 아니라 야소다라 공주를 비롯한 석가족의 많은 여성들이 출가를 원했다,

부처님은 여성들의 출가를 세 번 거절했다. 태생에 따른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 성차별은 당사자의 선택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부처님의 거절은 어찌보면 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여성의 출가 문제가 승단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여성들의 두 번째 출가 요청을 거절한 부처님은 가필라성을 떠나 바이샬리로 향했다. 마하파자파티 부인과 여성들은 확고한 의지로 결단을 내렸다, 스스로 머리를 삭발한 채 부처님을 따라 나선 것.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상황이 아닌 독립적인 의지에 따라 소위 '단체행동'에 나선 셈이다.

피투성이가 된 발에 삭발한 모습으로 아난다를 만난 이들은 재차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청했다. 아난다를 통해 이를 들은 부처님은 다시 한 번 거절했다.

"마하파자파티 부인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출가할 수 없다면 여성은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등한 수행자로 살아가
평등사회 구현의 본질은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어

아난다의 물음에 부처님이 답했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여성도 법에 귀의해서 바른 수행을 한다면 능히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성을 승단으로 받아들였고 비구 승단과 비구니 승단이 동등하게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당시 인도사회에서 여성의 출가는 그동안 남성에 의존하는 부차적인 존재인 여성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선언이었다.

계급을 타파하고 지위고하, 성별, 재물의 유무 등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가르침을 설파한 부처님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600년이 지난 한국사회에도 선천적인 차별, 후천적인 차별로 인한 편견, 혐오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바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진리다.



dongguk UNIVERSITY

희망과 치유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이 경주캠퍼스 총장 이영경 의료원장 채석래


서울캠퍼스 : 인류애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경주캠퍼스 : 참사람 역량 갖춘 미래인재 양성


의료원 :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전산원

평등 일구는 사람들

“장애인 잠재력 인정한다면 편견 없을 것”



이동한
한국사회복지협회장

글=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동한 한국사회복지협회장(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은 장애인 자립에 있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평등하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스스로에게 내재된 존엄과 가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장애인은 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 직업재활 · 자립사업을 처음으로 일궈냈고 장애인 고용의 새 장을 열었다. 국가 정책이 시혜적 수준에 멈춰있던 1980년대, 정책과 제도, 정부지원금 없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체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직업을 갖고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감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잠재력이 아주 많고 또 다양합니다.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맞춤식 직업을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사회 당당한 일꾼이 될 수 있지요.”

계량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이 근본적인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이 회장은 1987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설립했다. 제주도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장애인근로센터를 개원했다. 한 설비당 10명씩, 10개 공정만 운영해도 100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는 각기 개인의 자립 토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사업분야도 조경, 한복, 목공예, 귀금속공예 등으로 점차 확대됐으며 10개 분야에서 장애인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연계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후 34년의 세월이 지났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춘강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자립에 성공했고, 완전히 독립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자립할 수 있다는 이 회장의 확신이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

지금도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산하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세탁과 복사용지, 전산, 섬유 등 4개 품목, 직업재활어울림센터에서 된장과 양초, 꽃차를 주력 품목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들이 숙명적으로 가지게 되는 명제는 ‘홀로서기’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장애인 부모들의 명제 또한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장애를 가진 내 자식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걸어온 길에 있습니다. 우리사회, 그리고 장애인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자리한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죠.”

1987년에 복지법인 춘강 설립
30여년 간 장애인 자립 · 재활
뿌리깊은 화두인 ‘홀로서기’는
재능 발굴 · 교육으로 실현 돼

어려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은 안 팔리는 상황’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1997년 8월 춘강근로센터는 ‘2002년 월드컵 관련상품 생산 유망기업’ 16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유일했다. 1998년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00년 전국공예품대전 장려상을 수상, 2003년에는 제주도 관광민속공예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편견과 차별의 실체가 없음을 실력으로 증명한 셈이다.

장애인연계고용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구매제도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제정에도 힘을 쏟았다.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는 정부정책 속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돈만 지원하는 것은 퇴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장애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우리 정책이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선척적 · 후천적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장애인전문의료시설도 개원했다. 1994년 제주재활의원으로 문을 연 제주춘강의원은 장애인 전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건강 증진과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 회장은 2001년 국민훈장 석류장, 2008년 적십자 박애장 금장, 2012년 호암상 사회봉사부문, 2018년 아시아 필란트로피(philanthropy, 박애주의)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평등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신이 좀 불편다는 이유로 꿈을 이루는 것을 개인의 몫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평등의 종교이자 자비심의 종교입니다. 불자들만이라도 좀더 열린 시각으로 장애인들을 동등한 우리사회 도반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의 원력은 이제 제주와 한국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지족, 캄보디아, 케냐, 에티오피아의 장애인들을 위해 의수와 의족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장애인 자립과 편견 해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한편, 이동한 회장 역시 두 다리에 의족과 철심을 단 장애인이다.

훼불 사과로 종교평화 본질에 화두 던져

평등 일구는 사람들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글=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최근 5년간 불교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웃종교인 중 한 명이 바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다. 2016년 개운사 훼불사건 당시 개신교계를 대신해 불교계에 사과했고 개운사 복구 불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파면 무효소송을 제기한 그는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재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고충을 겪었다.

최근 법원은 손 교수의 재임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 교수가 강단에 서야 하는 정당성과 명분은 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지만 그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손원영 교수가 종교평화의 상징적 인물이 된 것은 이 과정이 비단 손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긴 투쟁의 출발점이 ‘훼불행위에 대한 사과’라는 점에서, 손 교수는 서로 다른 종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후 그는 종교평화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왜곡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훼불로 고통받던 불교계에는 기대를, 배타적인 일부 개신교계에는 불편함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 종교평화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일종의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종교를 교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긴 시간을 오히려 개신교계와 갈등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개인적으로 충격이고 상처였지만, 한국 개신교의 본질적 문제, 또 종교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오늘날 개신교의 현재 모습에 대해 묵직하면서도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 개신교 교단이 출범한지 5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한국 개신교의 부패와 퇴보는 과거 중세 가톨릭교회의 타락에 견줄 만큼 심각하다는 가슴 아픈 진단이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모습은 지금과 다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했으며 한국의 전통종교와 교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 선교사들이 수양회를 사찰에서 할 정도로 열린 자세였다면, 지금 일부 교회는 사찰에 가는 행위조차 불편해 합니다. 오히려 18~19세기 배타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퇴보한 셈이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에게 “누군가 잘못한 일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 지” 묻자 예수는 “일곱번씩 일흔번 용서하라”고 답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사실상 끝없는 용서를 상징한다.

2016년 개운사 훼불사건 사과
이후 서울 기독대 교수서 파면
“한국 교회 현 주소 점검 계기”
레페스포럼 등 종교교류 확대

손 교수는 “우연히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4년간 언론에 보도된 훼불사건을 정리한 논문을 봤는데 408회로 집계됐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불교계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훼불을 한 측과 이를 용서한 측 가운데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의 예언자 정신은 바로 프로테스트(Protests, 저항)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전통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점검하는 것 또한 종교인의 책무인 것이죠.”

종교평화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레페스 포럼이 대표적이다. 기독교 학자와 불교 학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확대되면서 레페스 심포지엄을 개최해 자료집을 정리한 책 〈종교안에서 종교를 넘어〉(2017, 모시는사람들)와 〈지속적 폭력과 간헐적 평화_그 역전을 위한 종교적 대화〉(2020. 모시는사람들)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일본에서 레페스포럼의 확대 조직인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도 열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종교평화 움직임이 아시아권역으로 확대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레페스포럼의 폭넓은 활동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 시작 역시 개운사 훼불사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주지였던 천은 스님이 “사찰 복구는 우리 힘으로 할 테니 이 돈은 종교간 이해를 넓히고 종교평화를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레페스 포럼의 정체성을 종교간 교류와 대화에 두고 있는 이유다.

손 교수가 운영하는 한국영성예술협회도 올해 산하기구로 종교평화원을 신설했다. 예술과 학문을 통해 종교간 이해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교류의 또 다른 창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훼불로 상징되는 여러 종교갈등은 사실 서로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이 중요합니다. 종립학교 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서 올바른 종교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계룡사

"소원이 이루어 지는 절"

주지 선암스님

신도회일동

경남 거제시 계룡로 7길 24
전화 055)635-3248 팩스 055)636-3977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 수담인해

신도회장 보현화

경남 김해시 분성로3번길235
전화 055)327-2601 팩스 055)328-2601



대한불교조계종

진주 호국사

주지 적민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남강로626-71
전화 055)741-4394 팩스055)746-4394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원사

주지 태여 덕원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합장

신도회일동

회장 무량수합장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서대로 2240번길 708
전화 055)863-3095 팩스 055)863-3096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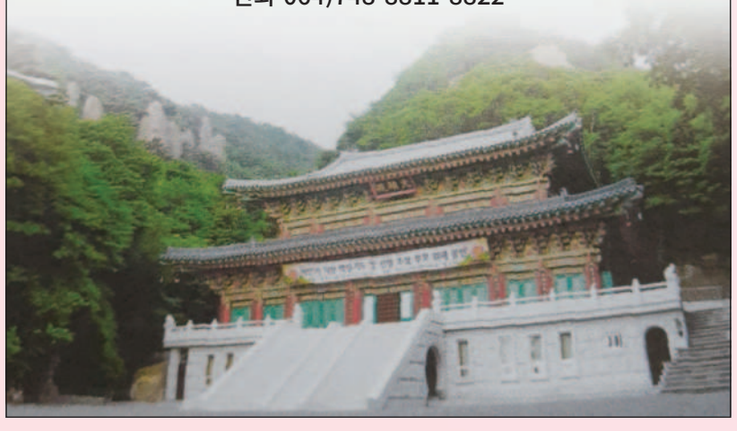
한국불교조계종

한라산 천왕사

조실 월서
주지 지오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노형동)
전화 064)748-8811-8822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장 김종인, 손경례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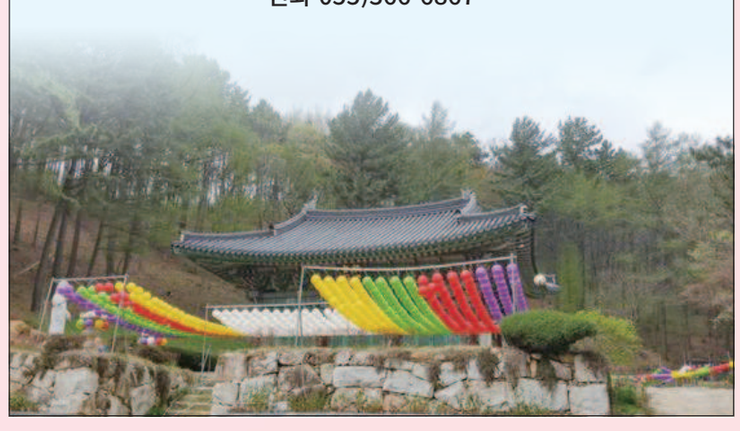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정종사

주지 여해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장흥4길30
전화 055)366-6867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창녕 청련사

주 지 청산무영
총무스님 성휴
신도회장 이판암
총 무 하보경화



경남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
전화 055)521-2185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전화 055)262-0108~10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수선정사

주지 지공 (성일)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서8길 270
전화 055)248-4135 팩스 055)242-3470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안국사 등명불교대학생 일동 합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794-7
전화 055)255-1080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고금당선원 선덕 항결선사외 사부대중 일동

부 주 지 정우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도선 교 무 국 장 혜림 재무국장 덕암
사회국장 함흥 호 법 국 장 등화 포교국장 성민

산하기관 안내

선재어린이집 054) 855-6033
풍기어린이집 054)636-801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054)841-2324
의성군노인복지관 054)861-1377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855-7801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054)841-2324
안계노인복지관 054)862-7900
봉현어린이집 054)637-5179
연꽃어린이집 054)673-09108
영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054)633-6414
고운실버노인요양원 054)833-590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4)634-325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633-6415
최치원문화관 054)834-8200
의성지역재활센터 054)833-1225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대종사 정강성웅
주 지 종호

사부대중일동

- 영산회 괘불도 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 범패 최초 전래지
-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 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전화 054)534-633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지원장 청 보
총 무 청 훈

사부대중일동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 마음에도 꽃을 피운다.

황토방 템플스테이 운영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전화 054)555-8871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주지 호 성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평등 일구는 사람들

"부처님 승단은 성소수자에도 열려 있었죠"



효록 스님
성소수자불자모임 지도법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효록 스님은 심리상담 전문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슈퍼바이저, 한국불교상담학회 수퍼바이저 및 이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굵직굵직한 직함도 갖고 있는 자타공인 전문가다. 그러나 정작 상담가보다는 성소수자불자모임의 지도법사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효록 스님은 "사실 성소수자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불교공부를 하던 중 인연이 닿아 지도법사로 활동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많은 스님들이 여러 분야의 모임에서 지도법사 소임을 맡아 법문하고 소통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여러 언론에서 스님을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단순한 지도법사의 역할을 넘어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근원으로 들어가 성소수자 문제에 무지했던 불교계에 화두를 던진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2016년 효록 스님이 발표한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불교(불교사회연구소)' 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본 유의미한 기초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성소수자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고통과 상황을 심층조사했고, 우리사회와 종교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들이 불교에 거는 기대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효록 스님이 불교계 성소수자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된 이유는 오랜세월 동안 성소수자에게 무관심했고 또 무지했던 불교계에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던졌기 때문이다.

스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불교계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퀴어축제' 에 부스를 마련하고 무지개 연꽃 부채와 오색실을 나눠주는가 하면 성소수자 부모를 초청해 법회도 열었다. 단발성이란 아쉬움은 있지만, 이 같은 변화는 점차 무르익어 '차별금지법 제정' 과 관련한 대사회적 현안에서 조계종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스님이 2015년부터 인연을 맺어 온 성소수자불자모임의 명칭은 '불반' 이다. 불반은 '불교이반' 의 줄임말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일반' 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 '이반' 이라고 칭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반' 이라는 표현이 참 아프죠. 사실 저 역시도 이들의 고통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하고 공감할 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치유해 주고 싶은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을 뿐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성소수자 실질적 고통드러낸
논문 발표해 '종교 역할' 주목
제도적 차별도 편견서 비롯해
부처님안목 · 가르침 되새겨야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스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스님은 "생목숨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 앗아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의 죽음에 이어 벌어진 참사였다는 점에서 더 그랬다.

효록 스님은 "부처님 당시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확신의 이유는 율장이다. 율장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필요에 따라 제정돼 온 불교 교단의 계율을 집대성한 문헌으로, 스님은 최근 초기불교 율장 속 성소수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분석해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수행생활' 논문을 발표했다.

스님에 따르면 율장 속 성(sex)과 관련한 대목은 2000여 건 가량이다. 이 중 540건 가량이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미 부처님 재세시에 승단 내에 성소수자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남자의 몸으로 출가해 비구승단에 있던 한 수행자가 여자로 됐다는 얘기를 부처님께 고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냐. 그렇다면 비구니 승단으로 가서 비구니 은사를 모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 故 변희수 하사가 오늘날 군대가 아니라 부처님 당시 승단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일인 셈이죠."

효록 스님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에 그 다양성 속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아시고 가르침을 주셨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처님의 안목을 이제야 확인하고 나니 범부인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부처님 제자인 우리 불교계라도 앞장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무관심 혹은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율장을 통해 부처님이 성소수자를 얼마나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안다면 금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문제에 불교계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스님은 "스님들과 불자들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이를 우리사회에 알려나가는 노력이 좀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은 편견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어 · 모습 달라도 존귀함은 같죠"

평등 일구는 사람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던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산업현장에서 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같은 공장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일은 이주노동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까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담마끼띠 스님(아산 마하위하라 주지)은 재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편견과 차별이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이 같은 스님의 우려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은 한국인의 6배, 산재로 인한 사망은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이주노동자 산재사고는 매해 7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근무나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지난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위로 사망한 캄보디아 故 속행 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496곳의 주거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70% 상당이 사업주가 제공한 비닐하우스나 조립식패널,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었다.

담마끼띠 스님은 "아프거나 다친 스리랑카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겪어봤다"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출신인 담마끼띠 스님은 외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이다. 2016년 한국국적을 취득해 귀화했기 때문이다. 2007년 대승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스님은 이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를, 동국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서 거주한 세월만 10년이 훌쩍 넘고 한글 · 한국어 실력도 수준급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님은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곤 한다.

2019년 마하위하라 사원 건립불사 당시 이로 인해 고충도 겪었다. 평택 마하위하라 사원을 아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부지를 매입해 스리랑카 전통방식의 사원을 건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 것.

아산시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개원법회를 하는 순간까지 불편한 시선은 이어졌다. 당시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조건은 △신도들이 목적 없이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다 등이었다. 명백히 이주민을 향한 편견에서 비롯된 조건들이다.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
산업재해 사망비율도 높아
한국국적 취득한 이후에도
사원건립시엔 편견에 직면

그토록 강경했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의 편견이 사라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큰 행사를 열지 못하게 행사 인원수도 제한하고 신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들이셨는데, 이제는 사원에도 찾아오시고 마을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 받아주세요. 마하위하라 사원은 애초부터 스리랑카 불자들과 한국 불자들 모두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사회와도 함께하는 사찰로 운영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막막했죠.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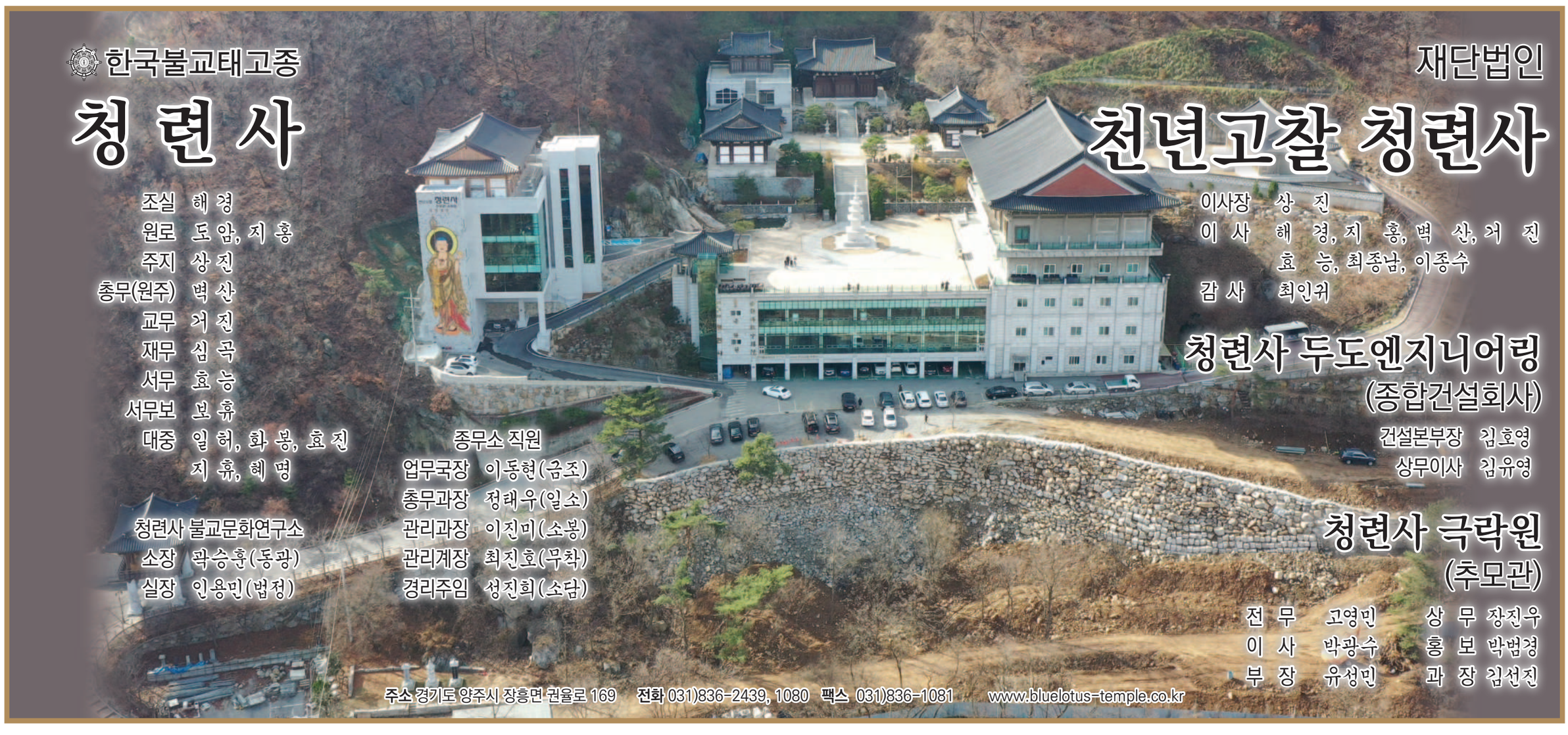
담마끼띠 스님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이해' 와 '소통' 을 꼽는 이유다. 스님은 "어찌보면 대부분의 편견들은 낯설음 혹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부를 위해 한국에 온 스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스리랑카 사원까지 건립하게 된 연유도 어찌보면 이주민을 향한 한국사회의 편견에서 출발했다. 어느 지역에 있든 스님을 중심으로 스리랑카 불자들이 모여 법회를 보면서 자연스레 모임이 만들어졌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 스님은 개개인을 위한 도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에 스리랑카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편견 역시 서서히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확신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스님은 '사단법인 마하위하라' 를 출범했다. 마하위하라 사원을 토대로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불자들의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사장인 스님을 제외한 이사진은 모두 한국인이다. 담마끼띠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는 가르침을 남기셨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을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마끼띠 스님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연기적 사유로 평등사회 일군 불교 되길”

평등 일구는 사람들

지몽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추구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살을 꿈꾸지 않는 사회이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르다고 해서 외면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바로 불국토죠. 너무 이상적인가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포괄적이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는 물론이고 인권과 동물생명권(살처분 문제), 한반도 평화, 위안부 문제, 이주민, 무연고사망자, 세월호, 성소수자 문제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 오고 있다. 매주 최소 1회 이상 현장활동이 이어지며 각 사안별 연대회의까지 포함하면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종령기구다. 종단의 대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와도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토록 많은 분야와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위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의 답은 명확했다. 우리 사회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 스님은 “우리사회에 숱한 분쟁과 갈등, 차별에 대해 이미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 ‘연기적 사유’ 죠. 너와 나를, 고용자와 사용자를,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수많은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사회의 고통을 만들어 냅니다. 연기적 사유로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것이 불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사회노동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과 불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예요.”

지몽 스님은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처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는 것. 부처님은 평등정신에 입각해 재세시 직접 평등을 실현하셨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차별금지법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우리 사회가 배려와 존중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이라며 “법 제정은 인성 · 도덕적 인간의 지표를 제시해 의식의 전환과 확장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약자나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으며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23개 항목으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려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 결국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골자인 셈이다. 지몽 스님이 차별금지법과 부처님 가르침이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는 지점이다.

인권 · 노동서 동물권 까지
사회 전분야서 폭넓은 활동
궁극적인 목적은 평등 사회
차별없는 세상이 곧 불국토

일부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의 항목 중 하나인 성적 지향 · 정체성을 문제삼으면서 성소수자 문제가 일종의 타겟이 된 점에 대한 안타까움도 밝혔다.

스님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성소수자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바른 시각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 자체로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는 이유”라고 탄식했다.

단적인 예가 ‘남자 며느리’ ‘에이즈’ 등의 자극적인 문구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집회에 필수로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정작 차별금지법 제정이 남자며느리와 에이즈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몽 스님은 2017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사회노동위원장 소임을 맡았다. 전체 사회노동위원 가운데 현장활동 최다 참석률로 꼽히는 만큼 매순간 수행자로서 직면하는 고민도 적지 않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스님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인정하는 법이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故 변희수 하사의 49재를 지내면서 편견에서 비롯된 사회적 혐오는 한 사람의 생존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故 변희수 하사는 트렌스젠더로서 군대에 남으려 했지만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실제 차별금지법 이슈 이후 일부 반대세력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수위는 심각한 정도로 평가된다.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나 기도회에 성소수자분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집회가 인근에서 열리는 날이면 성소수자를 향해 확성기로 쏟아지는 혐오와 차별 발언들이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 본질은 없고 혐오만 남아 참담할 정도”라며 “성소수자 이전에 인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법제화를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점도 우리사회의 슬픈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지몽 스님의 고민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뛰어든 길인만큼,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오체투지, 기도회는 물론 49재와 추모재 등 불교적 방식을 선택한 것도,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종교적 치유 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은 “지금 사회노동위원회가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좀더 본질적인 문제, 불교의 연기적 사유와 평등사상을 현대인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인식의 전환은 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실천적 토대는 스님 스스로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봤다. 스님은 2017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사회노동위원장 소임을 맡았다.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노동위원 가운데 현장활동 최다 참석률로 꼽히는 만큼 매순간 수행자로서 직면하는 고민도 적지 않았다.

“사실 승복을 입고 사회현장에서 마이크를 드는 일은 대단히 낯설죠. 대중 뿐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명확한 목적과 사회의식,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이론적 확신이 없다면 수행자로서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현장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현을 추구하는 확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는 믿음도 중요하죠.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기적 사유’가 주요 해법
차별금지법도 불법 그 자체
부처님 가르침 현실화 해야
중생고통치유 위해 나설 것

오랜 고민 끝에 스님은 본질적인 해답은 ‘연기적 사유’의 확산에 있다고 봤다. 그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과 교육이다.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만이라도 자타불이(自他不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매순간 연기적 사유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며 확산된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받으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 믿어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이 부당함을 알고 변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도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대일** (여여사)

강서구 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엄회

회장 상화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중명대범주 명해(소림사)
고 문 대원(금불사) 도문(전등사)
월봉(효자암) 월강(금어사)
혜성(금강사) 자관(자비암)
직전회장 효문(효심사)
회 장 용하(용문사)
자 문 혜민(천불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취산(무량선원)
범관(몽불사)
감 사 무상(미타사) 정호(해동암)
사무총장 범천(무량사)
재무국장 성화(용와사)
홍보국장 지훈(영주암)
포교국장 법광(무량정사)
문화국장 혜륜(혜륜정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21 용문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현각 (서림사), 만일 (미륵암)
회 장 법인 (약천사)
부 회 장 혜원 (성불사), 승공 (칠보사)
총무국장 송우 (해장암)
포교국장 자은 (성불사)
조직국장 보성 (무학사)
감 사 선혜 (대부암)
회 원 서천 (미륵암), 정홍 (용주암)
지화 (감로암) 지효 (남원정사)외 회원일동

사하구 불교신도연합회 회원 일동

사하 사암 무료급식소

약천사, 성불사,대부암, 길상사, 해장암,
무학사,칠보사, 용주암, 감로암, 이경애 외 10명

▷ 운영시간 : 매주 월, 화 오전 9시
▷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4-08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차 한잔하듯 나누는 스님과의 고민 문답
36개의 일상적 고민, 36개의 부처님 해답



YouTube 불교 바로보기TV 검색하세요.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전화 051) 742-7610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림**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CM 명상상담센터
CLEARMIND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 청량사

이사장 **보 혜**
후원회장 **정용권**
회 장 **정다금**

기장차문화대학 학장 **이원숙**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원영애**
청량선차문화원 **장외숙**
기장꽃차문화원 **이숙자**
외 임원진 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KUmuda
복합문화공간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옥상 바다법당(기도 및 명상공간), 옥상정원
8F 스위트
7F 쿠무다스테이 스탠다드
6F 스탠다드
5F 문화교육센터, 프론트, 인터넷방송국
4F 퓨전 레스토랑
3F 프렌치 레스토랑
2F Cafe KUmuda, 갤러리
1F 주차장 휴게시설
B1 문화예술 공연시설(220석 규모)
B2 KUmuda 사무국, 베이커리 교육공간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62
Tel. 051-701-7559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강암

주지 **향 공**

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 강(옥천사)
혜 지(낙은사)
경 호(법성사)
성 비(영수암)
자문위원장 혜 산(봉덕사)

회 장 성 문(선광사)
수석부회 성 림(관음사)
부 회 장 지 관(약수암)
대 둔(용운사)
무 문(옥천사)
범 일(운수사)
총무국장 법 경(광명사)
포교국장 은 적(관음사)
사회국장 향 공(견강암)
감 사 자 륜(낙은사)

사상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심인택
신도부회장 전수택
신도회봉사회장 박유진

사상구불교연합회
연합신도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선광사) Tel. 051)303-4848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영제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연산 원타
부 회 장 지명 지원
원상 정사
지명 지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선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월륜 춘제, 석만 도관, 무심 법지, 승호 원종, 법담, 안국, 원여 도경, 우당 무무, 보문 효진, 상보, 지공, 덕난 무애, 은좌 보현, 지연 보안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지원장 김수현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광명사

주 지 춘 광
신도회장 이창욱

사부대중 일동

법화산림대법회 : 매월 1주·3주 (일) 저녁 9시
정기법회 : 매월 2주 (일) 오전 11시
특별법회 : 매월 4주 (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1 전화051)581-1331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부모 몰래 집안에서 낳은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버린 10대 산모
2020년 2월 24일

부산 수영구 한 교회 주차장에서
생후 하루 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2020년 2월 30일

부산 사하구 아파트 배전함에서 숨진 영아 발견
2021년 4월 23일

부처님의 자비로 소중한 생명들이 지켜지길 기원합니다.
후원계좌 : 부산은행 113-2010-2662-04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선원
경산 삼성사

주지 평중 효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목요시민선방 오후7시
  금요자비참법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금토 다라니기도 오후7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8번길 12-2 전화 051)851-3355
경상북도 경산시 상대로 423 전화 053)856-1110

선명서화 갤러리법당

을파소관음사



주 지
운 곡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65번길15
(구서2 치안센터 옆 파리바게트 4층)
운곡스님 010-2458-0860

약 수 사

주 지 혜 우
신도회장 김미자
총 무 김정녀

자비회 회원 일동



부산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
TEL 051)291-9681

부처님 꽃비 내리는

봉래산 용석사

주지 일 공
원주 정 현

신도일동



주소 부산 영도구 청학서로 73-3
전화 010-3601-8201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 슬 산 **대 견 사**

주 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전화 053)746-0020

대한불교조계종

극락도량 **약 천 사**

무료시설 **포산승가원**

사부대중 일동



전화 064-738-5000 팩스 064-738-5022
www.yakch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 지 **종 천**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 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종화 도진**
교 법 사 **문수**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김 원 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신도회

신 도 회 장 **이근재**
수석부회장 **김영섭, 이정희**

부 회 장 **김동현, 김기운, 하유호, 한덕남**
채규수, 나유인, 박두섭, 최병헌
홍영옥, 조영석, 박춘열, 안준아
김용수, 남궁선, 이혁진, 송재면
(무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전화 063)277-3497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참좋은 우리절

주 지 **회 일**

(사)착한벗들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96-154 (삼천동3가 31-8)
전화 063)236-6633

대한불교원효종

성황산 **미 타 사**

주 지 **경 오**

신도회일동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수성동)
전화 063)533-1373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생명나눔 문화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 은 사

주지 **도 제**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전화 062)954-440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법 공**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무 진**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지 **무 안**

사부대중일동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종무소 061)374-0660, www.unjusa.kr
템플스테이 010-5850-0661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기록으로 본 '연등회'

코로나19 유행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바꿨다. 이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에는 취소됐지만, 올해에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연등회'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내년에는 거리에 화려한 장엄등과 오색 연등 물결이 다시 일렁이길 바라며, 연등회 화보 대신 연등회 1000년의 역사 기록을 올해 봉축 특집으로 조명했다. **편집자 주**



〈삼국사기〉 '신라본기' 〈고려사〉 '세가' 〈고려사〉 '열전'

〈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 11에는 48대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임금이 환용사에서 간등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권2 '세가' 2에는 고려시대 연등회에 대한 첫 기록이 남겨졌다. 당시 태조는 부처님을 섬기는 축전인 연등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4월 초파일 연등회에 대한 첫 기록은 〈고려사〉권122 '열전' 35의 의종20년(1166) 백선연에서다. 백선연이 4월 초파일 별원에서 점등했으며, 왕이 등을 보러왔다고 기록됐다.



석가여래경축회

일제강점기인 1925년 촬영된 부처님오신날의 풍경이다. 당시 한국민속학을 연구했던 무라야마 지준(1891~1968)이 촬영한 것이다. 4월 초파일 '석가여래경축회'라는 깃발과 그 앞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기둥이 있다. 그 뒤로 처마 끝에 이어져서 달린 수십 개의 등이 보인다.



1975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한 신문 지면. (대한불교 1월 19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이후 동국대에서 열린 첫 연등법회의 모습.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인증서. 2020년 12월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인증서다.



연등회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며 발급됐다.

기록으로 본 '연등회'

연등회는 통일신라 경문왕 6년에 그 기원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 후 고려시대에서는 왕실과 민간에서 활발하게 봉행됐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서는 왕실 연등회는 전면 폐지됐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연등회가 열렸다. 민중과 함께한 연등회는 지금까지 잘 전승되고 있다. 국가, 인종, 나이, 성별을 초월한 무형유산인 연등회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Lotus Lantern

통일신라

경문왕 6년(866) 상원연등회 시행

진성여왕 4년(890) 상원연등회 시행

고려

성종 6년(987) 상원연등회 폐지

현종 원년(1010) 윤2월 청주 행궁서 2월 연등회

의종 2년(1147) 2월 인종 기월로 정월 보름으로 변경후 항식으로 삼다

의종 20년(1166) 백선연, 4월초파일 점등

고종 32년(1245) 4월초파일 연등회 기록

원종 12년(1271) 4월 초파일 관등 풍속 기록

조선

조선 태종 14년(1414) 상원연등회, 수륙재로 통합

조선 태종 15년(1415) 상원연등회 · 초파일 연등회 폐지

세종 5년(1423) 관내 연등 폐지 전지

세종 10년(1428) 4월초파일에 연등으로 구복하는 풍습 기록. 이후 연등회 기록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연등회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음.

현대

1975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진복사 관등

석정 이정직(1841~1910)이 진복사의 관등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사각등을 들고 등불을 밝히려는 모습, 등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사찰 주변으로는 긴 초롱등으로 보이는 수많은 등이 달려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조선 말기 사찰의 관등 장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개성 초파일 풍경

민속학자 석남 송석하(1904~1948)가 수집한 사진 자료다. 개성의 초파일 모습으로 연등이 걸린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부터 화려한 장엄등의 시대가 열렸다. 2016년 연등행렬의 모습.



2007년 한마음선원의 제등행렬 모습. 화려한 장엄등 사이로 태권V 장엄등이 눈길을 끈다.



연등회 장엄등은 당시 인기있는 캐릭터도 소재로 활용됐다. 2010년 선보인 '뽀롱뽀롱 뽀로로' 장엄등.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智異山 華嚴寺
조실 금성 명선 대종사
문장 은산 종국
회주 송천 종열
주지 초암 덕문
신도회 &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 무 소 | 061)783-7600
기도접수처 | 061)782-0011
www.hwaeomsa.com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전화 010-6562-4742 www.hyangiram.or.kr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호 국 사

주 지 **동 천**

담양 죽녹원 방생사찰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5
전화 061)383-62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전화 062)227-7295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신흥중1길 39
전화 061)723-3161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 암**

종도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
전화 061)644-7273

녹 야 선 원

주지 **아 도**

신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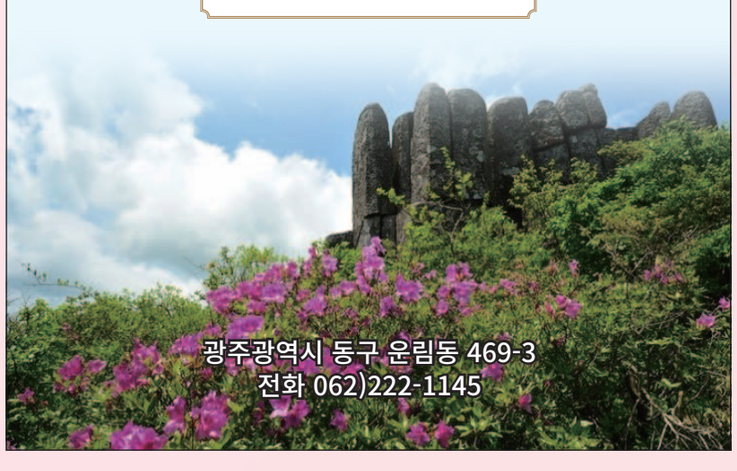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68, 2층
전화 062)365-0108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연등회보존위원회는 5월 11일 연등회 참가단체 실무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홍선영 행정관이 스님과 일선 실무자들에게 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구룡사 총무 성륜 스님이 줌 화면을 조정하고 있다.



단체 실무자가 줌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모습.

‘언택트 연등회’ 성공위한 고군분투

[현장] 온라인 연등회 만든 사람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 홈페이지에 처음 구현된 온라인 연등행렬.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사상 최초로 ‘언택트 연등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연등회도 변화한 것이다.

사상 초유의 ‘언택트 연등회’는 연등회보존위원회부터 일선 사찰, 종립학교, 포교 · 신도단체들의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이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진행된 ‘연등회 참가단체 실무자 전체회의’였다.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전체회의는 종단, 사찰, 종립학교, 승가교육기관 등 연등회 참여단체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해 ‘언택트 연등회’를 미리 리허설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과 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만든 등이 의미가 있음을 알고 정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등불로 중생을 위해 오신 부처님 뜻을 알리고 우리의 화합된 모습으로 세계가 한 생명임을 일깨워주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회의의 시작은 연등회 참가자 발원문 낭독이 알렸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중생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오신 뜻을 찬탄하기 위한 연등회를 제대로 준비해 진행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졌다.

연등회보존위원회 부집행위원장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언택트 연등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오심 스님은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올해까지도 진정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연등회를 봉행하게 됐다.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식은 줌(ZOOM)으로 진행한다”면서 “오늘 모이신 실무진들은 언택트 · 온라인 연등회라는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국불교의 무형 자산은 무궁무진하다. 이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라면서 “언택트 연등회를 통해 연등회가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5월 15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법회 · 등재 기념식 · 제등행렬에 대한 전체 상황에 대한 설명과 줌 사용방식에 대한 안내 등이 이뤄졌다. 특히 행사 성패를 좌우하는 줌 사용방식 숙지를 위한 사부대중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줌 주소는 일반인에게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다. 사찰, 단체 참가자들만 들어오셔야 해요. 일반인 참여는 유튜브로 독려해주세요. 개인 참가자로 이름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단체 이름으로 변경하세요.”

상대적으로 중앙승가대, 구룡사 등 비대면 강의, 법회가 일상인 사찰과 단체는 줌을 능숙하게 다룬 반면, 중소사찰이나 외국인 법당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왕좌왕하는 참가단체 실무자에게는 연등회보존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1:1로 가르쳐줬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낯선 사찰과 단체에는 연등회 당일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직원 파견을 지원키로 했다.

‘ZOOM’ 이용한 첫 연등회
온라인 연등행렬 동참 당부
조작 미숙 단체위해 파견도
“향후 온오프 조화 연등회로”

줌 사용법 숙지가 끝나자 본격적인 연등법회 리허설이 시작됐다. 시작에 앞서 유의사항이 공지됐다.

“줌 카메라가 꺼지기 때문에 카톡은 사용 금지입니다. 전화는 사용할 수 있지만 되도록 삼가주십시오. 음성은 소거할 예정이고, 대화는 줌 채팅창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화면 편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메인 줌 화면은 98개 화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참여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사찰 · 단체당 화면 2개입니다. 비율은 가로화면이고요. 줌 카메라 응시 방향은 중앙으로 해주세요! 1번 화면은 스님, 2번 화면은 신도입니다. 한 화면 당 3인을 기준으로 하되 신도들이 나오는 화면은 사찰 · 단체 화면에 맞춰 대중이 모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국장 원묵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리허설은 실제와 같이 진행됐다. 참여 대중들은 스님에 사회에 따라 지급된 카드 섹션과 연등을 흔들며 예비 언택트 연등회를 즐겼다.

‘온라인 연등행렬’에 대한 참가 독려도 이뤄졌다. ‘온라인 연등행렬’은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코로나19시대 맞춰 선보인 것으로 도심을 오색 연등으로 수놓는 대규모 연등행렬을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를 통해 구현했다. 장엄등과 연등행렬은 2D 일러스트로 재현됐으며, 흥겨운 연등행렬곡도 함께 들을 수 있다.

박상희 연등회보존위원회 연구위원은 “(5월 11일 현재) 9000여 명이 온라인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매일 평균 50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찰과 단체에서는 예년 연등회 참여 인원이 온라인 행렬에 동참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리허설을 마친 참여 대중들은 ‘언택트 연등회’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구룡사 총무 성륜 스님은 “평소 강의와 법회를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면서 “오늘 리허설을 하며 호흡을 맞춰보니 첫 ‘언택트 연등회’가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참여자인 승우 스님은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보니 낯설지는 않다”면서 “지난해 연등회가 취소돼 너무 아쉬웠다. 이전 같이 대면진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등회에 참여할 수 있어 신심과 환희심이 난다”고 기대했다.

대길행 호압사 연등회 단장은 “평소 인터넷 기술에 관심이 없었으나 교육을 받아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온라인에서 연등회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연등회를 전승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 같다”고 밝혔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돼도 ‘온라인 연등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온 · 오프라인 연등회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선효 스님은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나면 6월부터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한다”면서 “올해 온라인 연등회라는 새로운 모습을 통해 불자와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거리에서 연등행렬을 할 수 있게 돼도 온라인 · 디지털 연등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방경혜



재 무 이법기
부 전 전선관
거사부전 배화증
사부대중일동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우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전화 3460-5300, 팩스 3460-5200



한국불교의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
안심정사 서울본부

회주 석법안(철학박사)

사부대중일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 18 전화 02)577-4557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지혜를 밝히는

강화도 삼.랑.성 전등사

YouTube 〈전등사TV〉
많은 구독바랍니다.

법회, 기도,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전화 032)937-0125, 0025



대한불교천태종

삼 룡 사

주 지 무 원
신도회장 김용규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법화경 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나길 41 전화 02)496-3839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포 란 사

주지 자 혜

포란사 신도회 일동

충남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850-48
전화 041)942-5106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정 법경 방장 지선

명예종정 혜원 장로의장 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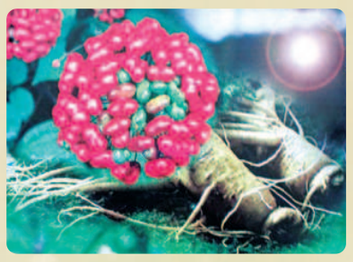
총무원장 법성 종회의장 법륜
문화원장 혜관 포교원장 보덕
교육원장 도원 사정원장 지산
문화부장 해운 비구니원장 진언
재무부장 성본 비구니부원장 무상

한국불교선조계종 종도일동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 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 팩스 053)322-0567

풍기정품인삼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기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현재기준 2021년 4월 21일 부산성의신협 감사실 심의필 : 제17호(21.04.21)

정기예탁금 15개월 2.0%(연 1.6%)

2020년 출자 배당률 3.0% 실현 !!



-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출자금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만 65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
-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 ●신협 예적금은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 바르고 편한 신협대출
- ●담보대출, 신용대출, 햇살론 대출 취급

●범천동 부산성의신협 빌딩



대한민국 휴머니즘 뱅크 부산성의신협

연지지점 051) 816-7131 초읍지점 051) 809-4154
양정지점 051) 867-8321 범천불교지점 051) 633-9120
동래지점 051) 867-3641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 행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063)841-1355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전화 063)857-6533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김용수
수석부단장 구강식
부 단 장 윤태근
사무국장 강대후

포교사 일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익산 관음사

주지 덕 림

사부대중 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전화 062)854-1578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현 덕**

신 도 회 일 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전화 052)262-0518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진, 오심, 동주,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82-7081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금음산 불 인 사

주 지 **송 산**

고불학당(불교대학)
불인사 파라미타

신 도 일 동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6번길 3
전화 055)343-1638 팩스 055)343-1637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표충사) **진각**스님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감 사 **자명(무봉사)**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성정(수덕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사회부장 **덕우(운수사)** 사무국장 **박영도**

회 원 사 찰 일 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 355-4518 팩스 055)354-5622

대한불교조계종

여 래 사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188번길 29(상봉동)
전화 055)742-6070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원장 **법공**

총무스님 **등명**
기도스님 **길상**
사단법인 이사장 **선건**
사무국장 **이수홍** 감사 **장임순, 제효정**
고문 **김영준, 이재우**

사단법인 봉화산정토원신도봉사회
회장 **이장명**
부회장 **박영옥 이수홍**, 총무 **김지원**
지도법사 **황재연 조세균**, 간사 **김대진**
메아리음악단 단장 **김수복**

신 도 일 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전화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 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심 적 정 사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133번길 15
전화 055)973-1388

대한불교조계종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두 타 사

통영불교 신행단체
연 합 회
통영시청 여 락 회
통영불교 거사림 회
통영불교 청 년 회
통영불교 룸비니회
충무불교 교양대학
충무불교교양대학동문회
두타사 불 사 회
두타사 108순례단장
두타사 가릉빈가합창단장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전화 055)648-1477, 648-1366

대한불교조계종
가야불교 중흥발원도량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경전반

주 지 **도 명**

신도회장 **조성진**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 련 암

주 지 **원 각**

사부대중일동

정토만일봉사회 53구법성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30-34
전화 055)672-0078

한국불교태고종

산청 왕 복 사

주 지 **자 우**
총 무 **현 문**

이 타 보 현 회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451번길101-8
전화 055)974-0038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스님(범어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혜창스님(원효사)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홍일스님(법전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스님(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암)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재무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청명스님(분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전화 051)583-9233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정분남
감 사 김영신 김병관
부 단 장 송재린 박종안 이양희 주태돈
사무국장 손삼호
총괄팀장 임한규 이수임 김옥희 최우성 서영우
황기훈 심태섭 진상근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범산, 명현, 성문,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 소 원

상담 · 봉사
수행 · 후원

이사장 장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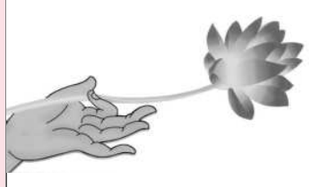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진 광
종무국장 원 경
신도회장 인 덕 륜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전화 051)464-0668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백명숙 김순례
명예회장 왕선자
회 장 류영남
후원회장 정관희
부 회 장 정정자 서정례 김정화 이우경
총 무 김선미
재 무 서정례
감 사 이은선 이명희
봉 사(1) 박화자 김명숙
봉 사(2) 조현숙 이수연
홍 보 권정미 김정애
운영위원 전위미 한순점 최연화 김명숙

이사 · 회원일동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나의 참 모습과 마음을 찾는 도량

무 량 선 원

주 지 취 산

신 도 회 일 동

"내 참 모습과 마음은 여기에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183(동래역 근교)
전화 051)503-1107

대한불교조계종

地藏佛教根本道場 대연정사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초하루법회 - 음력 1일 오전 10:30
지장재일법회 - 음력 18일 오전 10:30
신도회 법회 - 음력 6일 오전 11:00
어린이 법회 - 2,4주 일요일 오전 10:00

부산시 남구 진남로 69번길 8 (대연동)
전화 051)625-3886
www.dytemple.net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지 청 암 자 관
총무 정 웅

신 도 일 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지장기도도량

천 불 정 사

주 지 선 묵 고 담
법 사 범 성
원 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 도 회 총 무 김영애
거 사 림 회 장 이경철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사 부 대 중 신 도 일 동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회주 금아 혜국
주지 성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전화 051)802-0130 / 팩스 051)804-1037
www.hj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 오 사

(재)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
원오사 부설 명정지역아동센터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대원 정관
신도회장 김종흔
부 회 장 김기명

부산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49 www.wonosa.or.kr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부산광역시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 성 큰스님
정 각 큰스님

고 문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일공
회 장 호법
부 회 장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현여
사무총장 석인정사
이 사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정현
감 사 해암, 혜진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발원사內 전화 051)405-2326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김유리자 강명자
김정순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부 회 장 윤미자 안상희
운영위원장 윤정희
감 사 강행순
총 무 박명자
재 무 강지원
팀 장 신미자 최옥희
최말순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기획이사 마나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이사 일동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부산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수정동, 은정빌딩)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39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정홍섭 김수현
부회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상호 박효근 윤경석
회 원 강석진 곽방보 김인석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정출 이학우
조보익 최대경 진남일 이오식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전화 051)334-0108 팩스 051)867-4397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산청보현사 주지 도일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
거제 여래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
동래효심사 주지 효문
양산보현선원 주지 효범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각 사

범어사 정통 호국무예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달빛명상센터

주지 안 도

매월 음 14일 달빛 걷기명상
매월 음 15,16,17일 달빛 다라니기도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장산마을
전화 051)701-8827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무 경원 교무 경무
재무 경증 사회 경동
포교 경소 복지 경지
연수 경상 교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전화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지장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0408, 5224
팩스 051)973-3076

좋은 기획, 좋은 디자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담앤북스
출판문화그룹 DAM&BOOKS

서울_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23(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805호
T.02)765-1250
damnbooks@hanmail.net

부산_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대연동)
T.051)244-1251
hdbooks21@hanmail.net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동명불원**
부 회 장 **의성정사** 남도심인당
법 천 소원사
감 사 **능 후** 대연정사
대 각 옥천암
사 무 총 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 무 국 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 도 회 장 **신선덕행**
부 회 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원허스님(혜원정사)
지현스님(관음사)
무관스님(장안사)
자 문 위 원 **정산스님(마하사)**
회 장 **보당스님(보국사)**
수석부회장 **법승스님(화엄사)**
상임부회장 **월광스님(보은사)**
사 무 장 **동선스님(내원암)**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불심사)
감 사 **지공스님(불이중도사)**
재 무 **눌은스님(해련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31-3 보국사 內
전화 051)861-6961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社)釜山佛教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 무 이 사 **이환길**
재 정 이 사 **송우근**
사 업 이 사 **이종환**
관 리 이 사 **이규인**
연 수 이 사 **박주영**
부 총 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장상목 교수)

진참회기도도량
황령산 소 원 사

주 지 **법 진**
총 무 **백순연**

사 부 대 중 일 동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법회

부산 남구 진남로96번길56(대연동)
전화 051)634-3366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찬불가지도 **이복금**
피아노연주 **김순옥**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가 야 사

주지 **정 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운영지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센터

※ 만60세 어르신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 851-219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주 지 **호 법**

신 도 회 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권인락**
순 례 단 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학생회회장 **류홍수**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전화 051)405-2326

대한불교조계종
부산하고도 사상에 있는 옥 천 사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68번길 96-10(덕포동)
전화 010-2384-3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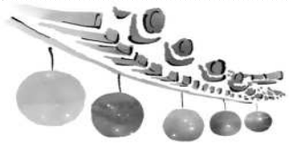
동 국 한 의 원

일체에 감사의 마음
올리옵니다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락 서 암



주 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아기부처님 오시는 소리

오늘 이 자리
연등 불빛 아래 선 우리는
그 옛날 4월의 동산에 있었으리
그 무엇으로든 그 자리에 있었으리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만났으리
그 옛날 함께 들었던
천상천하유아독존 삼계개고아당안지
일곱 걸음 떼시며
오시던 부처님 발자국 소리
다시 듣고 싶어
연등 밝히고 만났으리
앞 못 보는 우리
눈 뜨게 하시고
힘겨운 세상 살펴주신 그 말씀
다시 듣고 싶어
손에 손 연등 들었으리
오늘은 그 옛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시는 소리
부처님 말씀 다시 듣는 날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 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054)335-1369 팩스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지 **운 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 복지회관)

혜 선

신도회 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13(성당동)
전화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전화 054)873-2908 팩스 054)874-9137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도원**

부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www.daesungsa.or.kr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지 **우록 법륭**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3길 6(불로동)
전화 053)982-9329 팩스 053)983-1698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신행 기도 도량
대 원 사

주지 **현 정**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09길 41(학정동)
전화 053)327-0408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대구지역단

단 장	혜 림	장건환
수석부단장	진공심	이현숙
부 단 장	덕 원	김동훈
부 단 장	대각성	김선옥
부 단 장	법 경	권오경
감 사	진 공	배성원 자심월 변예영
본부총괄팀장	지 운	양영휘
동부총괄팀장	자연성	노미현
서부총괄팀장	안도성	서광희
남부총괄팀장	청 인	김병태
북부총괄팀장	안덕문	오경희
중부총괄팀장	범 공	임동명
수성총괄팀장	안 덕	황종수
사무국장	송 덕	구본주
사무대리	반야신	홍정임

대구지역단 포교사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51길 11(대명동)대구불교회관 2층
전화 053)623-0108 팩스 053)745-4109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 진 규**

사부대중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마음의 문 열려면 말하세요”

우승미 작가의 **봉축 동화**

지금 여기 너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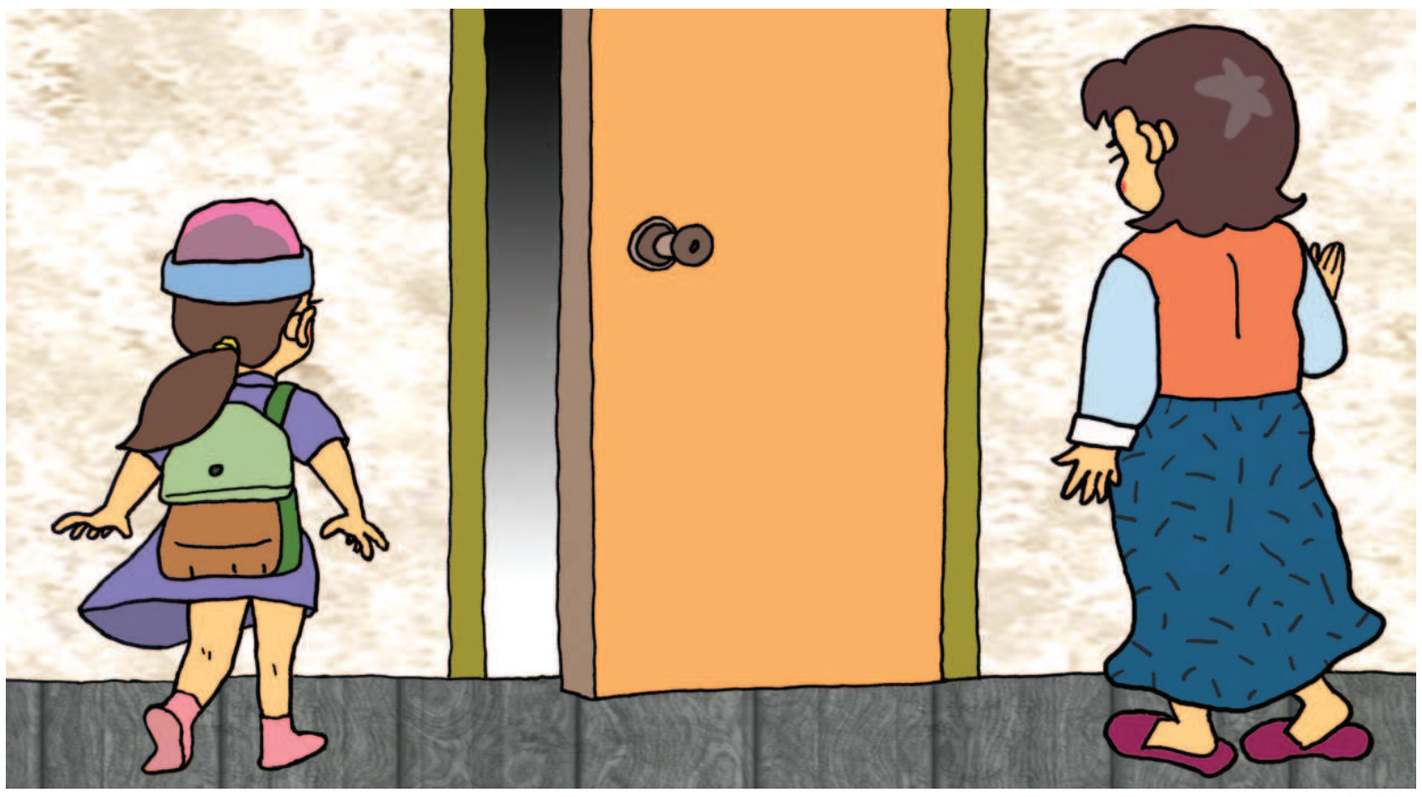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다희는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리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14, 13, 12, 11, 숫자가 작아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7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오전 7시 50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나 출근하는 분들이 층마다 탈 시간이었지만 웬일인지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다. 15층에서 7층으로 곧장 달려가는 직행 엘리베이터를 탄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추며 ‘땡’ 소리가 났다. ‘와! 멈췄다!’ 다희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에그머니나!”

문이 열리자마자 큰소리로 외쳐서 708호 할머니께서 깜짝 놀랐다.

“아, 안녕하세요?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학교 가는 길이니? 친구인지 알았던 모양이구나.”

다희는 이내 시무룩해졌다. 707호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려서 초인종을 눌러볼까 망설이다가 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소연이가 결석한 지 2주가 지났다. 소연이는 학교만 오지 않는 게 아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신저도 확인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이메일로 편지를 썼는데 역시 읽지 않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월. 소연이가 전학 온 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소연이는 전화벨이 두 번쯤 울리면 바로 전화를 받았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면 곧장 확인하고 읽는 즉시 답글을 보냈다.

“어떻게 전화를 걸자마자 받아? 너 매일 휴대폰 끼고 사는 거 아냐?”

“응. 난 너한테 전화 오는 게 정말 좋아. 메시지 읽는 것도 좋고 보내는 것도 좋아.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있어. 통화할 때도 즐겁지만 전화를 기다리는 것도 즐거워.”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셔? 우리 엄만 내가 맨날 휴대폰 본다고 난린데.”

“엄마도 신기한가 봐. 전에 나는 휴대폰을 거의 안 썼거든.”

소연이는 아침에 학교에 갈 때도 늦게 나오는 법이 없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그 앞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소연이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꿈만 같았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절친이 생기다니. 함께 사는 친구,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친구, 위 아래층에 사는 친구가 드라마에서는 잘도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그런 친구가 생기다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은 학원에 다니고,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는 친구. 그것만이 아니었다. 다희와 소연이는 마음이 잘 맞았다. 좋아하는 색깔도, 좋아하는 책도, 좋아하는 노래도,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도 똑같았다.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같았다. 함께하면 늘 좋았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재미있었고,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났다.

그런데 소연이가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다희는 후-하고 깊은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 소연이 오늘도 안 오는 거야?”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물었다.

“박재형도 지난주에 왔는데, 소연이는 왜 안 와? 혹시 다 나았는데 꾀병 부리는 거 아냐?”

“뭐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런데 소연이 많이 아픈 거 아냐? 휴대폰도 꺼져 있던데.”

“다희야, 너 소연이네 집에 가봤어? 뭐래? 언제 온대?”

“어, 오늘 학원 끝나고 가보려고.”

“절친이라고 매일 붙어 다니더니, 다희 너 너무 무심한 거 아냐?”

누가 뭐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은 소연이가 수두 때문에 결석하는 거로 생각했다. 지난달 내내 수두가 퍼져서 학교 전체가 들썩들썩했다. 6학년 3반에도 일곱 명이나 수두에 걸려서 결석하는 바람에 한동안 교실이 휑했다. 가장 마지막에 수두에 걸렸던 박재형이 지난주 금요일에 덜 떨어진 딱지 몇 개를 얼굴에 붙이고 등교했으니 이번 주 월요일에는 소연이도 학교에 올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내가 무심하다고? 그럴 리가!’ 다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소연이가 처음 결석했던 날, 다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소연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다. 소연이 엄마가 나오셔서 소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학교에 못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혹시 수두에 걸렸나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많이 아파? 집에서 푹 쉬고 내일 만나자!’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메시지를 보낼 때만 해도 다희는 소연이의 결석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소연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수요일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소연이 엄마가 서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소연이 엄마는 학교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셨다. 소연이가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친구와 다투거나 선생님께 혼나지는 않았는지, 짓궂은 남자애들이 놀린 적은 없었는지. 그때서야 소연이가 몸이 아파서 결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 소연아, 언제쯤 이었을까?
> 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건
> 어떤말도 상처될수 있었어
> 과거는 널다치게 할수 없어
> 지금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해

“잠깐 소연이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똑똑 나 다희야. 똑똑 소연아. 똑똑 잠깐 얘기 좀 해. 똑똑 네가 없으니까 나 너무 심심해. 똑똑 소연아, 보고 싶어. 똑똑.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엄마와 마주쳤다.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야. 어쩌면 소연이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소연이 엄마가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렸다. 단지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소연이 엄마는 다희에게 소연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 학교가 소연이에게는 세 번째 학교야. 첫 번째 학교에서 소연이는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 그냥 따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연이를 불러서 욕하고 때리고. 그때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소연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 바보같이. 내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연이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단다. 괴롭혔던 애들 몇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지만, 소연이도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

전학 간 학교에서는 친구도 사귀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친구랑 다툰 일이 있었나 봐. 다툰 아이가 친구들 단톡방에서 소연이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는데, 그 방에 소연이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소연이가 있는 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였어. 사이버불링이라고 한다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친구를 괴롭힌다고. 아이들은 때론 생각 이상으로 잔인하지. 단톡방에서 나오면 또 초대하고 욕하고, 나오면 초대하고 욕하고.

아줌마는 소연이에게 다희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소연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소연이가 얘기를 안 해. 방문을 닫아걸고 나오질 않아.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고 중학교에 갈 때까지 홈스쿨링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렴풋이 다희도 알고 있었다. 전학 온 첫날,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소연이가 돌아서서 물었다.

“왜 자꾸 날 따라와?”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다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까칠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소연이는 무서웠던 건지도 모르겠다. 다희가 엘리베이터에서 15층을 누르고, 7층에서 내리는 소연이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그때서야 비로소 잔뜩 긴장했던 어깨를 툭 떨어뜨리는 모습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였다.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동안에도 소연이는 항상 긴장했다. 누군가 짓궂은 농담을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언제나 웃으며 응, 그래, 괜찮아, 라고 말했다.

“뭐가 괜찮아?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지.” 언젠가 다희가 다그쳤을 때도 소연이는 웃기만 했다.

“난 다 괜찮아. 내 옆에 네가 있으니까.”

다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소연이는 정말 괜찮았던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소연이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언제였을까? 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건. 솔비 생일파티 때였을까? 우리 둘 다 파티에 못 간다니까 솔비가 너한테 내 수행비서냐고 쏘아붙였잖아.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아니면 지난번 조별 과제 할 때였을까? 서로 기자 역할 하겠다고 해서 제비뽑기했는데, 네가 기자 뽑았잖아. 가영이가 자기 꿈이 기자라서 꼭 해보고 싶다기에 내가 양보해주는 거 어떠냐고 해서 서운했어?

소윤아, 듣고 있어? 생각해보면 어떤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었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너의 마음이, 너의 기억이 상처를 내는 거야. 지금 너와 나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에 함께 있지만, 너의 세계는, 네 마음의 세계는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너의 기억 어딘가에.

하지만 소윤아, 과거에는 힘이 없어. 과거는 너를 욕하고 때릴 수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은 지금의 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소연이는 보이지 않았다.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어둠만 한 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다. 다희는 문을 열고 짙은 어둠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우승미 작가는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되었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 · 조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장산 도업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금아 혜국
이 사 장산 성춘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벽암 지홍
감 사 월암 덕상
감 사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직무대행 흥 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765-2701 / 팩스 02)741-1385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 문 사

사부대중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TEL.032)933-8271~3 www.bomunsa.me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온 누리에 얼음 녹아 만 골짜기마다 흘러

마음의 바다로 들게 하시니

용이 들고나며 고기들은 춤을 추고 꽃 피고 새 우니

스스로 열매 익어

만 가지 맛을 알게 하셨노라

〈대행선사 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박종수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스타 검사출신 CEO…강원랜드 '명상힐링 1번지'로



함승희 변호사는… 1951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서울양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인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율곡사업 비리 등을 파헤치며 주목받았다. 1996년 법무법인 대륙을 창립했으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선거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에서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3년 간 강원랜드 대표이사도 맡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C5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아쇼까, 탁실라 부왕이 되다
C7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한국의 선어록
C11 박원자의 母情佛心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리더에게 聽 하다

함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前 강원랜드 사장〉

드라마 '모래시계'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검사는 많은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한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검사는 실제 검사를 모델로 하고 있다. 지금은 변호사인 함승희 前 검사다. 당시 1년 동안 280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다. 현대한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쓴 함승희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강원랜드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대한국사에 또 다른 역사를 보태었다. 특히 '카지노'로 대변되는 강원랜드 사장 재임시에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도박하는 곳에서 세계 불교성자를 초청한 세계명상대회를 열어 대성공을 거뒀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지평을 넓혔다. 또한 그의 인생길 곳곳에서 불심의 흔적도 많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만나봤다. 〈편집자 주〉

대담=김주일 국장, 정리=박재완 기자

Q. 첫 질문은 특수부 검사시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함승희'라는 이름 석 자를 세상에 알린 계기여서 입니다. 당시 '함승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드라마 '모래시계' 속 검사,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 소탕 검사의 모델이었는데요. 그 증거로 1년간 조직폭력배 280명을 구속시키며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경력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전무후무한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했는지요?

A. 조직폭력배는 원래 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런데 1989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노동운동이 전에 없이 격해지는 등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민생과 치안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승합차를 이용해 부녀자들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범죄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불안하고 어수선했죠. 그래서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민생'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 검찰에 민생침해 사범 위주로 수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특수부를 '민생특수부'로 이름까지 바꾸었지요. 그때부터 폭력배 검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때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많이 검거했죠.

Q. 1992년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 검사를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비교적 탄탄대로가 보장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돌연 1996년 법무법인 〈대륙〉을 창립하고 변호사로 전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제가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전, 마지막으로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어요. 그것은 당시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일이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담당 검사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수사가 마무리(?)되고 저는 서산 지청장으로 발령받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승진발령이지만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인사였죠. 아무튼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으니 이제 수사 검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부장검사로 일해야 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수사는 평검사가 하는데 수사검사로서는 할 일 다했다고 생각했죠.

Q 2000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 출마, 당선되고 정치인으로 변신하였는데요. 정계에 진출하게 된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A.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모 출판사의 권유로 검사 시절 이야기를 자서전 형식으로 출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의 예민한 사안에 휘말리게 됐어요. 검사 시절 이야기이다 보니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것 같은데, 책에 언급되지도 않은 사안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더군요. 실제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언급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바람에 제 책은 많이 팔렸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스탠포드, 하버드 등 유명 대학의 컨퍼런스를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출마 제의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전혀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라 일언에 거절했죠. 제가 여러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구속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의 권유가 집요했어요. 제가 거듭 거절을 하니까 나중에는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권유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지요.

드라마 '모래시계' 속 실제 검사
1년 간 조직 폭력배 280명 구속
1996년 로펌설립하고 변호사로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당선
부패방지 자금 세탁방지법 제정
국민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반대

Q. 정치를 하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적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소 정치철학이라고 강조하는 좌우명이 있으면 들려주시지요.

A. 자금세탁방지법 제정한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을 꼽는다면 금융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법이 우리나라의 부패를 견제하는 양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의 제정과는 반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일도 있었는데,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당시 911테러가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였어요. 법안의 취지는 좋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반대했어요. 결국 테러방지법은 상정되지 못했죠. 그 두 가지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2면에 계속



함승희 前 강원랜드 대표가 강원랜드서 열린 음악회에서 지휘자로 깜짝 변신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6 세계명상대전 모습.



2016년 2월 25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6 세계명상대전에서 인사말을 하는 함승희 前 강원랜드 대표.

"걸으면서 사유 성찰, 불교명상 매력"

2008년 집단지성 '포럼오래' 설립
"국가의 수준 국민의 수준에 달려"

2014년 강원랜드 대표로 취임해
2016년 세계명상대전 개최 성황
명상대전에 3백여스님 무료초청
하늘길에 고승 핸드 프린팅 설치

대학시절 상원사·청평사서 공부
서산지청장 때 만공탑 매일 참배
"불교, 모든 중생 무차별한 종교"

'함승희 변호사' C1면에서 계속

Q. 2008년 5월 '포럼오래'를 만들었습니다. 설립 취지문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시장만능주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경제적 병리 현상들을 바로 잡아야 국가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모임이며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A. 오늘의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한다는 뜻의 오래포럼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개방적 소셜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학연, 혈연, 지연, 직장, 종교 등을 인연으로 하는 폐쇄적 네트워크는 패거리문화로 이어져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래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민주엘리트를 양성합니다. 오래포럼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회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킴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책임 공동체입니다.

3년 전부터는 포럼의 기본 가치인 자유주의, 번영, 작은 정부, 강한 국가 등 포럼의 4대 지표에 부합하는 도서를 선정해서 유튜브로 저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 수준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대중을 계몽하려는 것이죠.

Q. 2012년 포럼오래의 첫 번째 책 〈세상을 바꿔라〉 발간 이후, 국가운영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 정책을 다룬 두 번째 시리즈에 이어, 국가개혁을 위한 각론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바꿔라 II〉도 펴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개혁적 사고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개혁주도 세력도 없고 한 시대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A.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늘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100년 전 일본이 문화적으로 우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과의 격차가 여러 방면에서 존재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의식을 지닌 객관적인 역사관의 부재와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하는 문제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지배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곧 국가의 수준인 것이죠. 결국 세상이 바뀌는 문제는 우리 국민이 바뀌는 것으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첩경이고, 오래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것이죠.

일본과 우리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 전(메이지 유신)부터 번역서 출간사업, 독서권장 등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Q. 2014년에는 강원랜드 대표로 취임합니다. 가장 먼저 임직원에게 던진 화두가 '인무원려난성대업(人無遠慮難成大業)'이었죠.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쓴 이 글귀는 '멀리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당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랜드 임직원이라면 10~20년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결과적으로 임기동안 이 소신이 잘 반영됐나요?

A. 강원랜드의 취지는 '폐광'이라는 갑작스러운 시대적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안 없이 힘겨워해야 했던 해당 지역의 30만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보지 말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자는 뜻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카지노'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여러 차원으로 확장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에 가 닿았던 거죠. 그래서 '운탄고도'도 추진하고 합작투자를 통해 가족 단위 참여 문화공간으로 강원랜드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비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저명인사를 초청해 특강도 했죠.

강원랜드를 '카지노가 있는 곳'에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탈바꿈하는 데 주력했어요. 북카페도 만들고 연초에는 신년음악회, 연말에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매일 밤 산상카페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림, 붓글씨, 사진 등 각종 전시회를 열어 언제 오더라도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복합리조트로 변모시켰어요.

Q. 2016년 2월에는 연인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명상대전을 개최하며 명실공히 힐링 문화 리조트로 거듭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카지노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진풍경이 연출될 수 있었나요?

A. 강원랜드는 가족단위의 고객이 즐겨찾는 리조트로 명상과 수행을 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양명한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세계명상대전은 강원랜드가 명상과 힐링의 최적지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또 강원랜드의 주력 사업 분야가 카지노이다 보니 다른 일반 기업의 사업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 중독'이죠. 그래서 '명상'과 같은 아이템은 강원랜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세계명상대전준비위원회와 함께 명상을 통한 도박중독 치료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죠. 세계명상대전 당시 300여 스님들을 무료로 초청했고, 하이원리조트 하늘 명상길에 동판 표지 안내판으로 혜국 스님, 아잔브람 스님 등 불교 고승 핸드 프린팅 영구 기념물도 설치했습니다.

Q. 불교와의 인연이 깊으신걸로 아는데 실제로 언제부터였나요.

A.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고요. 제 자신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생 때 절에 공부하러 들어간 것이죠. 당시(1970년대)는 시대상황상 휴교령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고시 준비차 절을 찾았죠. 아마도 그때부터 불교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춘천 상원사에도 있었고요. 소양호 근처 청평사에서도 고시공부를 했죠. 특히 서산지청장 시절에는 수덕사 경내에 있는 만공탑에 거의 매일 올라갔었죠. 제가 경허 스님 만공 스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서산지청장으로 발령받고 가보니 인근에 예산 수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운동 겸해서 다녀오곤 했죠. 당시 주지 스님이셨던 법장 스님과 가끔 아침 공양도 하고 좋은 법문도 듣곤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님을 낙산사에 모셨지요. 당시에 오현 스님이 주지로 계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좋아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A. 불교는 무엇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아니든 모든 대중을 하나의 같은 중생으로 보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우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깨침을 위해 하는 것이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 사장시절 운탄고도 길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운탄고도가 행선하기 정말 좋은 길이거든요. 살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걸으면서 잠시나마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불교, 명상의 매력인 것 같아요.

DM사업, 유아교육사업, 물류사업 총아(寵兒)

덕성기획㈜는 금번 ㈜노벨과 개미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DM 및 물류, 유아교육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 지 **덕 화**

회 장 **김광석**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전화 054)285-8516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 지 **홍 원**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12길 10(성당동)
전화 053)625-9030 팩스 053)625-8366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 해 사
불교대학동문회

회 장 **김창열**
수석부회장 **박미영**
사무국장 **이상훈**
재무국장 **정명화**
문화국장 **양병주**
봉사국장 **박영숙**
홍보국장 **이 정**

동 문 회 일 동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연락처 : 010-3824-9457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 지 **부 용**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전화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 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전화 053)791-8137 팩스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부설
학 교 법 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법우 덕관**
교 장 **윤이용**
교 감 **김수상**
행정실장 **신수영**
법인사무국장 **강희종**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전화 054)333-3431 팩스 054)333-3432

대한불교천태종

대 구 동 대 사

주 지 **김도산**
신도회장 **송수용**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7-1
전화 053)795-1357, 795-1733
팩스 053)795-1731

(재)대한불교관음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덕산 백 련 사

종무원장 **법 웅**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진밭길 2948-24(백련사)
전화 053)781-3784, 053)781-3111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 정 **보원 현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전화 053)802-4043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
장 학 재 단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전화 053)710-3700, 053)523-2886
팩스 053)252-2886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 주 **포전 혜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암

'기도와 수행의 천년고찰'

주 지 **활 안**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86-73
전화 053)852-0963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 실 **청운 도원**

주 지 **허 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 주 **정 관**
사 부 대 중 일 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저자 정관스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 1번지
전화 053)767-7504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장 세 철**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35)
전화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대한불교천태종

해 동 사

주 지 **박 도 산**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167(법흥동)
전화 054)852-6320
https://haedongsa.com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 지 **지 원**

사부대중일동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전화 054)932-9847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부설)

우학스님의 유튜브강의
(생활법문, 경전·조사어록강의)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구큰절(053)474-8228
(영대병원네거리, 지하철 1호선 2번출구)

高靈瓦 Goryeong Roofing Tile Selec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054)954-8008(代) FAX.054)954-5335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 공동체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 장 **김 성 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월 8일, 15일,
23일, 30일 사재일에는 오계를 꼭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계를 받고 사재일에
오계를 지킴으로 스스로 불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 불교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명상·힐링 상담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참선수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참선 철야 수련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www.tongsub.com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전화 053) 621-2256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

大韓佛教普門宗

석가모니 부처님을 종조(宗祖)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수행정진하는 청정 비구니 종단

宗 正 **智庵大仁**

元老會議議長	妙觀
總務院長	仁求
財團法人 理事長	確鐵
中央宗會議長	智環
護戒院長	德賢
總務部長	慈門
敎務部長	敬珍
財務部長	志元

宗 徒 一 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전화 02)928-3797, 926-9750
팩스 02)926-9752
http://www.bomunsa.or.kr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9



▶ 20회 예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아쇼까는 아내 빠드마바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빠진다.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를 키우던 왕비 다르마는 아쇼까의 두 번째 아내를 물색한다. 마침내 아쇼까는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를 만난다.

아쇼까, 탁실라 부왕이 되다

아쇼까 기마군사들은 강을 건널 때마다 수통에 강물을 담았다. 그러나 바로 마시지 않고 숙영지에 도착하여 반드시 끓인 뒤에 목을 축였다. 물을 끓이는 토기항아리 밑바닥은 늘 고기비늘처럼 허연 석회석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탁실라에 입성한 아쇼까 기마군사들은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 탁실라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퍼 올린 물은 아무리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고 달달하기까지 했다. 아쇼까 군사들은 탁실라의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고 맨땅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그 시간에 아쇼까는 수시마가 주관한 연회장에 있었다. 아쇼까의 전령이 미리 달려가 소식을 전했던바, 수시마가 동생 아쇼까를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였다. 수시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망갈라로이 형제도 수시마 좌우에 상석을 차지했다. 아쇼까는 수시마를 정면으로 보는 맞은편에 앉았다. 직사각형의 식탁에는 음식과 포도주, 과일이 푸짐했다. 악사들은 식탁 왼쪽에서 탁실라 전통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했고 무희들은 춤을 추었다. 수시마가 말했다.

"내 동생 아쇼까여, 먼 길을 오느라 수고 많았네. 이곳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시게."

"부왕께서 환영해주시니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합니다."

"나를 보좌하는 대신을 소개하겠네. 나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탁실라 성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신 망갈라로이이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탁실라 성 밖을 책임지고 있는 삐띠로이라네. 두 분의 대신이 동생이 탁실라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할 것이네."

수시마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망갈라로이가 말했다.

"왕자님이시여,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대신을 부르십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환대해 주시니 고맙기는 하지만 나는 대왕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나는 대왕님의 명대로 머물다가 갈 것입니다."

수시마가 다시 아쇼까에게 말했다.

"따뜻한 음식이 식겠네. 어서 음식과 과일을 들면서 얘기를 나누세."

"이곳은 아직도 겨울이군요."

"왕자님, 이곳은 1년 중 반은 겨울이고 반은 여름입니다. 5월이 지나면 차츰 더워져 쥐들이 피를 토하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철에 오셨습니다."

접시에 놓인 난에서 구수한 호밀 향이 났다. 그리고 난과 함께 먹는 울긋불긋한 커리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커리 종류만도 서너 개 되었다. 양뼈를 졸인 사골 커리, 양고기가 들어간 매운 커리, 소고기를 잘게 썬 매운 커리 등이 있었다. 콩가루와 다진 고기를 뭉쳐 만든 고기 경단은 꿩 알만 했다. 뿐만 아니라 식감이 좋은 쌀밥에 당근과 건포도, 고기를 넣고 기름진 비계에다 달달 볶은 볶은밥도 큰 접시에 고깔모자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포도주는 놋쇠주전자에서 달콤한 향을 피우고, 과일은 제철이 아닌데도 바나나, 사과, 망고, 포도 등이 여러 은접시에 가득 놓여 있었다. 수시마가 망갈라로이 대신에게 말했다.

"앞으로 소고기 커리는 금지시키시오. 농사짓는 소가 줄어들 테니까."

"살아 있는 소를 잡는 농부들은 없습니다. 농사짓다 늙어서 죽은 소의 고기만 먹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오."

수시마의 말을 자르는 망갈라로이의 태도는 다소 불손했다. 아쇼까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도 수시마는 별 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쇼까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형님은 이 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식사가 끝나고 망갈라로이 형제와 악사, 무희 그리고 요리사들이 연회장을 나갔다. 수시마와 아쇼까만 남았다. 수시마가 자신 앞에 있는 포도주를 아쇼까에게 따라주며 말했다.

"우리 둘만 남으니 내가 빠딸리뿌뜨라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는군."

"형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나야 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네. 허나 망갈라로이 형제가 막아버리니 성민들을 만날 수가 없네. 성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허수아비 같이 사시는군요."

"그건 아니네. 나의 결재 없이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까."

"형님, 이 편지를 받으십시오. 대왕님께서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아쇼까가 품속에서 밀봉한 봉투를 꺼내 수시마에게 건넸다. 빈두사라왕이 수시마에게 전하라고 한 밀봉한 봉투였다. 수시마는 봉투를 뜯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쇼까를 탁실라 부왕으로 임명하고, 수시마를 탁실라 고문으로 마우리아국 빈두사라의 이름으로 임명한다.〉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을 우롱하는 권신이 있다면 척결하고 최대한 빨리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생에게 부왕 자리를 내주었다고 놀란 것이 아니네. 대왕님께서 어찌 한 마디 언질 없이 바꿀 수 있는가, 그것에 놀랐네."

수시마는 아버지 빈두사라의 비정하고 냉혹한 처사에 놀라 두려움을 느꼈다. 아쇼까가 수시마를 위로했다.

"대왕님께서는 형님을 다시 부왕으로 임명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님을 농락하는 세력이 있다면 빠르게 척결하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하긴 성민들의 불만이 목에 차 있다고 보고하는 신하가 있기는 했네."

"형님, 이 진수성찬을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군사들에게 베푸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네."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과일이 궁녀와 하인들에 의해 수레에 실려 바깥으로 나갔다. 그때까지도 땅바닥에 주저앉자 휴식을 취하던 군사들이 음식과 과일, 포도주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수레로 실어 나른 음식과 과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동생은 왜 나와 같이 있지 않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병약한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고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야지. 나도 왕자비가 될 약혼녀가 잘 있는지 늘 궁금하다네. 여기로 약혼녀가 와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나."

"형님께서 외로웠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대왕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그날 밤. 반달이 떴다. 하늘은 깊은 호수처럼 검푸르렀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이동하는 양들이 울음소리를 냈다. 아쇼까는 심복참모 두 사람을 불러 망갈라로이 형제를 어떻게 제거할지 회의했다. 참모들 중에 두 사람의 심복참모는 서로 의견이 갈렸다. 한 사람은 망갈라로이 형제 숙소를 잠입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심복참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의 비리를 잡아내어 성민들의 호응을 얻은 뒤 재판으로 단죄하자고 말했다. 아쇼까는 후자를 선택했다.

"농간을 일삼은 그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단하시는 것이 탁실라 토착귀족들에게 경고도 할 겸 더 좋을 것 같소."

아쇼까는 성민들의 이름으로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참모들은 아쇼까가 결론을 내리자 모두 선선히 따랐다. 특히 두 명의 심복참모는 망갈라로이 형제의 비리를 캐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 망갈라로이 형제들도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다. 아쇼까는 야밤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복면을 한 자객이 아쇼까가 자는 침실로 들어와 격투를 벌였던 것이다. 아쇼까는 자객을 붙잡아 자객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추궁했다.

"누가 보냈느냐?"

"....."

입을 다물고만 있자, 아쇼까는 자객의 목을 베어 피를 보게 했다. 그제야 자객이 실토했다.

"망갈라로이 대신이 보내서 왔습니다."

아쇼까는 칼을 칼집에 넣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쇼까가 눈짓을 보내자 호위군사가 그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우물감옥으로 데리고 가서 던져버렸다.

몇 달 후, 아쇼까는 그동안 밝혀진 망갈라로이 형제의 비리를 수시마에게 보고했다.

"이 자들이 형님 몰래 뒤에서 농간을 부렸습니다. 목동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성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면서 뒷돈을 챙겼습니다. 더구나 눈에 든 여자도 가로챘습니다."

"눈치 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부패한 줄은... 쯧쯧."

수시마는 혀를 차는 것으로 망갈라로이 형제의 체포를 허락했다.

"형님, 저 자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장사꾼들이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반란이라고?"

"국경지방에서는 반란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돈이면 반란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아쇼까는 쥐도 새도 모르게 망갈라로이 형제를 체포했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정사를 보러 궁으로 들어오는 순간 군사들이 그들을 결박해서 연행했다. 아쇼까가 지시했다.

"죽이지 말고 감옥에 처넣어라."

"부왕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새 아쇼까는 탁실라 부왕으로 불렸다. 두 형제는 고문당하면서 무역하는 장사꾼들에게 무역세를 가혹하게 받아 착복한 사실을 자백했다. 삐띠로이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진귀한 보석을 받고 젊은 장정들에게 군역을 면제해준 적도 있었다. 여자납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두 형제의 범죄사실이 많았다. 아쇼까는 공개재판을 통해 그들을 단죄했다.

"나, 아쇼까는 너희들의 죄를 밝히고 처단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느니라. 감옥 우두머리는 이 자들의 죄를 나열해보라."

감옥 우두머리가 망갈라로이 형제의 죄를 일일이 열거했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까지 외치면서 열거하자 시간이 꽤 지났다. 흥분해 있던 성민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감옥 우두머리에 의해 죄상이 다 알려진 뒤에야 아쇼까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시신도 찾지 못하는 우물감옥에 쳐넣을 것이니라. 할 말이 있는가?"

"수시마 부왕께서 탁실라에 입성할 때 큰 공을 세운 바 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너희들은 수시마 부왕님을 진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니라. 수시마 부왕님을 이용하기 위해 도운 척했느니라. 그러니 죄질이 더 나쁘니라."

성민들이 우물감옥으로 끌려가는 두 형제에게 돌을 던졌다. 머리에 돌을 맞은 망갈라로이는 피를 흘렸고, 삐띠로이는 누군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부러진 팔이 덜렁덜렁했다. 두 형제를 우물감옥으로 연행하는 성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감옥 우두머리는 돌팔매질하는 성민들의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수수방관했다. 그것도 두 형제에게 가하는 일종의 형벌이었던 것이다.

탁실라는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국경지방에서 일어나려 했던 반란은 저절로 잦아들었고, 성민들과 목동들은 다시 예전처럼 생업에 전념했다. 탁실라 거리가 활기를 띠자 아쇼까는 빠딸리뿌드라로 돌아가려고 준비했다. 마침내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날, 아쇼까는 거느리고 온 기마군사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아내 빠드마바띠와 아들 꾸날라가 보고 싶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계속〉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분당 **대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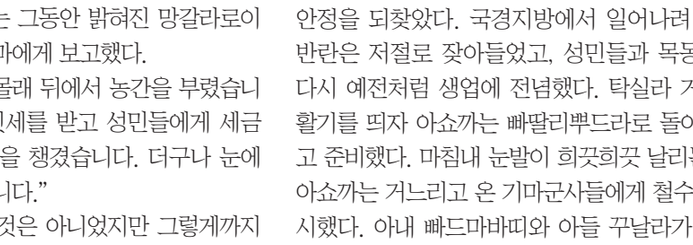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불곡산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전화 031)715-3000 팩스 031)715-3409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군불교 총본산이 될
호국 홍제사가 **건립**됩니다.



01 군불교 총본산!
• 장병, 마음의 쉼터이자 귀의처 홍제사.
• 군승법사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군장병의 불교문화 체험공간 입니다.

02 호국불교 근본도량!
• 민족과 함께하는 호국기원도량 홍제사.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 던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도량 입니다.

03 미래불교 산실!
•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포교도량 홍제사.
• 지역민의 신행처이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자와 함께하는 수행도량입니다.

동참계좌: 국민은행 477401- 01-237619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동참문의: 군종특별교구 종무실 02.797-7266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선묵혜자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 각

주지 지 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전화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지 상 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29
종무소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봉 덕 사

주지 대천 현오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안길 21
전화 062)674-2888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사

주지 해 청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무등로 1514-35
전화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전화 062)263-4660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지 동 초

신도회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전화 062)265-0801

신도중심의 기도성취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 지 수월 혜향

신도회장 보덕행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557번길 27
전화 062)263-3180

한국불교태고종

운 천 사

운천사마애여래좌상

주 지 각 인 법 진

신도회장 옥 담 김병남

관음회장 감로화 길미선

총 무 월광화 정미화

운천사 관음회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오백나한 도량

도 선 사

주지 도 원

총무 윤경화 신환의 합장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길 61-6
전화 062)234-7633

연우개발(주)

대표이사

윤 상 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50-1, 302호
(두암동,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상가동)
전화 062)262-0480 팩스 062)262-0481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⑩ 한국의 선어록



▶ 한줄 요약
한국의 선어록은 진각 혜심(眞覺 慧諶, 1178~1234)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禪 사상·수행법·교화 전승 주요 '어록'

1. 선어록의 출현

선어록(禪語錄)은 선의 어록 또는 선종의 어록이라는 뜻이다. 기타 선전(禪典)·선적(禪籍)·선서(禪書)·선문헌(禪文獻)·선록(禪錄) 등으로 불리는데 선에 대한 일반적인 전적을 가리킨다. 선종의 역사와 사상은 바로 선어록을 통하여 설명되는데, 그것을 분류하면 선리(禪理)·사상류(思想類)·어록류(語錄類)·전등사서류(傳燈史書類)·청규류(淸規類)·공안집류(公案集類)·수필류(隨筆類)·잡류(雜類) 등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로는 선자의 어록에 한정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선과 관련된 제반의 문헌을 일컫는다.

순수 선어록의 경우는 선자의 평소 설법을 제자 혹은 제삼자가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저술과 같은 일정한 목적 내지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 내지 직접 법문을 듣는 제자들을 교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적어도 법문을 하는 선자 자신의 의도는 물론이고, 그밖에 선자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법문을 기록한 당사자가 스승의 말씀을 오랫동안 남겨서 두고두고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많은 문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자의 문중에 대한 홍보 내지 스승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려는 목적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간혹 제자가 기록한 것에 대하여 조사 자신이 직접 서문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생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사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 따라서 어록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기록한 제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 내지는 보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중국의 선종에서 어록이 출현하면서 기존에 보편적으로 출현했던 위경(僞經)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것은 선종 어록의 경우 대부분이 실명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록이 위경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도 해왔다. 당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한 선어록은 조사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 보편화되어 갔다. 그것은 선종이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깨침 이후의 인가(印可) 및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법의 전통과 함께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마조 도일(馬祖 道一, 709~788) 이후의 선종은 경론의 문헌적 연구를 떠나 일상의 언행에 계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다시 종래의 경론과 같은 역할을 지닌 것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오히려 종래의 경전마저도 붓다 그 사람의 어록으로까지 간주하게 되었다. 당대에는 대단히 많은 어록이 편집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후대에 어록이 새롭게 편집된 예도 많다. 이와 같이 어록이 성행한 배경으로는 선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여 문답상량이 대단히 성행한 까닭이 있었다. 당시는 수행자가 깨침을 목표삼아 각 지역의 선자들을 탐방하면서 수행을 쌓아갔기 때문에 편참(遍參)이라는 수행의 형태가 확립되어 있었다. 마조 도일 이후의 선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그대로 온전한 것으로 긍정되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확립된 선풍이 곧 조사선(祖師禪)이었다.

대체로 현존하는 당나라 시대의 선적은 대부분이 오대(五代)·송초(宋初) 무렵에 편집된 것이다. 이미 어록이라 불리는 문헌이 〈송고승전〉에서 처음 표현되어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어록이라는 문헌으로 정리된 것은 소위 기관(機關)과 게송(偈頌)의 영역을 벗어나 새롭게 그 특색이 반성되고 의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고전화(古典化)이다. 마침 〈조당집〉(952)·〈종경록〉(981)·〈송고승전〉(988)·〈경덕전등록〉(1004) 등의 편집이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던 무렵이다.

본래 어록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機關)과 이치(理致)는 단순한 기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염롱(拈弄)되고 평창(評唱)되는 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기관은 스승이 학인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제시하는 갖가지 수완 내지 방편을 말한다. 또 이치는 스승이 경론의 도리를 제시하여 제자를 교화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생생한 언어는 입으로부터 귀로 전달되는 가운데 점차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된다.

마침 당말·오대의 동란기를 지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시작되는 송 대 초기에는 그러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당말·오대를 통하여 비교적 평온했던 강남지방에서 당대의 어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중심은 법안종(法眼宗)으로서 영명 연수(永明 延壽, 904~975)의 〈종경록〉과 도원(道原)의 〈경덕전등록〉은 모두 법안종파에 속한다. 이보다 앞선 〈조당집〉도 또한 같은 계통에서 나온 것이다. 본래 오대(五代)·십국(十國) 가운데 오월(吳越)과 남당(南唐)은 중원의 전란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당 말기 불교의 유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유산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선자들에 대한 기록물이었다.

진각에 이르러 본격적 선어록 출현
중국 선종사보다 한국 선어록 적어

이리하여 송 대 초기 어록의 성립은 법안종의 연수와 도원의 업적과 병행하여 임제종의 황룡파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보림전〉으로부터 〈조당집〉·〈경덕전등록〉·〈천성광등록〉 등 소위 등사(燈史)의 계보와는 다른 새로운 선종 문헌의 성립을 의미한다. 선이 등사류의 기연에만 속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유동적인 발전의 시기에 출현하여 이후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공안집(公案集)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한국선 역사에서 최초의 선어록은 보조 지눌 이후에야 나타난다. 사진은 보조 지눌 진영.

2. 한국의 선어록

당 대 말기에는 마조 도일과 석두 희천(石頭 希遷, 700~790)의 계통에서 선풍이 크게 전개되었다. 소위 호남의 석두종에 대해서는 진금포(眞金鋪)라 하였고, 강서의 홍주종에 대해서는 잡화포(雜貨鋪)라 불렀던 것도 그 결과였다. 그들에게 선의 사상과 수행법과 교화를 전승한 주요 수단은 어록이었다. 따라서 중국선법이 한국에 전래된 일련의 인물과 시기와 성격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도 가장 보편적인 문헌으로서 선어록에 보이는 기록을 통해 가능했다. 특히 중국 선종의 전등사서에 해당하는 〈조당집〉과 〈경덕전등록〉 등에는 신라에서 유학한 승려와 중국에 정착한 승려 등에 대한 모습이 엿보인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기록은 수많은 선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선문답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오대 및 송 대 초기의 시대에 해당하는 신라 및 고려 전기에 출현한 한국의 선어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한국선의 역사에서 최초의 선어록은 보조 지눌(普照 知訥, 1158~1210) 이후에야 겨우 찾아볼 수 있다. 지눌에 이르러서는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진심직설(眞心直說)〉·〈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등 다종의 선문헌이 출현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순수한 선어록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지눌의 경우는 모두가 저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어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후 진각 혜심(眞覺 慧諶, 1178~1234)에 이르러 본격적인 선어록의 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으로 한국의 선종사에서 출현한 최초의 선어록이다.

한편 공안집류의 경우에도 혜심이 편찬한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이 한국 선종사에서 출현한 최초의 공안집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안집류로서 한국 선종사에서는 그 처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방대한 저술이기도 하다. 혜심에게는 기타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및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 등도 보인다. 이후로 지겸(志謙, 1145~1229)의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과 천책(天頙, 1206~?)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과 보각 일연(普覺 一然, 1206~1289)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순수한 선어록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면 〈조계진각국사어록〉을 이어서 태고 보우(太古普愚)의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尙語錄)〉·나옹 혜근(懶翁 慧勤, 1320~1376)의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尙語錄)〉·백운 경한(白雲 景閑, 1298~1374)의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함허 기화(涵虛 己和, 1376~1433)의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尙語錄)〉 등 5종이 여말선초에 출현하였다. 그나마 순수한 선어록으로서 특히 제명에 어록(語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경우는 조선 중기에 무경 자수(無竟 子秀, 1644~1737)의 〈무경실중어록(無竟室中語錄)〉과 조선 말기에 용성 진종(龍城 震鍾, 1864~1940)의 〈용성선사어록(龍城禪師語錄)〉이 전부이다.

중국 선종사에서 무수하게 출현한 순수어록의 경우와 달리 한국 선종사의 경우에 이처럼 어록이라는 명칭이 붙은 선어록의 출현이 드물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첫째는 선종이 크게 발전하던 고려시대에도 구산문의 경우에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그 명맥만 유지된 까닭에 중국선의 경우처럼 문중에 대한 결속력이 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의 경우마저도 문정(門庭)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융합된 모습으로 전개되어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법맥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수입된 종파와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전기와 고려 말기에 두 차례에 걸쳐 임제종 법맥의 본격적인 수입으로 인하여 임제종풍 위주로 전개되어 있는 한국선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조선 시대에 와서는 불교세력의 약화로 인하여 공식적인 어록이라는 명칭보다는 개인의 견해를 소박하게 피력하는 사기(私記)라는 명칭을 붙여 비교적 자유롭게 기존 선문헌에 대한 주석을 붙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교적 희박했던 법맥의식에 대해서도 중국선으로부터 수입된 전등사서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으로 인하여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경우 〈경덕전등록〉을 발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선승이 한 명도 추가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던 점도 고려해볼 수가 있다. 겨우 조선 초기에 출현한 숭묵(崇默)의 〈통록촬요(通錄撮要)〉에 이르러 한국 선승의 이름이 34명 추가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옹혜근에 대한 숭배는 어떤 선문헌보다도 지대하였다는 점을 볼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쌍 봉 사

지금 이 순간 행복도량

회주 **영 조**

주지 **증 현**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산의로 459
전화 061)372-3765~66

대한불교조계종

자 운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6번길 8-8
전화 062)222-8296

대한불교조계종

천 룡 사

주지 **무 등**

＊신행기도회＊
매월 둘째 일요일(명산명찰순례)

＊묘법연화경 독송모임＊
매월 음력 1일~7일

＊다라니 독경 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기도회)

＊성덕회＊
성덕사 포교원 개설을 위한 준비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26-23
전화 062)234-1338 팩스 062)234-0108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포교당

금 당 선 원

주지 **진 표**

신도 및 활짝회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53번길 24-1
전화 062)653-8108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 흥 사**

주지 **덕 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대한불교조계종

자 성 사

회주 **명 지**

주지 **일 주**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55번길 6-1
전화 062)381-0878

한국불교태고종

정 인 암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43-1
전화 062)523-0035

한국불교태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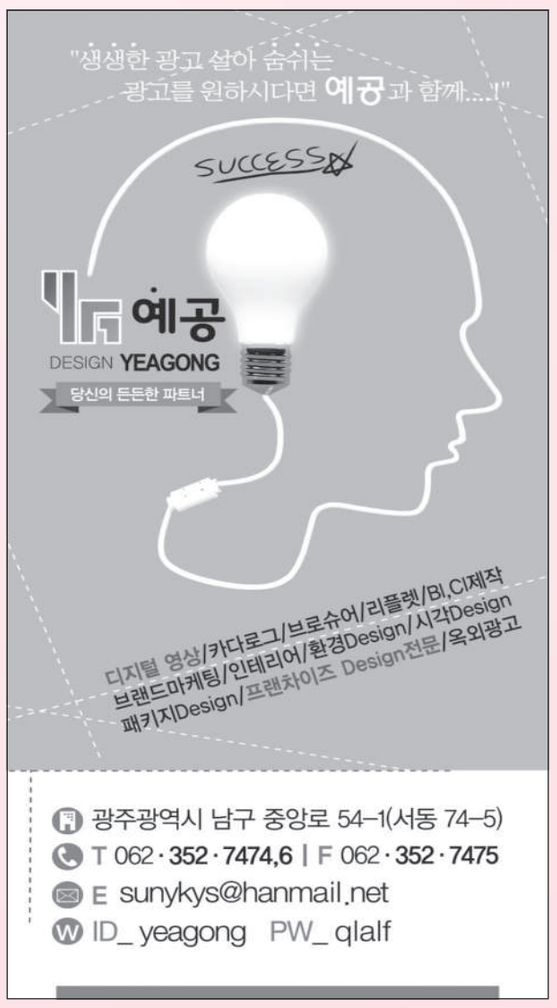
만 덕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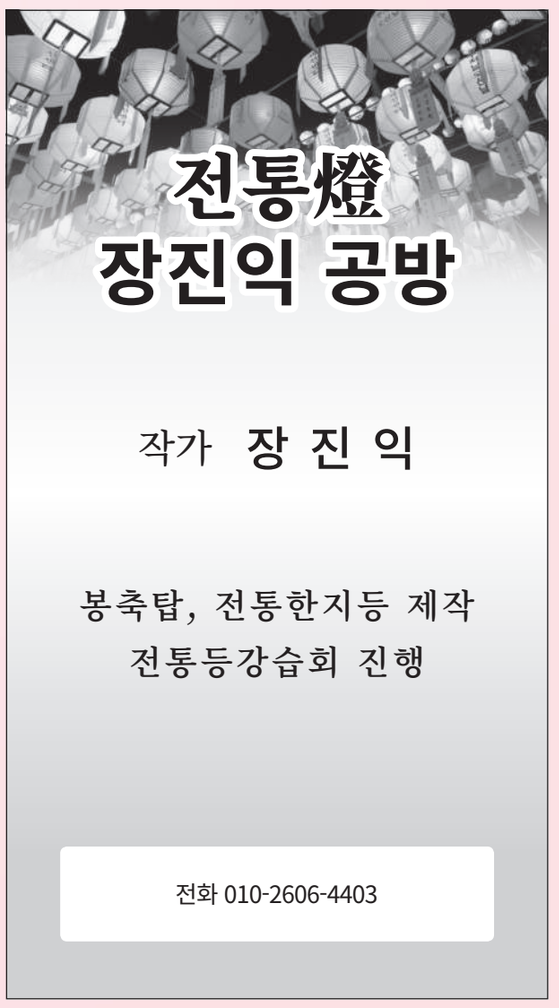
회주 **시 각**

주지 **혜 성**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22
전화 062)363-6617





작가 **장 진 익**

봉축탑, 전통한지등 제작
전통등강습회 진행

전화 010-2606-4403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⑩ '卍字'의 비밀



▶ **한줄 요약**
미국 보스톤미술관 소장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의 만자(卍字)는 뒤집힌 모양이다. 이는 고려불화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만자는 차크라의 도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그 방향은 크게 상관없다.

卍字, 삼라만물 생성 원리

고려불화 대논란! '卍字 방향'

고려불화를 논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만자(卍字)의 방향' 이다. 만자의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만자가 잘못 그려졌다", "역(逆) 만자이다", "거울에 비친 듯 뒤집혔다" 등 격렬한 토론이 오간다. 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 보시다시피 〈원각경변상도〉의 상단 한 가운데 장엄 문양(그림1)을 보면, 그 핵심에 '만자'가 있다. 만자에서는 '깨달음의 빛' 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을 여섯 겹 빛깔의 둥근 광배로 표현했다. 이것을 '육색 광명' 이라고 한다.

'육색 광명' 이란, 초기경전(니까야)에 의거하면, 부처님께서 '12연기' 를 설하실 때 뿜어져 나왔던 찬란한 빛이다. 존재의 실체인 12연기, 그 조건(빳타나)들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빤야)의 빛' 이다. 둥근 광배 주변으로는 서기(瑞氣)가 다시 소용돌이치며 양 갈래로 퍼져나가는데, 이 서기는 애초에 중심 부처님의 머리 또는 육계에서 오롯하게 뿜어져 올라온 것이다.(지난 연재 그림2 참조)

두 갈래 서기가 서로 회전하면서 꽈배기처럼 용솟음하더니, 만자의 결정으로 실체를 드러내며 중첩되고, 다시 그 만자에서는 온갖 장엄의 꽃구름 서기가 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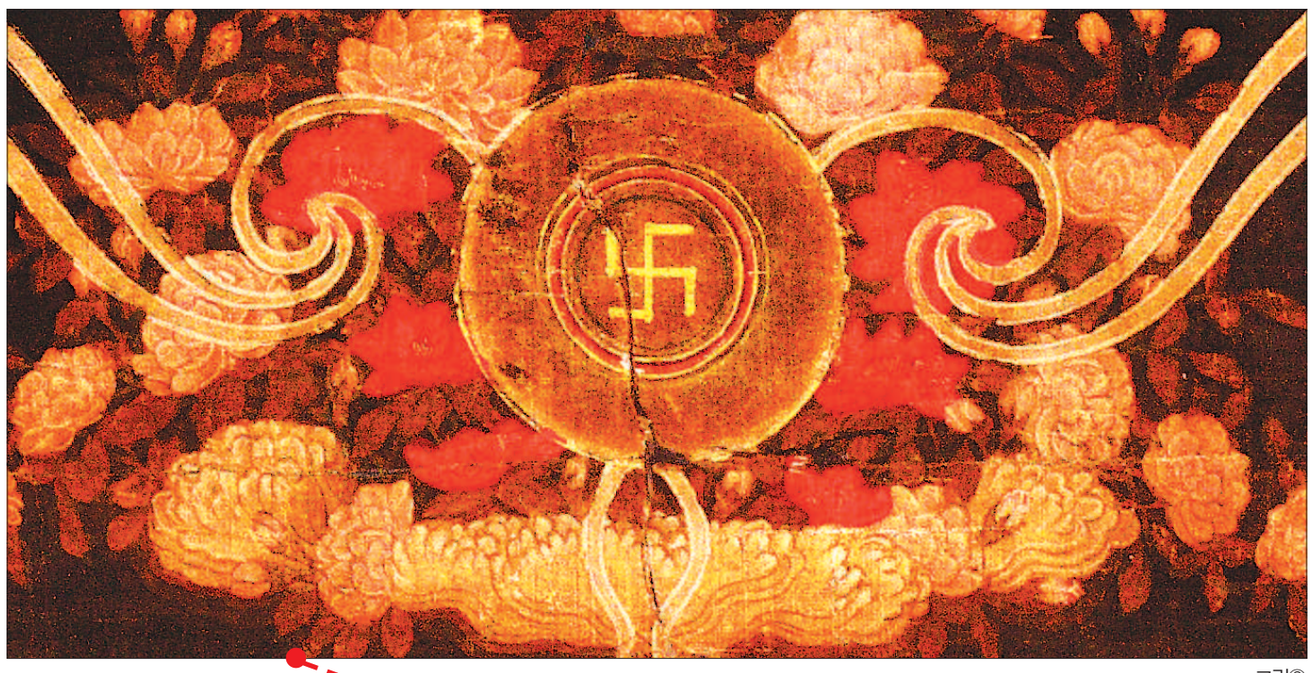
'만자= 부처님' 동격로 묘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둥근 광배의 표현이다. 중심 부처님의 몸체 주변에도, 만자의 주변과 동일한, '육색 광명의 광배' 가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육색 광배의 한 가운데에, 부처님도 있고 만자도 있다. 부처님의 몸체에서도, 또 만자의 몸체에서도 동일한 '육색 광명' 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은, 이들(부처님과 만자)이 '동격(同格)'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을 '기호' 로 표현할 때는 '여의주' 또는 '만자' 로 표현하는데, '여의주' 로 표현할 때는 '법신(法身)' 을 의미하고, '만자' 로 표현할 때는 '보신(報身)' 을 의미한다. 법신은 여여불변 상주하는 '물아일체의 마음' 이고, 보신은 그것이 '장엄하는 마음' 이기 때문이다. 그 장엄하는 모습의 기본은 '빛의 소용돌이' 즉 '만자가 돌아가며 모습' 으로 표현된다.

다시 고려불화의 일대 논란, 만자의 방향 문제로 돌아가 보자. 〈원각경변상도〉에서 뿐만 아니라, 고려불화의 주된 주제인 아미타부처님 · 비로자나부처님 등의 가슴 한 가운데에는 만자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고려불화와 매우 유사한 중국 남송 및 원 나라 불화에는 가슴에 만자가 없다. 그래서 만자의 유무(有無)는 고려불화를 감별하는 주된 트레이드마크(대표 상징)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려불화에 등장하는 많은 만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 방향(시계 방향)' 으로 그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입력 프로그램에서 '만자' 를 입력하면, 이런 한자 '卍字' 가 뜨기에, 우리는 당연히 만자가 '왼쪽 방향(반시계 방향)' 으로 꺾쇠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지불식간, '정식' 만자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고려불화 속 무수한 만자들의 공통 방향은 오른쪽이므로, 오히려 오른쪽 꺾쇠가 전통 만자의 전형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자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②

〈원각경변상도〉 뒤집힌 卍字
대부분의 고려불화서 발견돼
報身 의미 卍, 부처님과 동격
차크라에너지 회전 표현키도
왼 · 오른쪽 방향성 상관없어



그림①



그림③

그림①. 미국 보스톤미술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의 모습.

그림②. 노사나불 정수리 위의 '만자(卍字)'로 卍이 뒤집혀 있다. 이는 고려불화에서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③. 다양한 만자(卍字) 문양들. 만(卍)은 세계 종교에서 사용되는 문양이다.

유동적 '만자' 방향, 그 원리?

〈원각경변상도〉의 '만자 표현' 은 눈에 가장 잘 띄는 정중앙 상단에 묘사되었다. 부처님 정수리 바로 윗자리 화면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만큼, 그 상징성이 크다.

본 작품 이외의 여타 고려불화에도 만자가 나타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로 아미타부처님 또는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슴에 새겨진 경우가 많다. '바탕자리' 또는 '깨달음의 자리' 에서 '서기가 돌아가는 모습' 또는 '보신이 작용하는 모습' 을 문자화한 것이 '만자(卍字)' 이다. 보통 부처님 가슴에 묘사된 만자는, 제5차크라(가슴 차크라)가 열린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가슴 차크라가 열려, '바탕의 에너지' 또는 '우주의 에너지' 와 소통된 모습이다. 본 작품처럼 부처님 정수리 위에 그려진 것은, 제7차크라(백회 차크라)라 열려 그것이 '장엄에게 작용'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만자처럼 돌아가는 '십자형의 소용돌이' 문양은, 단전에 집중을 할 때나 또는 차크라가 열릴 때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십자 모양의 찬란한 빛이 캄캄하고 어두운 심연을 바탕으로 찬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십자 모양의 빛 에너지는 회전하기 시작한다. 평면인 2차원에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다가, 청정에너지가 매우 활발할 경우, 3차원의 공간을 형성하며 돌기도 한다. 조건에 따라, 작게 돌기도 하고 광활한 우주의 블랙홀처럼 크게 돌기도 한다. 빠르게 돌기도 하고, 매우 천천히 돌기도 한다. 그 움직임과 형상이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그 기본 단위는 똑같다. 처음 시작은 '십자 문양' 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 '돈다는 것!' 그렇다면,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방향은 마음의 문(意門)에서 내가 주는 의식의 방향에 따라, 좌로 돌기도 하고 또 우로 돌기도 한다. 그러니 방향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이다.

'빛의 바람개비' '卍'자로 표현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신을 맑혀 나아가면, 다시 청정한 에너지와 합일하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그 때 '바탕의 문' 또는 '우주의 문' 이 열리는 모습을 기호화 한 것이 만자이다. 십자로 열리며 찬연하게 돌아가는 빛 에너지, 그것을 본래 형상의 근거하여 상형문자(象形文字)로 나타내면 '만자(卍字)' 가 된다. 만자는 그 움직임이 변화무쌍하기에 만자의 표현 역시 매우 다채롭다.

만자는 사마타(집중) 수행의 결과물이기에,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원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카톨릭 사원 등지에서도 다양한 만자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또 원시종교의 표현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확인되는 문양이다. 이들 각 종교에서는 신(神) 또는 신성성과 합일될 때, 그 문이 열리는 모습으로 인식하기에, 만자는 세계 종교의 '공통 문양'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찰 예불에서 거의 필수로 염송되는 의상조사 '법성게' 는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라는 그림의 바탕 위에 쓰여진 것이다. 법계도라는 것은, 법계(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도해한 것, 그림으로 그린 것이란 뜻이다.

법계도의 유래는 이렇다. 의상대사가 중국 지상사 지엄대사 문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말해보라고 하자, 대사는 그 증표로 만자(卍字)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만자의 네 꼭지를 연달아 빙빙 돌린다. 만자의 네 꼭지가 소용돌이 문양으로 거침없이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 돌아가는 선들의 사이에다가 자신의 오도송(悟道頌) '법성게' 를 써넣는다.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본인이 체험한 것을 먼저 만자의 '그림' 으로 나타내고, 다음으로 '문자' 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화엄일승법계도〉이다.

만자의 원리를 정리하면, '찬란한 빛의 바람개비가 돌면서 나타난다' 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모습의 소용돌이로 전개되지만, 기본 패턴은 '원형으로 돈다' 이다.

왜 원형으로 도는가? 여기서 '조건의 원리' 가 적용된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것' 을 '조건 지어진다' 라고 하고, 이것을 불교용어로 '연기(緣起)' 라고 한다. '연기' 는 불교가 말하는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기본 원리' 이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그 원심력으로 돌기 시작한다. 돌면서 파장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소용돌이의 파장' 속에서 모든 만물은 태어난다. 삼라만상 생성 원리의 바탕에는 '만자' 가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 다문화 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341호 | C10 | 전면광고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수능엄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3억

◎위치 : 경북
◎대지 : 150평
◎건평 : 80평
◎시내, 생활편리
◎매가 : 7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통 암자 안내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등기 912평(약 1천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기와 단청, 공원같이 아름다운 곳
●은행 1억5천 안고 2억5천만 합 4억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3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3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 3과(기증)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토굴 · 토지 구함

●정업수행을 하는 비구승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토굴이나 토굴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합니다.

010-7678-5536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부지 : 530평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 1평
●가액 : 2억(절충)

010-9656-0108

경주 남산 최고의 명당사찰

●위치 : 경주 남산 최고의 명당사찰
●총부지 약 2000평
●법당, 요사채, 황토방, 정자, 토굴방
●주변전체가 소나무 숲임
●경주IC에서 10분거리
●가액은 현장 답사후 결정

010-4536-1456

전원주택 안내

(암자도 가능)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1길 52-1
●대지 191평, 전원주택 30평
●황토방 5평, 창고 10평
●태양광, 마당주차 5대
●가액 2억 7천만원

010-3882-289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대지 230 평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와티길 212, 총평수 대략500평
●바다가보이고 넓은잔디밭에 조경 잘되어있음, 대웅전, 요사채2층
●사천읍15분거리 축동IC 5분거리
●매매가 4억, 대출 1억가능
●월.전세 문의불문 꼭사실분만 전화 (사찰구입시 몸만오시면됨)

010-5430-4672

지리산 명당터 안내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건물 36평 2동 8평 2동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결정

010-4752-0459

청정토굴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614
●대지 85평
●법당 16평, 요사채 12평
●가액 : 7천만원
●오염되지않은 청정도량
●개인사정상 양도함

010-4911-457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전국 사찰, 또는 암자에서 재 건축및 재 개발에 포함되어 보상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스님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종단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 불교 조계종
총괄사업 본부장 현광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
02-2198-5022~4 , 010-6209-5099
※ 수 많은 스팸 전화로 인해 전화를 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문자로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초빙 동참 안내

지역에 법인지사 설치시 법인 주지사 임명
지역에 사암 등록시 주지 임명
수행승 자격·신분증 부여
세무서 법인번호 등록, 법원 등기 관 등록
불교문화법인
대표법사장 법광 종법주
서울시 노원우제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법당,신당,무료철거

퇴송의식
스님 항시 대기
모시던 부처님 어려운 스님들께 이운시켜 드립니다
세계불교 지장종 종정 운산 합장
(폐기물 처리비, 소각비만 받습니다)
010-2395-3333

★검 색★

GD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명 상 쉼 터

30,000여평의 수려한 계곡 자연경관, 심산의 질 좋은 식수, 공기, 황토방 생활, 명상과 건강관리를 우선시하여 지내실 몇몇분을 기다립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802-7102

신경성질환 원인분석 치유

❖ 우울증이 원인인 실어증 시력상실 모든 신경성 철학과 한의학의 심리 치유
❖ 부부문제와 의부증 의처증
❖ 사찰에서 꼭 필요한 상담 교육
010-4078-7810 慧泉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모십니다. 숙식제공

010-5049-1533

부전스님 모십니다. (시내선원, 포항)

010-2811-0118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특수 기도

스님에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더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원자의 母情佛心 ⑩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가 두 명이다. 친모는 싯다르타 태자를 낳고 7일 만에 죽고, 이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다. 태자는 출가해 정각을 이뤄 부처님이 됐고, 그를 길러준 어머니는 출가해 제1 비구니가 됐다.

부처님 어머니, 제1비구니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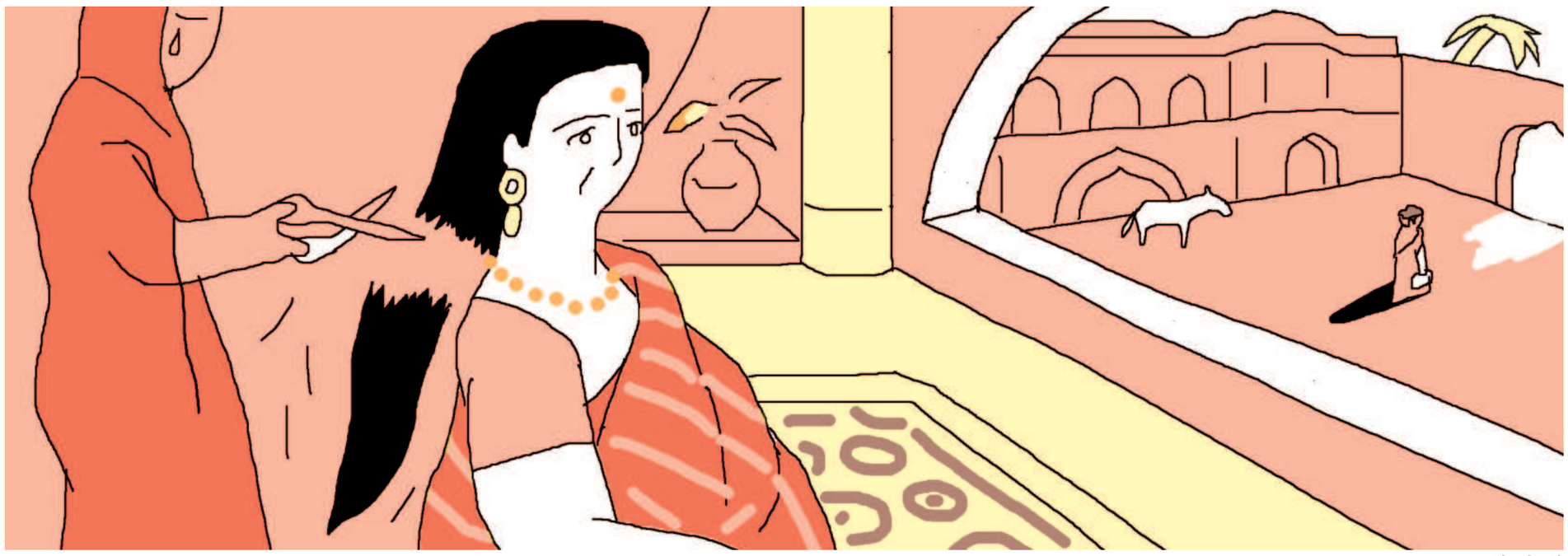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에 닿는 모든 것이 그대로 불성의 현현임을 느끼게 하는 5월이다. 동네 뒷산의 아카시아 향기가 코를 찌른다. 도서관 옥상엔 분홍빛 패랭이꽃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계절을 초월해 피어있는 코스모스 몇 그루도 아름답다. 이 눈부신 계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역사적으로 비구니 스님 출가 1호는 부처님의 어머니다. 세상의 모든 비구니 스님들의 스승이자 1호 선배가 부처님의 어머니인 것이다. 아들이 보장된 왕위를 버리고 세간을 떠나 혹독한 수행 끝에 부처가 되었고, 아들이 간 그 길을 따라 어머니 또한 왕비의 옷을 벗고 출가했으니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이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두 분이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출산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길러준 이모가 또 한 분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道)를 이루고 고향 카필라성에 들렀을 때다.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을 설했다. 세상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며 그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에 설했다. 부처님이 설한 진리와 그 범접할 수 없는 위의에 반한 것일까,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들 라훌라와 이복형제들을 비롯해 사촌형제들까지 젊은 청년 수백 명이 출가했다.

급기야 어머니도 출가수행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아들이 있는 방을 찾았다. 아들은 선정에 든 듯 고요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니는 온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아들이었던가.

태어난 지 이레 만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을 자신이 키웠다. 내 속으로 낳진 않았으나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다. 자신의 아들은 유모에게 젖을 물리게 했어도 저 아들만은 품에 안아 젖을 먹였다. 조금도 친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젖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었다.

그러나 아들은 명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았다. 어쩌면 일찍 돌아간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정을 주었다. 아들은 성 밖의 국민들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평등하지 못한 삶에 고뇌하는 것 같았다. 커갈수록 가난과 불평등의 사회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생로병사를 되풀이 하는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물어보았다. "너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왕자가 아니냐. 그러려면 전투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전투에 능하려면 사냥을 통해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 걱정이구나."

"어머니, 꼭 전쟁을 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싸우지 않으면 왕국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아들은 그 후로도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는 길을 모색하는 듯 했다. 아무래도 국왕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전히 활을 쏘고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으나 그것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훌쩍 말을 탄 채 담을 넘어 세간 밖으로 사라졌다. 말할 수 없이 서운했다. 돌아오리라 기다렸다.

기다리기를 여러 해, 드디어 아들이 왕궁을 찾았다. 아들의 모습은 늠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아침마다 이 집 저 집으로 밥을 빌러 다닌다고 했으나 아들의 모습은 당당함과 위의로 가득했다. 보는 사람마다 무릎을 꿇고 귀의한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두고 갔던 자식을 보아도 동요함이 없었고, 아내인 태자비에게도 담담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마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저도 출가를 하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

사성계급이 지금보다도 더 강했을 당시 인도사회에서 여성이 출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의 출가는 더욱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어느덧 일흔 살이었다. 그토록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성계급을 뛰어넘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선언했던 부모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어머니, 여성의 출가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완곡하게 집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수도하는 방법을 일러드렸을 것이다. 어머니는 부처님이 카필라 성에 머무는 동안 몇 번이나 출가를 간청했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고, 아들은 성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출가에 대한 염원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다. 아들이 떠난 후 더욱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복락은 꿈같고 물거품 같고 허깨비 같이 느껴졌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픔이 차오르는 감정들도 한낱 이슬과 같고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번갯불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감정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 속을 윤회할 것 같았다. 출가한 아들은 그것을 벗어난 것 같았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인 자신은 그걸 알 수 있었다.

태자시절 부처님을 키운 모친
출가 · 정각 후 부처님 만나고
스스로 발심해 출가하길 간청
아난의 도움에 여성출가 가능
제 1호 비구니 출가자로 기록

또 아들은 모든 석가족들을 향해 '영원한 나'를 찾아야 자유로울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자신도 드디어 왕궁을 떠나 아들에게 귀의,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머리를 삭발하고 화려한 왕비의 옷을 벗었다. 아들이 떠나고 5년 뒤였다.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왕궁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 500여 명의 여인들이 따라나섰다. 며느리이자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아쇼다라 태자비를 비롯해 왕궁에서 일하던 여인들, 석가족 여인들이 먼 길을 떠났다. 왕비를 따라 수 백리의 흙길을 걸어가는 여인들을 상상해본다. 이들이 오늘날 비구니 스님들의 최초 선배들이다. 2600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는 먼 길을 걸어와 아들이 머물고 있는 기원정사 문 앞에 섰다. 온몸에 먼지가 가득 앉아 있었다. 신발은 해어졌고 발은 부어올라있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아난이 이 광경을 보았다. 맨 앞에 서 있는 늙은 여인을 보자 곧바로 그녀가 부처님을 키운 어머니이자 왕비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마임을 알았다.

"아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머니도 아난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 카필라성에 오셨을 때 출가를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기다릴 수 없어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난감했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난에게 돌아가시게 하라고 전했다. 아난이 인간적으로 호소했다.

"세존을 정성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이십니다. 노쇠한 몸으로 카필라 성에서 이곳 기원정사까지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부처님이 끝내 허락하지 않자 아난이 지혜를 내서 말했다.

"여인들도 계를 받고 정진하면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출가를 허락하셔서 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마침내 허락을 했다. 그리고 함께 상주하고 있던 천이백 비구들을 불러놓고 여인들도 출가할 수 있음을 선언했다. 위대한 선언이었다. 계급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고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도임을 보인 일대 대사건이었다.

왕의 자리를 내놓고 집을 떠나와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그 아들에 그 어머니였으니 출가 후 얼마나 치열하게 정진했을까. 왕비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영원한 자유를 위해 고행의 길로 들어섰으니 물불을 가리지 않았을 것 같다. 더구나 자신의 뒤에 500여 명의 여인들이 출가해 따라오고 있었으니 그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이다. 훗날, 부처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칭송했다.

"내 성문 가운데 제일의 비구니로서 출가하여 오랫동안 도를 배워 국왕의 존경을 받는 이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이고, 지혜롭고 총명한 이는 바로 식마 비구니이며, 신족(神足)이 제일이어서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는 이는 바로 우발화색 비구니이고, 두타법의 열 가지 한애(限碍)를 행하는 이는 기리사구담미 비구니이고…(중략)"

이로써 세상의 모든 여성들의 출가가 시작되었다. 당시 자이나교 등을 비롯해 다른 종교들이 여성의 수행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성계급이라는 철벽같은 계급제도로 인해 자유가 허용되지 않던 상황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용함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여성들에게 인간 해방의 출구를 마련해준 분이 부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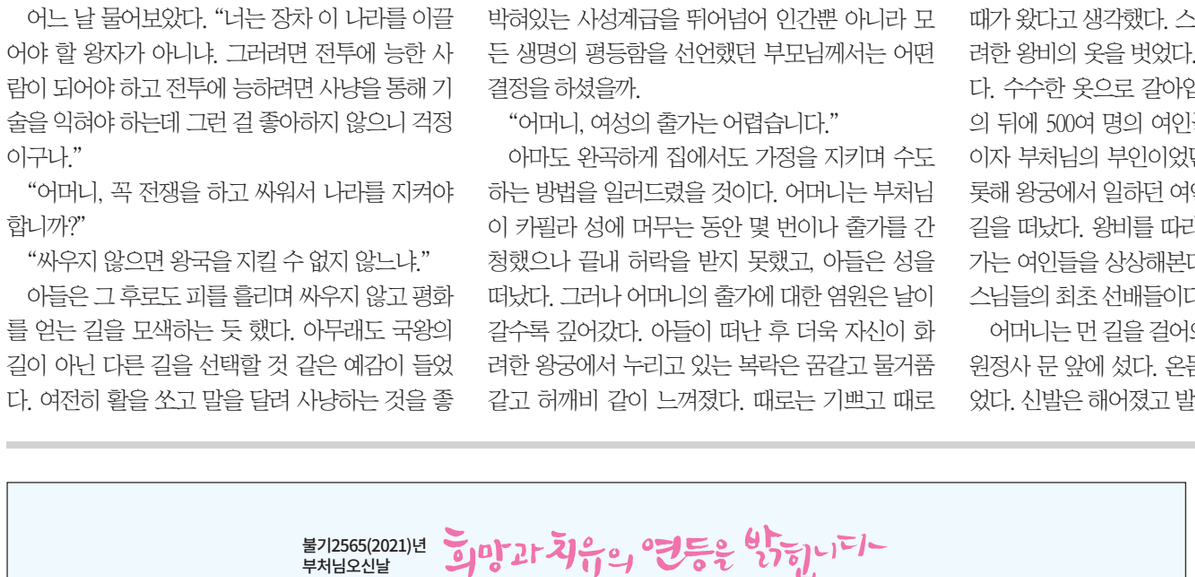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는 이후 영원한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길이 되어주었다. 시공간을 초월해 많은 왕비들도 출가했고 전쟁에서 지아비와 자식을 잃은 양반가의 여인들도 출가하게 했다. 못 배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출가해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 아들딸이 출가하자 따라서 출가한 어머니들도 적지 않다. 어떤 어머니는 도를 이루고 다시 돌아온다는 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자 출가를 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출가를 하며 집을 떠나자 함께 집을 나와 출가했다.

불교 역사상 비구 출가 1호는 부처님, 비구니 출가 1호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인류의 성자가 된 부처님 집안답다.

〈작가〉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작은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재)명원문화재단
명원 다도예절문화원 다도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9월 개강 안내

교육과정 소개

구분	과정명	기간	주 교육 내용
명원 다도예절문화원	준사범 과정(3급)	15주	잎차 다례법, 다례 예절
	사범 과정(2급)	15주	가루차 다례법, 다례 예절
명원 다도대학원	다인 과정(1급)	1년	한국 차 문화, 차 품평, 함말차
	명인 과정(지도사)	1년	세계 차 문화, 궁중다례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공익법인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인력양성기관입니다.

(재) 명원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myungwon.org
TEL | 010-5020-5830
E-MAIL | myungwonteaacademy@gmail.com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주 지 **선 관**

대중일동·신도일동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전화 031)357-3916, 2695
팩스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 (남현동)
전화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 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 신중3일기도
초삼일 : 독성3일기도
16일 : 산신기도
18일 : 지장재일 법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전화 02)988-1996, 9300 / 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조 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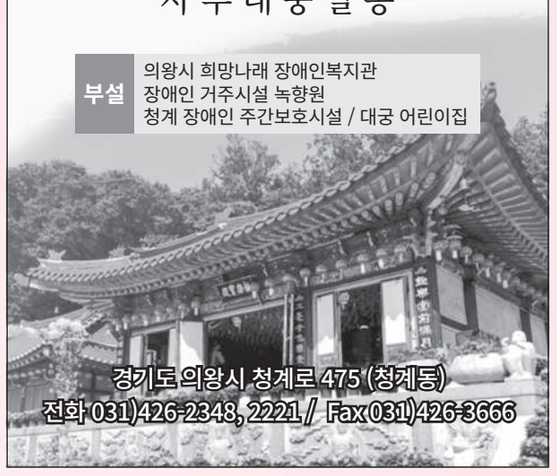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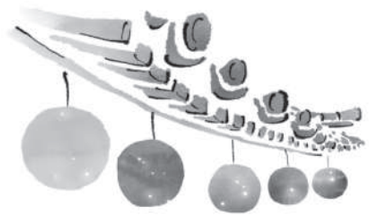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전화 02)923-058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전남정**
총 무 **김지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동국대학교 건학 115주년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3주년
졸업동문 35만명

동국대학교 발전이
한국 불교 발전입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 대 신** 外 35만 동문 일동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302호
전화 02)733-0303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전화 02)587-4677, 팩스 522-5666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⑩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



▶ **한줄 요약**
잠깐 떨어져 바라보면 진리가 보인다.

스스로 한계 제거, 드러나는 '眞我'



라마나 마하리쉬 (Ramana Maharishi)은…

1879년 남인도 출생. 열일곱 살의 어느 날,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다가, 육체가 아닌 자기의 참 존재가 실재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내면에서 울리는 '나'의 소리를 들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성산으로 알려진 아루나찰라산으로 가서 합일의 희열 속에서 깊은 삼매에 들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단지 그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풀리고 형언할 수 없는 축복에 휩싸이는 경험을 하였다. 그를 만나면서 크게 변화된 영국인 폴 브런턴이 〈인도의 신비를 찾아서〉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1950년 열반에 들 때까지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실재가 있으며, 그 실재로서의 '진아'를 사는 법을 가리켜 보였다.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으로는 〈있는 그대로〉, 〈그대 자신을 알라〉, 〈마하르쉬의 복된 가르침〉, 〈불멸의 의식〉 등이 있다.



진리를 깨닫는 두가지 방법
헌신·자아탐구서 성찰 추천
영화보되 영화 인지와 같아
세속유혹 여의는 깨달음 길

음표 아닌 오선지에 머무는 법

열두 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맞게 된 한 소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아버지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걸까?'

주위의 한 어른에게 그런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해 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거야."

소년은 그때 처음으로 육체는 그 인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는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삶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의문부호가 품어지게 된다.

열일곱살 되던 해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그 공포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 그래, 죽음이 왔다.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죽음의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생각하자, 정말로 팔다리가 뻣뻣해졌다.

'그래, 이 육체는 죽었다. 이 육체는 화장터에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 재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육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것일까? 이 육체가 과연 나일까?'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 느낌에 잠겨 있고 나서 얼마 후, 육체와는 별개인 강력한 존재의 힘이 느껴졌다. 그는 내면에서 울리는 '나'의 소리를 느끼고는, '진정한 나'는 육체를 초월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이후 계속해서 '진아(참나)'는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생각들은 악보의 음표들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갔지만, 이 '진아'는 마치 악보의 오선처럼 계속 이어졌다. 육체가 말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이 '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체험 이전에 나는 나의 '진아'를 전혀 알지 못했다."

존재의 참맛을 알아버린 이 젊은이에게는, 외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헛껍데기 같아서 너무나 싱거워졌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데도 관심이 없어졌고, 학교 공부도 시시해졌다. 사원에 가서 여러 신상들 앞에 몇 시간이고 그냥 서 있는 일이 많아졌다. 일종의 열병 같은 것이었지만, 아주 즐거운 열병이었다. 그리고 이런 열병은 젊은이로 하여금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는 길에서 이탈하여 '영원한 출가'를 감행하게 한다. 아루나찰라, 성스러운 산으로 간 그는 머리를 깎고 순례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는 곧바로 삼매에 든다.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이었고, 모기, 파리, 지네, 개미 등 온갖 해충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벌레들이 허벅지와 발을 물어뜯어 상처가 나고 피가 났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삼매에 든 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여러 날이 흘러갔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지하실 입구를 지나가다가, 개구쟁이들이 지하실 안을 들여다보면서 안쪽으로 자꾸 돌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된다. 지하실 안으로 들어가보니, 캄캄한 가운데 웬 수행자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그는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와서 그의 몸을 흔들어댔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깊은 삼매에 든 그의 몸을 그들이 딴곳으로 옮기려고 안아 들자, 그의 몸 여기저기에서 피와 고름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깊은 삼매에 들 수 있단 말인가? 전설에나 나오는 요기 행자 같다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동네방네 소문을 냈고,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침묵의 가르침

그는 깊은 삼매에 들어 밤인지 낮인지도 거의 알지 못했다. 간혹 눈을 뜨면 어떤 때는 밝았고 어떤 때는 어두웠다. 그가 눈을 뜨면, 사람들은 우유나 죽, 음료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입을 벌려서 떠넣어 주었다. 그것이 그가 먹은 음식의 전부였다. 훗날 라마나 마하라쉬는 '육체가 움직이면 음식이 필요해지고,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이 필요하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잠을 잘 필요가 없으며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소량의 음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달이 지난 후부터는, 처음 삼매에 들었던 지하실을 떠나 사원 경내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그의 삼매는 계속되었다.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그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문제를 가지고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좀처럼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서 그윽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에 싸여, 얽혀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그의 발밑에 엎드곤 하였다.

영적으로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는 침묵을 통해서 법을 전했지만,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쓰거나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다.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는 이미 진아의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전하는 법문은 까비르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라고 읊었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나'라는 생각이 망상이라는 것을 깨우치기만 하면, 그 즉시 실체의 자리에 이미 서 있으며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가 아니라 스크린 자체에 머물라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꿈을 꾸고 있으나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났다가 사라져가지만, 나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영화와 같다.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화면들은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져 버린다.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다. 스크린은 스크린으로서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 자신의 진아로서 남는다. 그대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스크린 위에 나타났던 화면들이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버리듯이, 그 세 가지 상태들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 위에는 때로 수많은 파도가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큰 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어느 경우에나 그냥 거기에 남아 있다. 스크린은 결코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어떤 화면도 스크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깨어 있는 동안, 꿈꾸는 동안, 잠자는 동안,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의 진아로서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화 속 드라마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조건화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헌신의 길과 자아탐구의 길

라마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아탐구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의 길'이다. 헌신의 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자, 즉 신에게 완전히 맡겨 버리고, 에고와는 전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길이다. 기차를 타면 기차가 모든 짐을 다 운반해 준다. 기차에 탄 채로 짐을 머리에 이거나 가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왜 짐을 기차에 내려놓고 편히 쉬지 못하는가? 기차에 승차한 사람이 짐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듯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의 커다란 힘에게 모든 것을 내맡겨 버리면, 만사가 스스로 진행될 것이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행위자라는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일 뿐, 인생사 모든 것을 '더 큰 힘'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 큰 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맡기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면 나프탈린을 오래 두면 다 날아가 버리듯이, 에고의 마음은 증발해 버리고 그 큰 힘만이 남게 될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이원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진아만이 현존하게 될 것이다.

라마나 마하리쉬는 '더 큰 힘(신)'을 상정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헌신의 길'보다는, '자아탐구의 길'을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길로서 가리켜 보였다.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나'의 근원을 찾아 그 근원에 머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경험담과 그 길이 있게 될 것이다.

개체적인 자아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이 거짓되게 만들어낸 것이고, '진정한 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스스로를 한계짓는 경향을 가진 마음이 사라졌을 때만이, 진아는 온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온갖 희로애락이 상연되는 화면이 사라지고 하얀 스크린만 남는 상태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깨달은 사람은 스크린과 화면들이 모두 진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깨달은 사람은 화면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 화면들이 스크린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속지 않을 뿐이다.

〈작가〉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지장참회도량
도솔산 참당암
참당선원
선원장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전화 063)563-3440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주불교연합회
회 원 일 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노블레스웨딩홀 별관 4층
전화 063)714-3309 팩스 063)276-3555
사무국장 010-7382-3309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전북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석가여래행적송
주 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대한불교천태종
대전 광 수 사
주 지 정장호 합장
신도회장 박병호
신도대중 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63번길 26
전화 042)823-0332~4
팩스 042)823-6779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정사
불전연구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11
전화 02)395-5946

제2교구 용주사 부모은중 참선도량

수락산 **약사암 일심선원**

수목원 용암산 만년결사
제 2 일심선원 신축발원

주지 **공수 성곡**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5길 67-20(상계동)
약 사 암 ☎ 02)937-9132
일심선원 ☎ 02)934-4153

대한불교조계종

왕산사

주지 **왕 산**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193
전화 031)533-3245 / 팩스 031)553-3246
www.wangs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설 문**

통도사대전불교대학
학장 **설 문**

사부대중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191 2층
전화 042)531-1332
cafe:cafe.daum.net/yongsoosa

대한불교조계종

노적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남북평화통일기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15-35(북한동)
전화 02)353-4924 / 팩스 02)386-4198

부처님 오신 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륵정토사
초무한참나선원

<나는 깨달았다> 비대면 설법
"초무한자 또는 짜가스님"
YouTube 검색

사부대중일동

미륵정토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전화 041)855-3566

초무한참나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전화 02)912-1050

글씨로 그린 부처님

대한불교 본조계종 **보문암**

주지 **지 호**

사부대중일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99, 3층
(부평동 10-975번지)
전화 010-5482-8559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정은용**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전화 02)732-1206 / 팩스 02)732-1207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회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석가원



석가원은 편지원의 동방상단에 위치하고, 불부, 연화부, 금강의 3부 중 불부에 해당한다. 석가원에서는 부처님의 중생교화로서 지혜를 말하고 있다. 석가원은 석존을 중심으로 39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4종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석존(釋尊)과 4시존(侍尊)** - 석존은 불보, 관음보살은 법보, 허공장보살은 승보를 나타내어 3보가 형성됨을 보이고, 무능승과 비(妃)는 석존이 보리수 아래서 사마를 항복시킬 때 그 힘을 낸 것이다.

2. **불정(佛頂)존** - 부처님의 지혜(智慧)는 머리 정상의 육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냄을 말한다. 승불정, 최승불정, 광취불정, 최쇄불정 등을 말한다.

3. **부처님의 덕(德)을 보여준 제존(諸尊)** - 일체여래보는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여 인도하고, 여래호상은 중생의 복행의 원을 성취하게 한다.

4. **성문(聲聞)연각(緣覺)의 제존(諸尊)** - 4인의 연각과 8인의 성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법이 현실세계에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⑩ 김재영 선생님

부처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스승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생각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다. 학창시절의 나는 공부를 잘하거나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 아니었다.

장애로 인해 상처를 받곤 했으나 누구에게도 표현은 잘 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일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부르는 문장을 쓰거나 국어 시간에 시를 외워서 받아쓰기 하듯 쓰는 과제, 타 과목의 실기 등은 때때로 상처가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상처라기보다 어려움이 컸다고 해야 맞겠다.

한번은 가정 선생님께서 필기시험 점수가 높으니 이쁘지 않은 나의 자수 실기 점수를 필기 점수에 비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못한 자수가 어찌 자신의 점수와 같을 수 있느냐고 투덜댔다.

선생님께 나 자신이 보아도 가정실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를 잘 주지 마시라고 하곤 조퇴를 해버렸던 일이 있다.

친구들보다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학교생활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숨은 노력과 나를 보듬어 주고 보이는 소질을 제대로 인정해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앞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줄 서계신 선생님 중에 부처님 얼굴을 닮은 한 선생님께 자꾸 눈길이 갔다. 스승의날과 부처님오신날에 생각나는 선생님이 바로 그 선생님이다.

그분은 동덕여고 국사 선생님으로 불교학생회를 결성하고 지도하셨던 김재영 선생님이다. 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내 특별활동반은 문예반이었지만 담당 선생님이 부처님을 닮은 듯한 이유로 불교반을 택했다. 활동은 한 귀퉁이 앉아 있는 듯 없는 듯이 조용히 했고 축제나 수련회 등은 상황을 살펴 빠지기도 했다.

내 기억 속의 불교반 활동 기억은 아주 파편적으로 산재해 적지만, 동덕여고의 불교학생회는 참 유명했다.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생각나는 스승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결성하고 지도해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행복해져"



동덕여고 불교학생회를 결성하고 지도했던 김재영 선생님.

불교학생회의 배경과 중심에 있던 김재영 선생님은 국사 시간에 가끔 부처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하셨고 부처님 가까이 온 제자들이 계속 부처님 품에 머물 수 있게 하려고 개최했던 연꽃들의 행진은 합창, 연극, 탈춤 등의 공연을 펼치는 큰 축제였다. 이 축제는 1999년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창신동에 있던 학교가 조계사와 가깝던 관계로 조계사에서 수계법회도 보고, 무진장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도 해주셨던 기억도 난다.

선생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펴낸 불교성전을 주시면서 불교반 도서이니 읽은 후 반납하라고 하셨다. 끝까지 읽지 못한 그 책은 아직 나의 책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유는 생각나지 않지만 반납하기 싫었던 기억도 있고 날마다 책장에서 끝까지 읽어 달라면서 말을 걸고 있다.

학교생활 중에 선생님과 학생들은 나를 특별나게 대우하지는 않았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편견과 차별이 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일도 가끔 있었으나 스스로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존재감 없이 소심했던 학교생활에서 불교반 활동도 소심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주도적으로 장애인모임 활동을 하게 했고 보리수아래 모임 결성과 운영에 보이지 않는 바탕이 되었다.

보리수아래 모임에 오셨던 선생님은 장애인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구성원임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바른 역할을 찾아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무조건적인 우대가 아니라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지해주는 것, 그 게 부처님처럼 살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시기도 했다.

열흘 전 조계사에서 선생님을 뵈었다. 선생님은 올해 봉축 공연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물으신다. 설명하는 나의 말 중간 중간 변함없이 "고럼 고럼 그래야지"라고 말씀을 하신다.

안성 도피안사에서 주중을 지내시는 선생님은 현재 불교 전반에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거나 전법 활동과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붓다스터디 빠리사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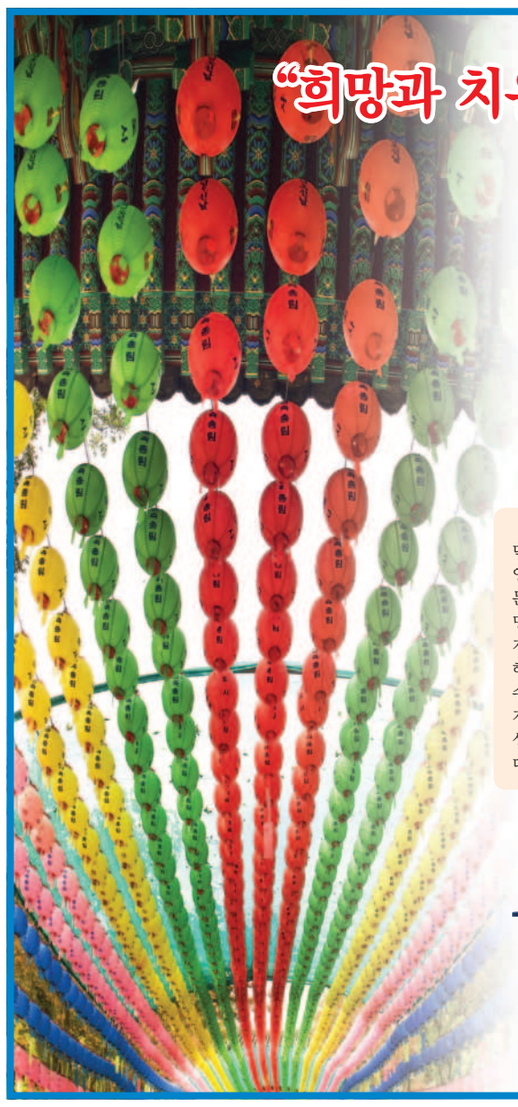
선생님은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내 행동의 결과이며 오늘의 내 행동은 내일의 나를 이루는 바탕, 내일의 나를 만드는 기반이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항상 같으신 말씀, "부처님처럼 살려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수시로 변화하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며,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집착하고 경쟁할 대상이 없어지면 행복해진다"고 강조하신다.

오늘도 선생님은 "나와 함께 남에 대한 일체의 자비와 나눔은 나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마지막 인사로 하셨다.

그리고 안성으로 내려가기 위해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조계사의 연등이 꽃물결처럼 아름답게 장엄했다. 고마운 분들을 위한 연등을 달며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기원해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 정 설국 무명 대종사

종회의장	성묵	원로원장	각성
총무원장권한대행	녹원	총괄상임이사	성철
비구니진흥원장	혜전	특임원장	일정
대외협력위원장	대명	권역별종무위원장	현담

종단비상대책위원(무순)

덕주, 부자, 능조, 무변, 장안, 명덕, 무애, 운봉, 원공, 마애, 대명, 법륜, 법우, 지현, 법정, 각원, 종언, 영봉, 수련, 주형, 명성, 보하, 대산, 법산, 무성, 혜원, 지족, 진여 원광, 법선, 경조, 길문, 범화, 효상, 문수, 영산, 채민, 자문, 혜선, 덕암, 보성, 일주, 진관, 지안, 법경, 락현, 혜진, 일화, 원선, 법훈, 월광, 명덕, 혜담, 도성, 혜산, 일심, 채민, 선공, 상월, 덕산, 보현, 도현, 홍도, 일정, 성원, 석담, 법운, 정혜, 자광, 해원, 길문, 초연, 각성, 청산, 인경, 천무, 자인, 원일, 진허, 청산, 도광, 여영, 도현, 진광, 동림, 혜민, 마하, 자법, 혜원, 금산, 보성, 대해, 청산, 상현, 성희, 정공, 금보, 도연, 원광, 무학, 일도, 무애, 수천, 혜선, 덕암, 석용, 화광, 일화, 도진, 성관, 용담, 법수, 법훈, 원오, 선주, 상운, 여영, 일심, 효선, 지각, 동림, 정엄, 정문, 도면, 삼장, 용주, 홍도, 덕산, 마하, 성원, 법연, 효성, 상무, 법조, 지담, 수암, 성광, 호산, 정현, 진현, 일공, 예산, 혜담, 여송, 자연, 죽봉, 법우, 연화, 대성, 정원, 해응, 원동, 천태, 대안, 진성, 진암, 무천, 보성, 법춘, 혜지, 혜인, 성묵, 영봉, 무량, 해성, 진법, 현성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JOGYE ORDER KOREA BUDDHISM & CORPORATION
Http://jogyejong.or.kr E-mail : jonggyo119@hanmail.net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FAX : 02)720-8271
TEL : 02)2198-5022 FAX : 02)2198-5025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051)508-4509 팩스 051)508-4870

"부처님 어서 오세요~"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루리
무량사
주지 법천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번길 온천2동
전화 010-2426-1766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주 혜총
원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주)엘티유이엘씨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4, 102호
전화 051)728-5562 팩스 051)557-5587

대한제지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